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회장:노대형/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7월 1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182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프라치스꼬집 수사

"안녕하세요? 프란치스꼬집입니다. 고추 세박스와 열무 한자루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수사님. 지금 봉사자들이 가지러 가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서울 제기동에서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내일을 준비하는사람들'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천주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무료급식소 프란치스꼬집은 수시로 이런 전화가 으간다.

오직 노인 및 노숙자들을 위해 천주교집 야채가 불교집으로 종교를 뛰어 넘어 보시되는 것이다.

이런 인연은 문 연지 갓 1달 밖에 안된 '내일을 준비하는사람들'보다 훨씬 오래된 프란치스꼬집 수사의 제안으로 맺어졌다.

'내일을 준비하는모임'이 막 문을 열었을때 이웃에 산다며 프란스꼬집 수사가 불쑥 찾아왔



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수사는 "우리는 오래돼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식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야채는 너무 많아 다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고 싶다"고 운을 띄웠고 불교 급식소측에서 좋은 뜻을 고맙게 수용하면서 이뤄진것.

이렇게 보내주고 또 받기로 약속된 야채들은 대부분 이웃 경동시장에서 리어커를 끌며 일하는 아저씨들이 운임도 받지 않고 배달해준다. 리어커 아저씨들은 "우리도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다"며 즐겁게 옮겨준다.

프란치스꼬의집에서 내일을 준비하는모임으로 보시된 야채들은 대부분 상인들이 팔다가 다 못판 야채들로 사실상 정품이 아니라 손길이 여늬 것들의 몇배가 더 간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더많이 사들여 먹지못한다. 그래서 야채가 보내진 날이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의 저녁준비도 잊은채 오후 7~8시까지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다듬는다.

이처럼 이웃을 위하는 자비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야채는 노숙자 실직자들의 식탁에 올라 허허한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흔들리는 직장법회



1 직장법회 현주소
② 침체요인 진단
③ 활성화 방안

227곳중 82곳 '법회 중단'

24곳은 이름뿐 활동없어 IMF 찬바람에 회원급감 은행불자회 침체 두드러져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 거사불교 융성의 디딤돌인 직장·직능법회. IMF시태 이후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가장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터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직장·직능법회의 침체는 생활불교의 정착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중단을 비롯한 교계의 관심 또한 미미한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본지는 '흔들리는 직장법회'를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직장·직능법회의 현주소 △침체요인 진단 △활성화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2백27곳의 직장 불자회중 81개 단체가 최근 몇달간 법회를 봉행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2백27곳의 직장·직능단체에 법회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단체중 24곳은 이미 해체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회를 개최하고 있는 불자회도 소수의 인원으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직장이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 불자회 운영이 쉽겠습니까? 운영방안을 모색했지만 모든 상황이 어렵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 불자의 토로는 직장법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직장법회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결쳤던 한국은행불자회의 경우도 구조조정으로 회원이 절반 가량 줄었다.

조사 결과 직장·직능단체는 모두 2백27곳으로 지난 96년 10월의 1백97곳(현대불교신문 조사)에 비해 수적으로는 30여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 법회가 조직된 곳도 단위 사업장이 아닌 KBS와 운전기사불자회 등 전국조직의 지부형태였다. 즉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법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이 81개 단체나 돼 96년보다 51곳이 감소했다는 결론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호남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서울이 52개중 27곳, 호남지역은 20개중 14곳이 불자회가 법회를 중단했다.

직장법회의 계점휴업 사태는 한보 진로 대농 기아 건영그룹의 부도에서 시작됐다. 부도로 인해 건영그룹 산하 8개, 기아그룹 2개 불자회가 해체된 것은 물론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쳐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소속 16개 은행중 12개 은행불자회의 법회 중단 상황으로 이어진 것. 여기에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기업 매각이 본격화될 태세여서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능법회의 경우는 전문·자유직 모임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IMF바람을 덜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직능법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진목위주의 운영 △회원들의 소극성 △부실한 법회운영 등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장단과 임원단등 핵심멤버가 퇴직하거나 전출하면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은 종단 및 인근 사찰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및 전국 단위 연합회 결성과 합동법회 개최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IMF 찬바람에 회원이 급속히 감소되며 법회가 중단되는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서울 관문사에서 5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국난극복 기원 '참회대법회.



◇대전 엑스포광장에서 열린 '대참회 영산대재'에는 4천여명의 불자가 운집 성황을 이뤘다. 〈사진=고영배 기자〉

5일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10일 대전 '참회 영산대재'

"참회로 국난극복 지혜내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5일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원장 운여)이 주관해 '동체대비 구현 철야관음정진'으로 열린데 이어 10일 관음종 총무원(원장 홍파) 주관으로 대전 엑스포 지구탑광장에서 '대참회 영산대재'로 봉행됐다.

국난극복 전국순회 제3차 대회로 열린 관문사법회는 첫 실내행사로 각 종단지도자를 비롯 정·재계인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해 실직자돕기 기금도 모금했다. 이날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월주스님의 법어, 전두환 前대통령·신나균문화관광부장관·고건서울시장의 기원사, 박상규 국민회의 연동회장의 발원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에앞서 천태종 서울지역과 부산지역 신도 1천여명은 4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관음정진으로 국난극복을 발원했다.

한편 10일 우천속에서 열린 국난극복 제4차 대회인 대전 엑스포법회는 전국에서 4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관음종 종정 대천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난국을 불보살의 가피력과 국민들의 참회로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대회사에서 "백장선사의 일하지 않으면 먹지말라는 가르침을 새겨 국민 모두가 절약을 생활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심대평 충남도지사, 홍성기 대전시장이 기원사를,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의 발원문을 봉독했다. 이어 2부 영산대재는 우중에도 진행됐다. 위영란 기자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륵사 목아박물관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숙식불이시설·수영장 캐리비안베이시설 이용 아미타전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야침저녁 예불·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준비물: 23일 점심, 수영복, 수영모자, 세면도구, 필기도구, 이불
◇집 결: 23일 오전10시 조계사
◇참가비: 5만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현대프로덕션·(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봉은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봉은사는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권을 갖는 공찰(公刹)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의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 권한이다. 봉은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가 봉은사 주지를 추천하는 것은 마치 부산시민이 서울시장을 뽑는 격이며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 직영사찰로 착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봉은사 대중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중앙승가대 동문회와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봉은사 주지가 임명된다면 공찰로서의 봉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봉은사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봉은사와 관계없이 중앙승가대학 동문회장에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나 동문회가 봉은사 주지를 추천하는 것은 봉은사 주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권위와 종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지난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건과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과 관련한 반박 성명에서 봉은사 주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함과 봉은사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 학생스님들까지도 승가대학 신문을 통하여 "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 봉은사 주지직이 동문회장의 당연직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동문회 결성 목적에 뜻을 둔다면 동문회장이 봉은사 주지직에 오른다는 잘못된 사고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문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도 동문회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임하거나 봉은사 주지가 동문회장직을 겸임하는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문회장은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인적 구성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운영협의회의 석상에서 몇몇 뜻있는 스님들이 "중앙 승가대 운영협의회는 학교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지만 봉은사 주지직에 목적을 둔 세력들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다.

중앙승가대학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중앙승가대학 운영협의회와 동문회는 주지직 등 이권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중앙승가대학교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망신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들러리 기구가 아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학교 발전이라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봉은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봉은사는 지난 88년 뼈아픈 정화 과정을 겪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겨우 그 상처를 극복하고 21세기 포교 제일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봉은사 사부대중은 봉은사 차기 주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반 국민과 불자들에게 주지직을 위한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 때문에 이에 대한 봉은사 사부대중의 입장을 밝혔고, 중앙승가대학 운영협의회와 동문회가 봉은사 주지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추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순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봉은사와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한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개혁종단 출범 후 화합과 포교에 정진하는 힘찬 분위기가 훼손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불기 2524년 7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출가대중·신도회·거사회·구역법회·
불교대학 동문회·노인회·합창단·청년회

사 설

광신만행 단죄해야

그동안 다른 종교, 특히 일부 기독교도의 광신적 행태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와 손실은 췌언(贅言)을 요하지 않는다. 사찰에 불을 지르고 탱화를 찢으며 석불이 붉은 십자 형상으로 환칠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한적한 시골이나 깊은 산사에서는 크고 작은 훼불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은 그 중 극악한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제주 원명선원에서 본존불이 내동댕이 쳐 지고 수백개의 불상이 목이 잘리는 횡액을 당했다. 탁자와 경전들이 마구 찢겨 나뒹굴어 그 끔찍한 현장은 육도의 아수라를 연상시켰다.

일을 저지른 범인은 한 젊은 청년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사찰에 찾아와 고성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부처는 하나님의 제자이니, 절간을 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광신적 작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들인가. 전통의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유연하고 관용적인데 오직 그 종교만이 그토록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결국 파괴적인가. 물론 그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상호이해와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열린 인물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기독교계가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을 체화(體化)시키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밖에서의 구원이라는 테제를 수긍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그런 주장을 했던 급진적 신학교수 한 사람이 보수적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직책을 떠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한다.

불교는 이 유일신적 고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절대에는 얼굴이 없다. 신성은 표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늘 미끄럽다. 신의 얼굴을 묻는 학인에게 유마는 침묵으로 대답했고, 조주는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다.

이런 진리관에서 볼 때 모든 교리와 관념은 궁극적으로 방편일 뿐이다. 초월을 향한 부정적 접근방식의 이런 자유함을 기독교는 아무래도 공유하기 힘들다. 그 금지된 영역을 기웃거린 사람들, 가령 사막의 수도사들이나 에크하르트, 니콜라스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핍박받거나 화형장의 재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불교계는 훼불의 범죄에 대해 온건하게 대처해온 편이다.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에 대해 너무 안이한 기대를 건 탓인지도 모른다.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과격한 신도들을 교화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권력뿐이다. 진작부터 이런 문제는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기보다 공공의 질서와 법률의 테두리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기독교도든 누구든 사찰의 재물을 손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응분의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타자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는 종교적 교리가 사회적 규범에 종속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인 공권력의 태도는 모호한 데가 있었다. 방화와 훼불을 저지른 범법자들을 자주 정신질환이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방면해왔던 것이다. 명백한 범법을 공권력이 종교의 이름 아래 보호하는 것은 민주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집권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특정한 종교를 옹호하거나, 혹은 민감한 문제인 탓에 적절한 조치와 단안을 유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줄 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권력은 종교적 편향을 넘어서 엄격한 법집행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잇단 훼불…"정부 대책 세워라"

18일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 소집
8월8일 종교편향 방지촉구 대법회

제주 원명선원 훼불과 구청장 취임식 성경 선서, 해병대 군종사병 서울역 선교행위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훼불 및 종교편향에 대해 교계가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 송강스님)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책위은 성명서에서 일련의 훼불과 종교편향에 대해 "종교를 가장한 반종교적 행위이며, 사회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국민과 종교간의 화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하고 18일 가칭 '국민정부 종교편향 척결을 위한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특정종교편향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회의 개최와 관련, 송강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각 종단, 신행단체 대표자들의 참석을 이끌어내겠으며, 8월 8일 훼불 및 종교편향의 근본적 방지를 촉구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은 이에 앞서 8일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서울역앞 선교활동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부대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징계와 완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계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도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종회 사회분과위·총무원 집행부·종교편향대책위의 3대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를 결성했다.

공동조사위는 법안 원행 진관스님 등 사회분과위원과 능관덕운 영배스님 등 총무원집행부, 종교편향대책위 원혜 송강스님 등 8인의 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편향대책위는 국민화합을 깨뜨리는 훼불과 종교편향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엄중수사-재발방지 촉구"

제주 호법대책위 성명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월라사 주지)는 '원명선원 훼불사건'과 관련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중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호법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특정종교을 신봉하는 광신도의 왜곡된 종교관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엄정수사 △왜곡보도 언론 각성 △해당 행정기관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또 성경에 손 얹고 구청장 취임선서

민선구청장이 잇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공복이 될 것을 다짐하는 취임선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파구청장에 이어 강북구청장도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 것.

강북구 장정식구청장은 1일 취임식때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자"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장 구청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한 것은 개인적인 양심에 대한 표현이다"며 "타종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울역앞 선교행위 해군본부 진상조사

해병대 개신교군종사병들의 서울역앞 선교행위〈본지 181호〉와 관련, 국방부가 3일 해군본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군종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개신교 군종사병들의 서울역앞 선교행위와 관련 40여명의 병력이 이동하면서 지휘관 통제가 없었던 점과 교육참가 이외의 선교활동을 한데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2000년부터 종무행정 '온라인'

조계종, 전국사찰 전산네크워크 내년말 마무리

2000년부터 조계종의 모든 사찰이 전산네트워크를 통한 통일된 종무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조계종은 8일 지방종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설계와 중앙종무기관 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을 이현데이타시스템사와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현데이타시스템은 올 하반기 동안 사찰 업무를 분석, 종무행정 표준화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시범사찰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에 보급되고 중앙종무기관의 전산망에 연결시키게 될 경우 조계종 전국 사찰을 연결하는 종합 전산 네트워크 구축작업은 완료된다. 조계종은 내년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아래 종무직 종사자 교육등 부대업무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중이다.

조계종은 현재 각 사찰이 사용하고 있는 종무행정 프로그램이 상호 호환성이 없고 업무 양식의 통일성이 결여됨으로 업무의 표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국적인 전산네트워크 구축도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통일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본사, 말사의 종무행정 양식이 표준화 되고 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된다.

조계종은 전국 전산망 구축에 앞서 기존의 중앙종무기관 종무행정 프로그램의 기능 확장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9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업그래이드 작업은 밀레니엄 버그 발생을 차단하고 각 프로그램들간 상호 연결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10월 28~30일 북경서 한중일불교교류위 회의

한중일불교우호교류연락위원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4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연락위원회의 개최와 위원 구성, 금년도 중점사업 등을 논의했다. 3국 간사들은 회의에서 연락위원회는 각국 불교대표자 7명 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국 단장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 부회장급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간사회의는 또 금년 가을에 3국 불교대표의 쌍방 초청, 3국 불교의 대표적 경전을 3국어로 번역한 자료집의 발간, 회에 걸친 교류대회 자료집의 3국어 합본집 발간, 환경보호 식수사업 전개 등에대한 원칙적인 합의도 도출했다.

또 3국 불자들과 국민에게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호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간사회의에는 한국에서 홍파스님(관음종총무원장), 능관스님(조계종사회부장), 자월스님(종단협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다까하시(橋本聖圓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이사) 고도오(後藤忠男 〃) 오니이시(大西眞興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의회사무국장) 중국에서 신재부(申在夫 중국불교협회부비서장) 장립(張琳 〃) 장택서(張澤西 중국불교협회변공실부주임)등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산중총회법 개정 8월4일 공청회

교구본사 주지 선거의 존폐를 논의하는 산중총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월4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6일 종법제개정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공청회 일정을 정했다. 종회는 주제발표자 4명과 토론자 6명을 선정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 상반기에 선거를 치른 교구본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사주지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관람료사찰 25일까지 재정감사

조계종 총무원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대한 재정감사에 들어갔다.

총무원 감사국은 7일부터 25일까지 교구본사를 제외한 관람료징수사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관람료수익 5억이상의 사찰들에 대해 서면 감사와 실사 감사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관람료 사찰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찰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임연태 기자

'법장스님 명예훼손' 청룡스님 공개사과

지난 4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신상 및 종무집행과 관련한 내용의 괴문서를 유포했던 청룡스님이 최근 "사실확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데 대해 법장스님과 수덕사 대중에 공개사과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쑥스럽죠?

공 개 토 론 회

21C 승가상 정립과 강원의 위상과 역할

모시는 말씀

영원한 광명이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귀의합니다.
이 땅에서 유수한 세월동안 시대정신으로 자리해 온
우리 불교는 이제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환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녹음 짙은 성하의 계절 속에 문화의 세기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방의 어른스님, 학인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월 24일(금)10 ~ 오후5시
· 장소 : 서울 동국대 예술극장
· 후원 : 전국 교직자 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최 : 전국전통강원연합
· 문의 : 0599) 31-1016, 011) 229-4439

주 제 21C 의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
사 회 자 효림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실천승가회 의장)
기조발제 진옥 스님 - 21C의 승가의 위상과 역할
명법 스님(운문사 강원)-수행자 배출에 있어서의 강원의 실상과 개선점
지운 스님(송광사 강주)-21C승가상 정립을 위한 강원의 위상과 역할
송위지 교수(외국어대 철학과 교수)-재가입장에서의 21C의 승가상 정립
토 론 자 혜능 스님(파계사율원)
도오 스님(통도사강원)
정융정 거사(옥수사회복지관, 전 대불청 사무종장)
이은윤 기자(중앙일보 전문위원)

전·국·전·통·강·원·연·합

전국순회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이모저모 5일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의 첫 실내행사로 열린 천태종 관문사 법회. 이지리는 개원을 앞둔 관문사의 첫 대외적인 행사장이 됐다. 법회장인 옥불전에는 5천여명의 불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4일 밤9시부터 이튿날인 5일 새벽3시30분까지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옥불전에 모여 동체대비 구현을 위한 철야 관음정진을 했다. 간절한 자비심과 투철한 수행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더위도 아랑곳 않고 관음주력에 열심이다.

관문사 첫 대외 행사

○…이날 법회는 오는 10월11일 관문사 개원법회에 앞서 개최된 첫 대외적인 행사이기도해 참석한 교계지도자들은 경내를 둘러보며 시설에 감탄.

철야정진 1천 불자 동참

○…4일 철야 관음정진은 오후9시 4백여명으로 시작하더니 오후10시40분 법회시간을 앞 둔 10시경 각 사찰별로 토요법회를 마친 천태종도들이 모여들어 1천여불자가 동참. 관음전에서 각자 앉은 자리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는 염송 소리 속에는 국난극복의 간절한 원력이 담겨 있는 듯. 죽비를 든 구참보살 56명이 넓은 법당을 오가며 졸고있는 신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건시장 기원사 '눈길'

○…취임후 첫 종교계 행사에 참석한 고건시장의 기원사는 독실한 불자인 부친 고형곤박사에 대해 언급돼 눈길. 고시장은 "가친께서 불교를 연구하신 학자셔서 어려서부터 관심가지고 자라왔다"고 밝히고 "불교사상은 대자대비의 공동체정신으로 어두운 시대를 환히 비추는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씨 "서로 위로하자"

○…신흥사법회에 참석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전두환 前 대통령은 이날도 장세동 前 안기부장 이양우변호사 이원영 前 문공부장관 최열곤 前 서울시교육감 이은수 前 해군참모총장 민정기 前 수석 등을 대동. 전 前 대통령은 기원을 통해 "증오와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할뿐이고 그 마음의 병은 결국 또 다른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교계 · 정계인사 대거 참석

○…이날 법회는 13개 종단대표 각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국민회의 연등회 박상규회장 자민련불자회 박철언회장 한나라당불자회 함종한회장을 비롯, 권익현정각회고문 한영수 자민련부총재 이한동한나라당부총재 박준병자민련사무총장 김용갑 이양희의원 등이 자리했다.

10일 대전 '참회 영산대재' 이모저모

민 · 관 · 군 하나되는 행사

○…10일 국난극복 영산대재는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첫 일반행사로 기록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엑스포재단 박병익 이사장은 "국난극복에 민 · 관 · 군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요식땐 가랑비만

○…장마기간 중에 봉행된 영산대재는 1부 법요의식의 끝부분 '우리의 다짐'이 낭독되는 순간부터 빗방울이 뿌리기 시작해 사홍서원을 합창할때는 폭우로 돌변. 동참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날씨가 행사를 도왔다고 한마디씩.

관음종 합창단의 찬불가

○…국태민안과 예수재를 겸해 열린 영산대재는 식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진행. 법회 분위기가 더욱 경건. 육군 군악대의 힘찬 주악에 맞춰 2백여명의 관음종 연합합창단(지휘 정옥녀)의 찬불가가 알루미늄 지구탑 모형 조형물 아래로 장엄하게 퍼졌다.

신도복장 회색으로 통일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4천여 대중속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창녕 법성사에서 참여한 1천여명의 불자들. 회색 조끼와 바지로 신도복장을 통일해 법회장에 입장하면서부터 주목받았다.

박찬호 · 박세리의 고향

○…법회 장소인 대전이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골퍼 박세리 선수와 투수 박찬호 선수의 고향권이라는 점에서 화제. 이날 2부 영산재에 앞서 사회자는 우중 속에서 강행된 영산대재의 참뜻을 일깨우면서 박찬호, 박세리 두 선수에게서도 그 뜻을 확인하자고 설명.

日 스님 "국난극복 의지에 감동"

○…에즈레도시노리 일본불교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계의 국난극복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말해 박수.



◇장마비도 멈춘 대전 엑스포광장의 대참회 법회는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4천여 불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통일된 복장으로 참석한 창녕 법성사 신도들의 정연한 질서 속에서 화합과 위기극복의 의지가 더욱 새롭게 다져졌다.

목어 박세리 처럼

부처님께서 아일보살에게 이르셨다.

"무엇이 가장 급한가.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로 하며, 눈·귀·코·입·손·발을 바로하는 일이다. 또 안팎을 단속하여 욕심을 따르지 말고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고 행동이 한결 같아야 한다. 먼저 잘 생각하고 헤아려 고요한 마음으로 일해야 이를 진정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경솔하면 모처럼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뉘우침만이 따르게 될 것이다."

두달전 LPGA 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지난 7일 98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 세계골프여왕에 등극한 박세리(21)는 마치 〈무량청정평등각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볼이 연못으로 굴렀을때 잠시 실망했다. 그러나 단념할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하니 머리가 맑아졌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경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시련은 오히려 투혼을 불러 일으킨다."

연장 18번홀에서 연못가 수풀속으로 공이 떨어졌을때 박세리는 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시커멓게 탄 종아리와 하얀발이 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마지막 샷이라고 생각하며서 물속에서 침착하게 스윙을 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 제일이 됐다.

그녀는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언제나 똑같은 표정이다. 본인은 감정표현을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보여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는 다른 선수를 의식하거나 갤러리들의 응원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플레이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드넓은 그린에서 펼치는 자기와의 싸움이 박세리에게는 선(禪) 수행이었을까. 그래서 항상 그자리(중심)인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골프가 무엇인지 알게됐다. 꿈꾸던 일이 현실로 이뤄졌으나 세계 1인자는 아니다. 그 방향으로 출발했을 뿐이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우리 모두가 박세리처럼 눈·귀·코·입·손·발·마음을 바로하여 겸손하며 행동이 한결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않고 최선을 다하면 IMF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텐데….

"성보박물관 협의체 구성"

성보박물관 관계자 간담회서 제안

전시교류 · 정보교환통해 포교 극대화

용주사 월정사등 13개 조계종 교구본사가 추진중인 성보전시관 건립이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교환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단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통도사 화엄전에서 처음으로 열린 성보전시관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성보전시관의 건립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의견이 다각적으로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성보전시관을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사용중인 성보전시관이란 명칭을 성보박물관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해야 각종 세제와 운영 경비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장고나 전시실 시설확보는 물론 전문 직원의 채용, 지속적인 연구사업전개 등이 뒤따라야 하고 현재 건립중인 성보전시관도 박물관 규모에 걸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담회 참가자들은 종단내 성보박물관 협의체를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사찰 성보박물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며 교류전시, 기획 전시, 정보교환, 일반 박물관과의 교류 등을 추진하며 성보박물관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보박물관을 통한 포교도 중요한 역할로 거론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성보박물관 건립이 종단적인 사업으로 일관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찰환경과 문화 역사적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박물관의 설계모델과 운영지침을 종단이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스님은 종단에 대해 "성보박물관 건립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보박물관 관리 소임을 맡는 스님들에게도 중법상의 직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 조계종 성보박물관 관계자 첫 간담회가 9일 통도사에서 열렸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봉은사 주지 추천에 대한 중앙승가대학교의 입장

먼저 미래의 종단을 책임지고 불교중흥을 선도해 나갈 도제를 양성해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종단 유일의 정규 승가교육기관으로서 오는 7월 20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봉은사 주지후임 추천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의견표출과 사태로 인하여 그 동안 승가대학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저희 승가대학 전 구성원 일동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봉은사 대중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승가대학을 정치집단, 이익집단,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순수하지 못한 단체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전후사정과 과정을 밝힘으로서 승가대학과 봉은사와 관련한 진실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중앙승가대학교와 봉은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지하다시피 봉은사는 지난 88년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회생과 정화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찰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봉은사는 승가대학의 당시 동문회장이던 성문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는 승가대 동문출신의 스님들이 대중으로 참여해 살게 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중앙승가대학교의 제정지원사찰로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서 학교운영과 교육불사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었다.

그러던 중 94년 개혁회의 당시 학교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종단에서 학교지원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시점으로 학교와 봉은사는 종단의 법적, 제도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승가대 동문회장이던 무상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마찬가지로 승가대 동문들이 주요소임을 계속해서 살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운영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인연 있는 사찰로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의 봉은사 주지 후보 추천과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는 7월 20일 봉은사 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차기 봉은사 주지 후보로 나서거나 거론되는 3인이 있었다. 바로 현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 부주지 원혜스님, 동문회장 효종스님 등이 바로 당사자들이었다. 이들 3인은 그 동안 성문스님, 무상스님 등이 학교의 협조와 추천을 얻어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았던 지난 사례에 비추어 학교의 협조와 추천을 희망하여 왔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선 이들 3인 모두가 동문, 명예동문으로서의 인연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 1인에게 지지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능한 한 3인이 합의하여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을 경우 학교의 협조를 약속하였었다.

그러던 중 현주지 무상스님이 지난 6월 24일 후보사퇴를 공식 선언하는 것을 시점으로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교직원, 교수, 동문, 학생, 봉은사, 개운사 대표로 구성된 제32차 「학교 운영협의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하게 되었고, 이 회의에 봉은사를 대표하여 총무 범일스님과 참관인으로 봉은사 상주 대중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결과는 원혜스님과 효종스님 2인 가운데 1인을 단일화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6일 제33차 운영협의회까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더불어 단일화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인 모두를 운영협의회에 추천하고 양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는데 동의하는 약속을 받아올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었다.

그러나 이후 소위원회의는 몇 차례 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 없이 지난 7월 6일 「제33차 학교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물론, 이 회의석상에는 봉은사를 대표하여 총무 범일스님과 봉은사 대중들이 다수 참여하였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단일 추천후보로 결의하기로 논의하고, 그 결과의 수용 여부를 양측 대표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효종스님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반면, 봉은사측에서는 운영협의회 인적구성을 문제삼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모두가 회의석상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효종스님을 단일 주지 후임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

3. 봉은사 대중의 일방적 학교 음해에 대하여

먼저 봉은사 대중의 설득력 없는 일방적 음해와 모략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후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승가인 답지 못한 언행을 일삼아 승가대중을 음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승가대학을 졸업한 동문들로서 모교의 합법적 회의기구와 결과를 무시하고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간적 연민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봉은사 대중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처음부터 학교운영협의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부당성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차례의 공식적 회의 참석과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함께 논의과정을 진행해 놓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모순이 분명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봉은사 대중이름의 성명서는 봉은사 주지는 봉은사 대중 가운데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지 임명을 총무원장스님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봉은사는 분명 총무원장스님이 임명권을 갖는 공찰임이 분명하다. 이는 승가대와 대중들 가운데 한사람도 이의를 달지 않는 불변의 사항이다. 종단과 학교, 봉은사를 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효종스님을 운영협의회의에서 추천한 것도 그 가능성 가운데 한사람을 추천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봉은사 대중들은 더 이상 봉은사 대중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배타적이고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소승적인 자세를 털어 버리고 본래 승가의 모습과 양심으로 누가 주지소임을 맡게 되더라도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더 이상 학교를 음해하고 승가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한번이라도 같은 언행을 일삼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 승가대학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기 2542년 7월 10

중앙승가대학교 운영협의회 · 총동문회 · 총학생회 일동



"파라미타 발족 가슴 뿌듯"

농어촌 · 빈민층 포교엔 아쉬움

포교원장직 떠나는 성타스님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며 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출범시켜 종단차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또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구성해 한국불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95년 11월 포교원장으로 취임, 2년8개월동안 재직하며 포교관련 각종 규정의 제·개정, 통일법요집·불교교리·불교입문 출판 등 포교기반의 토대를 다진 성타스님이 15일자로 사임했다. 성타스님은 20일 불국사 주지로 취임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농어촌과 빈민층을 위한 포교에는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포교종책을 세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쉽다는 말로 떠나는 심정을 내비쳤다.

성타스님은 포교는 곧 불교의 존재 이유라며 "개인의 깨침은 완성이 아니고 깨우침을 중생들에게 전해야 비로소 완전한 불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가는 포교원이 종단의 가장 비중있는 기구가 돼야 하며, 그때에 한국불교 또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요. 그리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육조단경〉의 '常見自己過 勿見他人過'(항상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되, 남의 허물을 살피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맺음을 한다는 성타스님은 "경전의 한구절을 늘 놓지 않는다면 저절로 참회의 생활이 될 것"이라며 "참회가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며 자신에 내재된 청정심을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의 최우선 증무는 포교"라고 밝힌 성타스님은 "불국사에 불교종합 영상센터를 개설해 한국불교와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입체적으로 알리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스님들의 수행공간 이외의 불국사 경내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연수원 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국민은행: 023-21-0551-926
- ●조흥은행: 390-04-261032
- ●농 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교차로

다촌차문화 학술상 수상



성우 대구 파계사 주지는 7일 한국다도협회 주최 제2회 다촌차문화상 시상식에서 차문화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행실수 철아 법회



혜인 삼화불교대학장 스님은 4~5일 1박2일간 통신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행실수 철아정진법회를 가졌다.

연변 발해사 학술회 참석



법륜 한국JTS이사장 스님은 연변대학 발해사 연구소 주최로 3일 열린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사 학술토론회'에 참석키 위해 4일 출국했다.

노인 초청 나들이 행사



설웅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8일 동작구 노인 2백20명을 초청, 용산전쟁기념관, 장흥국민관광단지 나들이 및 백조예술단 공연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사천왕 복원 만등불사



능허 예천 용문사 주지는 용문사 사천왕 및 사천왕문 복원 점안 만등불사를 19일 오전 11시에 봉행한다. 용문사 사천왕은 1678년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규모다.

염불만일 대회서 법문



현장 전남 대원사 주지는 5일 전국염불안일회 주최 'IMF 극복과 통일을 위한 전국 염불만일정토대회'를 위한 법회에서 법문했다.

천일 지장기도 50일 천도재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1일 선원사 복원 천일지장기도 50일 천도제와 수각본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오승스님 초청 마정수계식



법운 경기도 광명시 청룡사 주지는 11일 대만 오승스님(암항사 주지)를 초청, 마정수계법회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북한 문화답사 위해 방북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북한지역 문화답사를 위해 7일 방북길에 올랐다. 8일부터 보름동안 평양 금강산 칠보산 백두산 등을 답사하는 이번 기행에는 유홍준 김주영씨 등 모두 6명이 참가하고 있다.

LA 선각서사 강연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은 미국 LA 선각사가 주최하는 특별강좌에 초청받아 지난 8일 출국했다. 정교수는 '현대인의 보살도' 주제로 강연한다.

교수불자련 하계수련

조희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3일부터 6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8년 교수불자연합회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한국불교언론인회 현판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KBS 해설위원)은 21일 오후6시 마포 다보빌딩 2층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실 개원 및 현판식을 갖는다. (02)719-4083

학사 기금마련 바자회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전북불교대학 학사이전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북 전주시 삼천동 새학사에서 가졌다.

로타리 3710 총재에

이상진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4일 광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국제로타리클럽 3710지구 총재에 취임했다.



실직가장에 5백만원 기탁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3일 오후6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직여성가장돕기에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성각스님은 6월17~23일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실직자 가족돕기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가졌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c.com〉



새 국제포교사 24명 탄생

9월중 국제포교사회 결성키로

제3회 국제포교사 연수과정 수료식이 4일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열려 24명의 새 국제포교사가 탄생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조계종포교원장 성타스님과 포교부장 원혜스님, 연수국장 법경스님, 연등회관 원장 원명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타스님은 "국경없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품수를 받은 국제포교사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두 차례씩 교육을 받았으며, 부처님오신날 외국인 홍보, 관광가이드 연수 등 현장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이번에 품수한 국제포교사와 1, 2회 국제포교사들은 9월중 국제포교사회(가칭)를 결성키로 하고, 매주 한차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95년부터 조계종포교원에서 배출한 국제포교사는 모두 45명이다.

포교원은 외국인 사찰관광 안내, 국제행사 통역 등에 우선적으로 국제포교사를 배치하고 해외포교도 주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자율적 수행불교 펴고싶어"

지리산 수도장 선림원 연 거정스님



"불교는 깨달음의 법이며 자아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 수련하는 장이 바로 선림원입니다. 선림(善林)이란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서 훌륭한 숲을 이루어 가듯 묵묵히 스스로의 수행을 다져 간다는 뜻입니다."

지리산 성짓골에 누구나 함께 만나 수련할 수 있는 선림원 자율수도장을 마련한 거정스님의 말이다. 조용하고 공기좋은 3천여평의 부지에 대중방과, 단독 선실등 생활과 수련의 공간이 하나로 활용되는 수련장으로 구성될 선림원은 올 여름 40평규모의 수련장 한채를 우선 개장한다.

기복의식과 형식적인 수행의 종토에서 실질적인 수행불교로 전환돼야 한다는 스님은 "선림도량의 기본체제는 원융살림과 자율정진으로서 회의 재산을 전회원이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며 각자가 최소한의 규범안에서 자율적인 정진을 해나가는 수도장"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앞으로 좀더 규모가 커지면 종교법인 선림재단으로 만들어 종교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수련장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95)84-1193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불교TV 백화점 '효도상품전' 인기



Focus

불교TV가 서울 경기지역 뉴코아 백화점 7개 분점에서 '효도상품전'을 펼치고 있다. 삼베수의, 향, 다기, 불교서적, 사찰음식, 생활한복 등 다양한 용품을 갖춰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효도상품전은 불교TV 경영난 타개와 불교알리기의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화점측은 "일반 상품들속에 마련된 효도상품전에 3~40대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며 "6월23일부터 한달간 기획된 효도상품전은 막바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릴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향운정주 set 출시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향운정주 - 정성과 정결함이 깃든 향운정주를 사용하십시오.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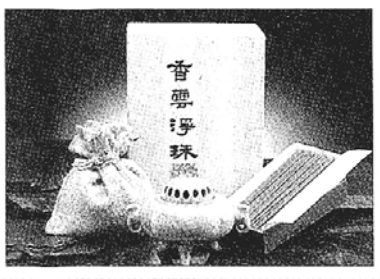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미타경'과 '법화경'에 유리는 금, 은, 자거, 마노, 산호, 진주등과 함께 극락세계를 장식한 보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향운정주를 애용하시는 분들의 개별구입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저 최상품의 향과 향로로 향운정주 set를 마련하였습니다..

● 향운 정주 set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 향운정주는

-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로 쌀과 모래보다 실용적이며 향이 잘 꽂아집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반영구적입니다.
- 유리제품이므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합니다.
- '향운'은 향운공(香雲供),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경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넘쳐 흐르며 연못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려 있다.
사방의 길과 계단은 금·은·유리·파려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누각이 있으니 역시 금·은·유리·파려·자거·붉은구슬로 아름답게 장엄했다

●법화경
약위대수스프리도 칭기명호하면 즉득친처하며 악유백천만억중생이 위구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등보하여 입어대해키던 가사혹풍이 취기선방하여 표타나찰귀국하여도 기중에 악유내지일인이 칭관세음보살명자하면

향운정주 취급점 을 모집합니다.

· 실용신안등록 97-18095 ·

株式會社 世湖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7-30
TEL : (02)272-8886/7
FAX : (02)278-6675

"참선으로 정의 · 평등 실현 앞장"

탐방 부산불교법조인회

1988년 60여명 창립
매월 법사초청 법문
"교계 권익 · 정재수호"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한 최일선에 선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과 죄를 심판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을 우선하는 사람들. 바로 부산불교법조인회(회장 안석태) 회원들이다.

부산불교법조인회는 88년 4월 법조인 불자들의 수행 및 신심 증진을 목적으로 60여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도 모임의 규모나 구성원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사보다는 안으로 자신들의 수행 점검과 내실 다지기에 전념해 온 때문이다. 매월 한 번의 정기법회에는 각성스님, 무비스님, 강정진 거사, 천명일 거사 등을 초빙해 신심과 지혜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말의 불우시설 방문, 운주사, 흥국사 등의 사찰순례, 신년의 가족법회도 빼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부산불교법조인회 회원들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평소 개인의 수행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자 사찰이나 집에서 참선이나 경전공부 등을 놓지 않고 있다.

회원들은 세상에 대한 저울질이 만물에 평등하고 정의를 위해 내리치는 칼날이 결국은 자비여야 함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내면의 불성을 깨닫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불교계의 권익신장과 삼보정재 보존 등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불교계 여기 저기서 대두되고 있는 사찰환경권 침해사례, 종교용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문제



◇7월6일 부산불교법조인회 법당에서 천명일법사 초빙 정기법회 모습. 법성게를 공부하고 있다.

당사자인 사찰이나 불자들이 법을 너무 몰라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김백영 총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함은 물론 불교계의 권익보호와 삼보정재 보존에도 솔선수범 하는 법조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명사 무설전 개원 · 백옥와불 이운

홍천 자명사(주지 효성)는 5일 무설전에서 개원법회 및 백옥와불 이운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륜종 종정 일화스님, 총화종 前 종정 야옹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혜우스님을 비롯 대만 만불사 부주지 상상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무설전은 4천여평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자명사에는 태국승왕이 2천5백년 동안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됐다.



대구불교복지회 '98 자원봉사자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7월7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98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1천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인 조순자보살(자비의전화)과 박종명보살(복지회운영위원), 5백시간 이상 봉사자 8명 등 총 53명의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상담전화, 자비의 전화 등 10여 봉사단체소속 3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산하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4~5일 원주 치악산내 자연학습원에서 중단 산하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재단 및 불교중앙교원 소속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등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5일 구룡사에서 열린 회향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 구룡사 주지 삼지, 자연학습원장 현각스님이 참석,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련선우회 창립 2주년 법회

우리는선우 백련선우회는 4일 길상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 법회를 가졌다. 우리는선우 고문 김종서박사, 남지심 공동대표를 비롯 백련선우회 성태용 회장, 상조회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서 박사는 "불교포교사로서의 철저한 사명감으로 임종봉사, 장례봉사, 안구시술 등의 활동에 임하라"고 격려했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임원수련회.

"하심하는 마음으로 재소자 교화"

전국불자교정인 임원 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4, 5일 직지사에서 전국 4개지부 38개 지회 1백82명의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입제식에서 오희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육화사상에 의하여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재소자 포교방안 심포지엄에서 박근호 영남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천2백여 회원이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자"고 말했다. 임장수 서울지부장은 "재소자들에게 하심하는 자세로 지장보살의 서원을 실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남복 충청지부장은 "열린마음으로 맨투맨식 접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차량에 염주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다.

종합토론에서 유화영 기획국장은 "각 종단과 연계하여 연합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하고 심포지엄을 정리했다.

수련생들은 철야정진을 한 뒤 새벽 도량석과 새벽예불에 전원이 참석했다. 또 8시부터 참선과 발우공양, 교리공부,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한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호남지부(지부장 문기종)는 지역조직을 강화하여 내년 창립5주년기념 연합회 수련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아나바다 여름불교학교 열린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4.5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제19차 부산어린이지도자연수회(사진)를 개최했다. 심성프로그램, 사찰습의, 협동공동체놀이, 찬불가,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1박2일의 연수회에는 2백여 지도자가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는 특히 여름불교학교 운영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IMF 시기를 맞아 알뜰한 아나바다 여름불교학교 만들기에 의견을 모았다.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범산스님 등이 참여한 입제식에서 정여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지같은 아이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과 깊은 마음의 뿌리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천태종 교불련수련회

천태종 전국교원불자연합회(회장 전찬택)는 31일부터 8월3일까지 구인사에서 제7회 수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 유치원, 초·중교원, 대학교수, 교육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불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7월25일까지 (0444)20-3309.

영등포교도소 찬불가경연

영등포교도소 불심회(회장 이영주)는 29일 오후1시 대강당에서 재소자 찬불가경연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재소자들이 법회에 참석하여 배운 찬불가를 독창과 합창으로 나눠 참가할 예정이다. (02)619-2781

월성원전 풍산금속

불자회 법당불사

금융단불교련 · 강릉경찰서는 기금조성

직장불자회가 신행에 근간을 이루는 법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반야회(회장 구한모 소장)와 마야부인회(회장 박순희)는 6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법당인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2층규모의 단층건물인 반야선원에는 기립사에서 기증한 관음탱화와 신중탱화가 봉안됐다.

월성원자력발전소 반야회는 89년 직원부인모임인 마야부인회가 창립된 데 이어 95년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은 1백여명. 그동안 인근사찰과 복지관을 옮겨다니며 법회를 열어왔다.

양성익총무는 "반야선원이 사택안에 자리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전의 모든 사업소에 불교신행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창립한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는 8월 분당사옥 신축이전과 함께 법당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한국통신불자회 전국연합회 결성을 올해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사에 법회공간 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산금속 안강법우회(회장 최인식)는 1백96평 부지에 3층 건물로 불교회관을 건립중인데 지난해 4월 2층을 올린데 이어 3층 시공을 준비중이다. 또 회원들은 불교회관을 불국사 직할포교당으로 헌납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있다. 최인식회장은 "여유부지에 유아원도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반야회는 6일 자체법당인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와 강릉경찰서 불자회(회장 김태식)도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당마련 기금을 모으고 있다. 금융단불교연합회 하용이회장은 "금융단연합회 결성과 함께 자체법당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이었다"며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체법당을 갖고 있는 직장·직능 불자회는 병원불자회를 주축으로 25곳 뿐이다. 신행의 중심이 되는 자체 법당불사는 회원의 결속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원우 ·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月 31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삼화불교대학 학생 및 편입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상회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7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법회안내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매월 음력 16일 오후7시~17일 새벽4시 철야기도 법회. 19일 오전10시 백중 49일 천도재 입재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회 법회. 매월 22일 오전10시 포살법회. 23일 오전10시 가사불사 회향법회. (0433)43-3615



영도스님(심원사 주지) 매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오전6시 철야정진기도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0353)55-3468



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2일 수요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7월다보법회. 매월 음력 3일 오전11시 온양봉국사 초삼일 산신기도법회. (0418)43-0108



원학스님(용연사 주지)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053)616-8846



김희균씨(前 대중불교편집장) 26일 오전10시 광명시 금강정사 '재가불자들의 수행법' 주제 법회. (02)893-270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휴가와 방학은 여름수련회로…

여름휴가를 이용해 무언가 뜻깊은 체험을 하려는 불자들을 위한 각종 수련회들이 사찰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수련회, 지리산 깊은 숲에서 체험하는 명상기행, 초중고생을 위한 수련회, 청년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수련회 등 어느해보다도 다양해 진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내면 속의 자신과 새롭게 만나는 것도 이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

수련회명	기간	대상	연락처
수덕사 국난극복 선실천 수련회	7.24~7.31	일반인	(0458)87-6565
월정사 선수련회	7.27~8.11	일반인	(0374)33-6296
신흥사 성인여름수련대회	8.1~8.3	일반인	(0339)57-2695
나를 찾아 떠나는 비움의 여정, 지리산	7.31~8.2	청년불자	(051)464-2020
법사교육 하계수련대회	7.30~8.1	재가법사	(02)720-1836
맑고향기롭게 수련회	7.30~8.2	일반인	(02)741-4696
원명선원 선수련회	8.14~8.17	일반인	(064)55-3322
춘천석왕사 초중고생수련회	7.25~7.29	초중고생	(0361)52-5040
춘천석왕사 단기출가수련회	8.10~8.19	일반인	(0361)52-5040
삼운사 학생수련회	7.16~7.25	초중고생	(0361)53-6542
까치마을 여름수련대회	7.24~7.30	가족, 초중고생, 일반인	(02)873-6646
동사섭수련회	7.23~8.20	일반인	(0656)351-5125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수련회에서 온가족이 알찬 시간을 보내보자.

신행수첩

소림사 기공무에 단련
한솔복지관 무료 수련

분당에 소림사 기공을 배울 수 있는 수련장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기공수련장을 개설한 것.

매일 아침 오전 6시30분~7시30분 성남시 분당구 한솔주공아파트 704동 옆 공터에서 열리는 기공수련장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342)716-4215

동심포교 새 장 열리길…
불교레크리에이션 천일기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어린이와 레크리에이션 포교 발전 기원 천일 기도'를 봉행한다.

17일 정릉 천중사에서 입재해서 2001년 3월31일 회향하게 될 천일기도는 법당, 강당, 숙소, 운동장, 숲, 풀장이 고루 갖춰진 어린이 전문 연수원의 마련과 교사대학의 설립을 큰 서원으로 삼고 있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천일기도 봉행과 함께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후원도 받을 계획이다. (02)738-7860

자연의 생물과 대화를…
'맑고향기' 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는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우리의 삶터를 맑고 향기로운 본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이번 사찰환경 생태기행은 19일 오전 8시 무량사로 향한다. 사찰 앞의 작은 도랑속 생물들을 조심스레 관찰해 보는 한편 한껏 짙어져 가고 있는 녹음의 싱그러움을 두 눈 가득 담고 오게 될 것이다. 가족 동참자 우선으로 신청을 받는다. (02)741-4697

음성공양으로 불법홍포
대구BBS 합창단 모집

불교대구방송이 찬불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홍포에 앞장설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만25세~60세까지 여성으로 8월 31일까지 불교대구방송 업무부로 입단원서 및 소속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성악 및 음악 전공자는 우대하며 서류심사, 오디션, 면접의 과정을 거쳐 60명을 선발한다.

불교대구방송은 이렇게 구성된 합창단으로 오는 11월 창단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053)427-5114

무애원 도예학교 도자기 직접 빚어 보세요



건강한 심신 수련과, 공동체 생활속에서 전통 도예를 체험할 수 있는 무애원(주지 설봉스님·사진) 여름 도예학교가 열린다.

도예이론과 실습, 전통가마 시연 등으로 직접 자신의 도자기를 구워내고, 강화도 지역의 불교유적지도 둘러본다. 실습을 통해 만든 작품은 초벌, 재벌 구이 후 개인과 단체에게 돌려준다고.

8월 1일부터 11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되는 여름 도예학교는 2박3일과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준비돼 있어 가족단위나 단체 수련도 할 수 있다. (032)932-5087

게 시 판

♣ 알림

△IMF극복 절약캠프=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24일 2박3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산 자연휴양림으로 IMF 극복 절약캠프를 떠난다. (02)852-3525

△이·미용서비스=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무실직자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무료로 머리미용 서비를 실시한다. (02)282-1100

△아동놀이치료·성인심리검사=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만4세~12세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치료와 지능·인성·성격 등 성인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02)817-8052

♣ 강좌

△불교사상=대구구도회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 구도회 법당에서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는 동국대 정병조교수와 권기종 교수가 불타의 생애, 대승불교의 대두, 반야 유식 법화 화엄 선사상 등을 강의한다. (053)654-8533

△무료창업교실=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식조리사반, 조리교실 등 실직자를 위한 무료 창업교실을 개설했다. 수강료 및 재료비를 복지관에서 부담한다.(0342)716-4215

△컴퓨터교실·퀼트·홈패션=신도림복지관은 컴퓨터교실, 퀼트, 홈패션등 교양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31-9792

△가족 옷 만들기=자양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12시 가족 옷 만들기 강좌를 신설했다. 참가비는 2만원. (02)458-1664

△알뜰교양강좌=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미싱 사용 가능한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의류를 이용한 재활용법과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이용한 집안 장식법을 강의 한다.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0551)31-8017

△청소년 수영강습=월곡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1일~25일까지 5일간 매일 오후2시~5시까지 드림랜드 수영장에서 여름방학 특별강습회를 연다. 강습비 및 간식 등은 월곡청소년센터에서 제공. (02)918-3543

♣ 모집

△동산불교대 신입생=동산불교대학은 7월말까지 2년과정의 제13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32-1206

△유급자원봉사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30세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를 대상으로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어린이집 교사=동산반야회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할 교사를 모집한다. (02)732-1206

△우리두리 청소년캠프=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제1회 우리두리 청소년 여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24일까지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유명사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한다. (02)852-0525

△노인주간보호센터=개금사회복지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60세 이상의 경증치매노인 및 중풍노인 대상. (051)893-5034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월 1회 반찬만들기, 배식, 설거지 등의 활동을 할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나의 수행일기



구미래 〈한세출판 대표〉

내게 있어 불교는 충격적인 대면이 아니라 점진적인 동화이자 기쁨이었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소중한 만남들 속에서 불교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불교적인 성향을 발견하고 느껴가는 순간들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많이 편안하게 해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절에 가서 스님들께 합장하는 것도,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것도 어색하기만 하다. 숫기가 없고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내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안목과 가치관을 가꾸어주는 정신적인 가르침으로 내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불법이건만, 속인으로서의 나는 그 중에서도 마음과 인과응보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히 되새기고 있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조화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이 한 마음을 깨닫는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천국이건만, 나는 실체도 없는 이 마음의 조화에 끄달려 끝없이 번뇌 속을 헤매인다.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공허하고 무상하기 이를데 없는 삶이건만, 그 속에 던져진 나는 어리석음에 눈이 멀고 만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어리석음의 한 순간이 지난 후에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스스로에게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차가 점차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또한 내게 닥쳐진 어떤 상황이든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 언제인가 내가 심은 씨앗으로 인해 열매가 맺어진 것임을 일깨우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삶의 길목마다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접차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아무래도 내가 불교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 사표를 낸 뒤부터라 할 수 있겠다. 당시 막연한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일은 책을 만드는 일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까 하던 차에 직장을 다닐 때 선배의 권유로 번역해 놓았던 〈Zen Flesh, Zen Bones〉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골선육선(骨禪肉禪: 선의 뼈와 살)'이라는 제목으로 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책이었다. 번역을 하는 동안에도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진수를 신선하게 접할 수 있어 느낌이 매우 좋았던 기억에 가슴이 뛰었다.

그때부터 나는 불교경전과 고서의 번역본을 뒤지는 작업에 열중하였다. 이야기들을 읽고 모으면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옛 경전과 고서 곳곳에 묻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윽고 6개월 정도 선정하여 모은 이야기는 2천여개에 달하였고, 이야기 하나하나의 함축된 의미와 여운을 음미하는데 심취해 있던 나로서는 주제별로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큰 기쁨과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뒤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났고, 행복·사랑·수행·지혜·즉음이라는 삶의 다섯가지 주제를 불경과 고서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보고자 한 나의 첫 시도는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라는 작은 책으로 최근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큰 욕심없이 그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체험하며 살아고 싶을 뿐이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역설을 믿는다. 그리고 나름대로 불교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비결을 체득해 가고 있는 나의 어설픈 '불교적(?) 인생론'을 큼적여 본다.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스런 미소에서/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느누구에겐가/그렇게 미소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사랑하는 이여/그러기에 더욱 사랑할 수 밖에 없구나/그토록 나약하고 진주같은 눈물/오색영롱하고 가슴 설레는 따스함/그 누가 인간이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그 누가 사랑스런 미소짓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일체유심조·인과설 '삶의 등대'

경전·고서의 '아름다운 이야기' 찾기 열중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로화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仙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이는 여래치산(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정기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전통문양의 세계로 초대"

중앙박물관, 책·CD로 발간

고려문양 불교적 색채 짙어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활용

국보 214호 흥왕사명청동제은입사향완 등 전통공예품에 담긴 한국문양의 아름다움이 생생한 디지털 사전으로 되살아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4일 전통문양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총정리한 〈한국전통문양1-금속공예·입사〉를 펴냈다.

기본편·활용편 등 2권의 책과 한 장의 CD롬으로 구성돼 있는 이 문양집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져 오던 전통문양의 체계화를 통해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기본편은 금속공예품의 시대적 개괄을 통한 각 유물의 사진과 유물에 시문된 문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했고, 활용편은 범자·만자·용·당초 등 문양을 소재별로 분류, 이에 대한 정리 및 재디자인, 그리고 패턴화과정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특히 문양을 컴퓨터로 분석, 기하학적 데이터로 재창조했으며, 유물 한 점마다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 사진과 컴퓨터 파일을 수록하고 있어 곧바로 실생활과 디자인에 응용할 수도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전통문양은 금동제은입사병 등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품 6점, 통도사명청동제은입사향완 등 고려시대 입사공예품 18점, 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 등 조선시대 금속공예품 38점 등 지난해 입사공예특별전에 출품됐던 62점의 유물에 시문된 것들로 대부분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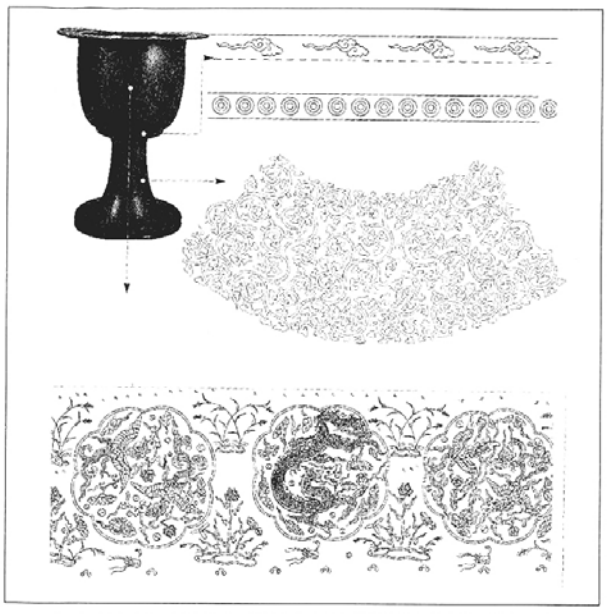
특히 고려시대의 문양은 통일신라나 조선시대에 비해 불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다.

1177년에 제작된 표충사 향완과 통도사 정병 등의 용문양과 인도의 고대문자로 향완의 주된 문양으로 자주 등장하는 범자문양은 그 대표적인 예.

이밖에 연꽃문양은 당초와 결합된 연화당초문양, 연꽃잎을 돌려 장식하는 연판문양 등 다양한 형태로 베풀어지고, 만자(卍)문양과 불교의식구의 일종인 여의두문은 보조문양으로 종종 사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실 박현택실장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우리나라의 입사공예문양은 문화시대를 대비한 문화상품 개발과 한국적인 고유디자인 창출을 위한 모티브발굴에 더없이 좋은 소재"라며 "옛 문양의 아름다움을 오늘의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



◇흥왕사명청동제은입사향완(국보 제214호)의 부분별 문양 모습.

가빈문화원 개원

대흥사 부산포교원 15일부터
불교미술·다도·참선 강의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부산포교원(원장 도학)은 15일부터 불교미술, 전통등 만들기, 다도, 한자, 수화, 참선, 국악 등 다양한 문화를 배울수 있는 무료강좌 가빈문화원을 개원한다.

매주 월요일(오후 2시, 이하 시간은 같음)에는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화요일엔 전통등 만들기, 수요일 다도시간은 차의 유래와 차 예절을 배울수 있다. 목요일에는 경전사경을 통해 한자를, 금요일엔 수화교실, 토요일엔 도학스님의 지도로 호흡법 및 참선을, 일요일엔 국악을 배울 수 있다. (051)647-8744

불심시심 〈136〉

자연은 이웃을 살지운다

洞府深深隔世塵 깊고 깊은 마을 세속 먼지 막혔지만
(동부심심격세진)
晩晴風物亂撩人 늦게 개인 풍물이 사람 어지럽히네
(만청풍물난요인)
鶺蜨蝶蛺花頰美 꾀꼬리 나비 좇자 꽃 얼굴이 아름답고
(앵초접협화안미)
燕掠蜻蜓水面頡 제비 잠자리 채자 물 낯이 찡그린다
(연략청정수면빈)
定裏閒心詩久廢 선정으로 마음 돌려 시 짓기 잊었다가
(정리관심시구폐)
興中揮筆句還新 흥겨워 붓 드니 글귀 오히려 새로워
(흥중휘필구환신)
奇觀最好春歸後 좋은 구경거리란 봄 지난 뒤가 가장 좋아서
(기관최호춘귀후)
岳色溪光富四隣 산 색깔 시내 빛이 온갖 이웃 살지운다
(악색계광부사린)

무경대사의 시이다. 백운암(白雲庵)에서 지은 시이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시흥을 멈추지 못하는 시인의 고백이다. 첫련의 기흥부터 착의의 시상이 재미있다. 깊은 골이니 세속의 먼지가 막혀 있어 사람의 삶에 시끄러움이 없어야 하건만, 여기서는 오히려 자연 풍물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저녁나절의 개인 날씨가 사람들을 유인하여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즐거운 괴로움, 이것이 바로 속세의 삶과 다른 것이다.

승련에서의 수사는 일상을 초탈한다. 꾀꼬리에게 쫓기는 나비는 꽃잎이 되어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나비가 꽃잎으로 변했다. 꾀꼬리에 몰려 있는 나비를 연상해 보라. 그 아름다움이 상상된다. 수면 가까이 앉아 있는 잠자리를 채는 제비, 그 순간 살랑이는 물무늬, 이를 물낯이 찡그린다 하였다. 꾀꼬리에 쫓기는 나비는 꽃잎이 되어 아름답고, 잠자리를 낚아채는 제비, 그 날렵한 자세에 수면은 찡그린다. 물찬 제비란 말이 있지만 이는 제비의 날쌤을 말하는 것이지 수면으로서야 귀찮은 일이다.

스님으로서 참선에 몰두하다 보면 이러한 사물을 살필 기회도 잃었기에 시를 짓는다는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흥에 이기지 못해 붓끝이 절로 춤을 추니 그 시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사물의 실상을 혜안적 투시력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자재로운 진실로 재구성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기에 이러한 시어들에서 느끼는 신선한 정감이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시인이나 스님으로서야 가난이 어쩌면 속성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경관은 오히려 온 주변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 이 풍요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이증찬 〈동국대 교수〉

패션에 나투신 지장보살님

이기향교수 미술의상초대전서 선보여



◇지장보살 패션 드레스.

IMF로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중생들의 가여운 하소연을 들어서일까, 지장보살님이 패션으로 되살아났다.

불화의 이미지를 패션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직물학)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복식학술회의 미술의상초대전에 지장보살과 연꽃을 이미지화한 드레스 '그 한몸으로 끝없이 나투시니'를 선보인다.

검정 견노방으로 만들어진 이번 드레스의 가슴쪽에는 지장보살님이 단청문양을 배경으로 자비로운 미소로 현현하고, 치마는 파도문양위에 연꽃과 연밥이 그림과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고려불화를 보는듯 화려하면서도 일견 은은한 품위가 느껴지는 이기향교수의 지장보살 드레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복식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국제복식학술회의에서 한국 고유성을 살린 이색 미술의상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한국전시실 '개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유럽 최대규모의 한국전시실이 최근 개관됐다.

외교통상부는 5일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1천3백21점 중 3백여점을 전시하는 한국실을 마련, 성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시실에는 15~17세기 불상, 고려시대 청동유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도자기 1백여점, 19세기 풍속화, 전통한옥, 한복 등 다양한 유물이 선보이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20세기 초 한국에 머물렀던 오이센과 야콥슨씨 등 덴마크 인사들이 기증한 것이다.

사자승관음보살상 '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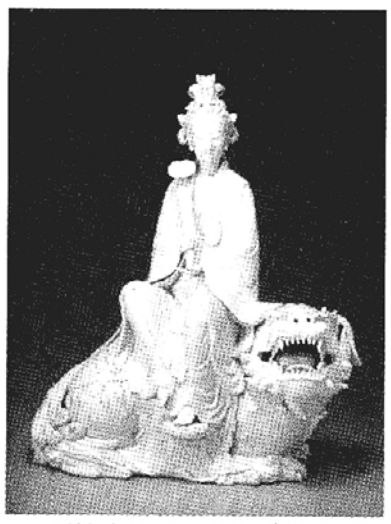
심수관家 도예전 8월 10일까지 일민미술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되는 '4백년만의 귀환-일본속에 꽃피운 심수관가 도예전'이 8월 10일까지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심수관가는 1598년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도공의 후예로 일본에서 4백년동안 우리의 성과 조선도공의 예술혼을 이어오면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예의 명가.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대 심당길부터 14대 심수관에 이르기까지 4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도예작품 140점이 선보인다.

이중 8대 심당원이 만든 '사자승관세음보살좌상'은 온기가 느껴지는 상아색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표정과 유머러스한 사자의 얼굴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이경숙 기자



◇심수관가 도예전에 나온 '사자승관세음보살좌상'(43㎝×37㎝).

초조대반야경 '세상밖으로'

개인소장본 1046년 묵서 두루마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이번에 공개된 〈초조본 대반야경〉 권 568의 앞부분. 〈국제신문 제공〉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권 568이 원형 그대로인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됐다.

고문서연구가 손창규(53·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씨가 7일 공개한 〈대반야경〉은 두루마리 판본으로 길이 11.5m, 너비 25.2cm의 크기, 두루마리를 이어간 낱장은 모두 23장이며, 글자는 획끝이 살아있고, 낱장 연결상태가 양호해 관각하자마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반야경〉 끝에는 김해부(金海府) 호장(호족)으로 예원사(종추원 종2품) 벼슬을 지냈던 허진(許珍)이 중희(重熙)15년(1046)에 임금과 모친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묵서가 필사돼 있어 최소한 1046년 이전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반야경〉을 감정한 부산교육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학과)는 "이번에 공개된 초조대장경 두루마리는 보존상태가 지극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첫장이 24행14자, 다음장이 25행14자이며 각기(刻記·경판을 새긴 연대)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국보로 지정된 초조대장경과 비교해 조금도 다름이 없다"며 "초조대장경 진품판본이 확실한 국보급 문화재"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諶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킨 유마의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거사의 법이다.

신국판 240쪽/값 6,500원



신간!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東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언제나 행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되라.
관세음보살과 그대가
하나가 되라.

신국판 180쪽/값 5,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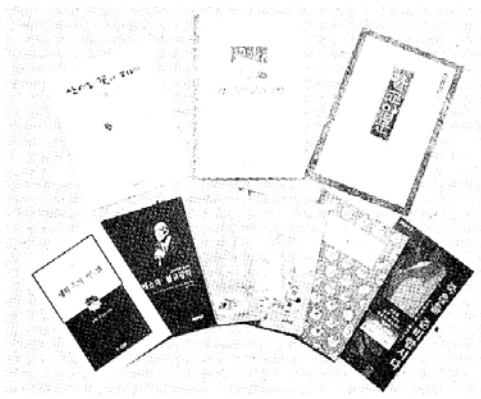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보시 쪽물입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산에는 꽃이 피네' '생활속의 불법수행' '불교입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잘 나가는 불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불서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알찬 내용으로 독자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산에는 꽃이 피네〉〈생활 속의 불법수행〉〈생활 속의 기도법〉〈불교입문〉〈보르헤스의 불교강의〉〈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이들 책의 공통점은 초판도 채 소화하기 힘든 출판계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쇄(刷)를 거듭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책들이 독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알찬 내용으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또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데다 문고판 형식으로 읽기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자의 지명도도 무시 못할 원인으로 꼽힌다. 불서의 경우 1만부정도 나가는 책이 1년 출판량 2백여종 중 4~5종 정도 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책들은 일반출판시장에서의 베스트셀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알찬내용 "불황없다"

법정스님의 말씀을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刊)는 알찬 내용을 토대로 법정스님과 류시화 시인의 황금콤비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최근 몇년간 나온 불서중 최고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거칠고 폐쇄적인 현대인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ㅇ 책은 나온지 5주만에 5쇄 10만부가 나왔으며 교보, 을지 등 주요 대형서점에서 3주째 베스트 1위를 달리고 있다

〈불교입문〉(조계종출판부 刊)과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신행상담서 〈생활 속의 불법수행〉(여시아문 刊)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감으로써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불교입문〉은 96년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10쇄 5만부를 찍어낼 정도로 초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은 올해 2월 출간됐음에도 벌써 4쇄 2만부를 소화했을 정도로 신행생활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도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 적절한 예로 이해를 도운 〈생활 속의 기도법〉(효림 刊) 역시 96년 이후 9쇄 5만5천부가 나왔을 정도로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라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민족사 刊)와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여시아문 刊)는 탄탄한 내용을 토대로 문고판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경우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부처님 말씀을 모아 놓은 〈…부처님 말씀 3백가지〉는 97년 출간돼 현재 7쇄 2만5천부 정도가 나간 상태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이상 여시아문 刊), 〈죽음을 준비합시다〉(연지문 刊),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시리즈(민족사) 등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내용과 가격 모두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출판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불서 총판업체인 운주사의 김시열 과장은 "좋은 내용을 현대감각에 맞게 구성해냄으로써 교훈을 주면서도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들의 강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이런 인기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문고판 꾸준한 인기

"가면쓴 삶 詩로 반성"

김광규 시집 '가진것 하나도…'



'저녁 예불 종소리에/오늘이 저문다/가족과 함께 사는 세상/비좁은 집을 떠나/머리 깍고/깊은 산속/큰 집으로 들어와/속절없이 하루 또 하루/살아가려던 것은 아니었는데'〈'여섯시'〉

어느 갑자의 번뇌인가, 아니면 승가의 현실을 꼬집음인가. 김광규 시인(한양대 독문과 교수)의 일곱번째 시집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문학과 지성사 刊)은 제도적인 것들의 허위를 향한 반성문이다. 허위를 비판하고 그 허위에 물든 자기를 반성하며 진실의 회복을 꿈꾼다. 제도적인 것들로부터의 자유는 자연과 자신이 신앙하는 불교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젠 불교마저도 그 자유를 주지 못하는 현실이 돼 버렸다.

시 '번데기'에서 날로 타락해 가는 불교신도들의 신앙행태를 꼬집었는가 하면, '바깥 절'에서는 고즈넉한 풍경을 잃고 '현대화'라는 미명 속에 내몰린 사찰의 모습을 안타까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운명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아구래도 나무를 깎아 만든 것 같지 않고/애초부터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만 같아/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내 마음 한 구석에 조그만 나무/부처가 들어와 앉았네'

시 '나무로 만든 부처'에서 시인은 자신이 부처님과 늘 함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제도화된 현실을 초월하기 보다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일상의 삶 자체가 안고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한 비판 역시 이런 이성적 담담함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담담함 속에 숨어 있는 깊고 예리한 성찰. 김광규 시인의 시가 강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명우 기자

새로나온 책

꿈에서 깨어나… 해공스님 지음

불법에서 찾은 삶의 지혜와 용기



살아간다는 것 보다 차라리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세상. 위기에 처한 사회와 가정을 구하기 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 〈꿈에서 깨어나 눈 뜬 삶을 살자〉는 부처님 법 속에 이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갖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법문집이지만 산문처럼 읽기 편하다.

저자 해공스님(영천 충효사 주지)은 세상을 바꾸는 지혜나 행복을 일구는 방법은 더불어 사는 공덕을 쌓고 피안을 향해 끝없이 정진해야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IMF도 다시 복을 쌓는 준비기로 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항문학사, 7천원〉

화제의 책

허무의 기록 함성호 지음

불교의 땅 티벳 여행서 얻은 지혜



"성스러우면서도 메마른 땅, 끝없는 허무에의 길. 폐허같은 그곳에 바람이 분다. 바람은 티벳의 생명이다. 여기에서 나는 내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불교의 땅 티벳엔 나를 잃게 하는 묘한 마력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건축가이자 시인인 함성호씨의 티벳 기행 산문집 〈허무의 기록〉은 티벳의 황량한 벌판을 바람과 함께 떠돌며 스스로 발견한 고독 속으로 떠나보길 권유한다. "떠돌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헤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티벳 수도라사의 포달라궁 등 불교유적에 대한 전문가적인 묘사가 현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문학동네, 6천5백원〉









▲심공=구인회 거사가 펴낸 이 책은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통해 심공(心空)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심공을 통해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공이란 몸의 모든 현상들이 공(空)에 바탕을 두고 존재한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 우주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어떠한 것도 존재치 않는 상태,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심공의 원리다. 저자는 "마음을 비울 때 깨달음을 얻듯이 몸도 비울 때 완벽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송, 5천원〉

▲삶은 모든 것을 버리라 한다=욕망과 정감 등 인간성에 대한 따스한 이해가 바탕이 된 진솔한 인도대중 시선집. 현재 인도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 박사과정에 있는 재연스님이 엮었다. 이 잠언 시집은 정확히 말하면 속담. 경구, 중자시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산스크리트 문학의 한 장르인 '수바시따'(명언, 명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부, 사랑, 해탈의 네 가지 큰 주제로 정리된 본문의 생기넘치는 걸작 시편들은 우리 자신과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거리문학제, 5천5백원〉

▲최면과 전생퇴행=전생퇴행요법이 마침내 심리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동아대 교육학과 설기문 교수(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 이사)는 이 책에서 지난 1년간 수백 명의 내담자들을 상담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면 및 전생요법의 이론적 배경과 치료효과, 일반인을 위한 실천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전생퇴행에 성공한 사례 10가지를 골라 소개했다. 〈정신세계사, 8천원〉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명을 받고, 혹은 개인적으로 산천을 깊이 음미하고 싶은 뜻에서 백두산을오르면서 느낀 감회와 노정을 기록한 백두산 등정기. 1712년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백두산을 등정한 우리측 대표 박권의 '북정일기'와 통역으로 수행한 김지남의 '북정록' 등 7편의 답사기가 실려있다. 〈혜안, 1만원〉

염송이야기

한정섭법사 지음



무진장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선문염송(禪門拈頌)〉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함께 불도수행자의 마지막 점검서로, 선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노래하고 시짓고 묻고 답변한 것들을 골자만 뽑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선문염송〉은 고려때 혜심스님이 30권으로 편집한 것을 다시 거기에 각운스님이 설화 30권을 붙여 총 60권으로 만들어 놓은 방대한 선서(禪書)이다. 과거 7불로부터 파자고목(婆子枯木)에 이르기까지 1463칙의 화두가 나오고 있으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1천7백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속칭 1700공안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한글도 아닌 순 한문으로된 60권의 염송을 눈여겨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선문은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특별한 풀이가 없이는 그 본회(本懷)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1700공안 초심자도 이해쉽도록



이 염송집은 최근 설봉스님에 의하여 현토가 달아지고 김기추 거사께서 해설서를 썼으나 6.7권에 그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금번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법사가 4년의 각고 끝에 10만자가 넘는 원문에 음을 달고 현토한 뒤 간단히 번역하고 주해까지 써놓은 〈염송이야기〉를 펴내 초심행자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모두 이해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우리 불교계에 큰 덕본(德本)이 아닐 수 없으니 널리 읽히길 바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불교입문	조계종권교부	조계종출판사
3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흥 근	여시아문
4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6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7	성자의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연구회	반출판사
9	스님의 맨발	한 승 원	문학동네
10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예흥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책방 여시아문 금강산 책 특화코너

북한 금강산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해 책방 여시아문이 이와 관련한 책들을 모은 특화코너를 개설했다.

특화 코너에 마련된 금강산 관련 책들은 〈금강산〉(호영 刊) 〈북한의 사찰〉(한국불교연구원 刊) 〈북한 불교 답사기〉(민족사 刊) 〈북한 사찰 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 刊) 〈금강산도〉(일지사 刊) 등 모두 10여종.

이중 〈금강산〉은 화보집으로 금강산의 절경과 함께 금강산내 사찰과 불교유물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북한 불교 답사기〉는 건봉사, 심곡사 등 북한내 사찰 40여곳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 사찰 연구〉 역시 북한내 주요사찰들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사찰〉은 묘향산 보현사 8각13층석탑과 불일사 5층 석탑 등 불교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02)737-0695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쪽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智와 行 갖출때 경제난 극복"

한국의 위기 불교적 해결 제시 논문 2편



◇박경준교수



◇한종만교수

박경준교수 "정신적-물질적 충족 균형 필요"

한종만교수 "정법념처경의 치국관 지켜야"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문화적 혼란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가 최근 한국철학회에서 펴낸 논문집 〈문화의 진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문화의 진보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발표한 것을 비롯, 오는 8월 출간 예정인 〈한국불교사상의 전기〉(민족사)에 게재된 한종만 교수(원광대 동양종교학과)의 '불교의 경세사상'은 불교사상에 나타난 '경세론(經世論)'을 조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실천속에서 현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문화의 진보에 대한 불교의 관점'에서 박경준 교수는 불교의 경제관을 '정신적 충족도와 물질적 충족도의 균형'으로 설명하고, 현 경제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박교수는 "필요 이상의 물질적 충족은 오히려 정신 상태를 해이하게 만들어 결국 정신적 충족도를 감소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극단적인 고행주의의 삶을 금하고, '먼저 기술을 익히고 난 후에 재물을 구하라'고 가르치며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박교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도 극단에 치우친 소비와 정경유착 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삼의일발(三衣一鉢)로 철저한 검약생활을 지킨 출가정신 실천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문화의 개념에 대해 "불안함, 불편함 등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라면 '고(苦)의 자각을 통한 고의 극복'을 근본 내용으로 하는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문화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박교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란은 외적 물질적 고통보다는 내적·심적 고통의 극복을 통해 가능하다"며 수행을 통한 마음의 다스림이 요즘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불교의 경세사상'에서 한종만 교수는 "불교의 경세사상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철저한 도덕성과 현명한 능력으로 참다운 의미에서의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수는 "일반적으로 불교는 세간(世間) 생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불교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출가주의로 인식, 불교가 현실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 나온 경세사상을 우리의 정치가, 경제인들이 명심했다면 경제 위기란 애초부터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법념처경〉에서는 '치국(治國)의 도(道)'에 대해 외적으로는 △법의 준수와 비리척결 △인격을 갖춘 성인(聖人)의 가르침에 따른 정치, 내적으로는 △지(智)와 행(行)의 겸비 등 정법(正法)의 근행(勤行)을 통해 다스릴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치국의 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준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교수는 "경전에서 보여지는 불교의 경세사상은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인과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空과 세속윤리 갈등없다"

대장경硏 '공과 연기 현대적 조명' 세미나

모든 것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공(空)의 교설은 세속적 윤리와 무관한 것일까.

"오히려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윤리가 가능하다"며 "공과 세속적 윤리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동국대 학술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3차 세미나에서 김성철씨(중앙승가대 강사)는 '공과 윤리'를 통해 "교리적으로 공사상의 이제설(二諦說)에서 엄연히 세속적 윤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자타(自他)가 불이(不二)하기에 우리는 이타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속적 윤리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일체가 공(空)하여 선악(善惡)이 없다면 선을 행할 것도 없고, 세속이 곧 열반이라면 수행도 필요없으니 막행막식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중론(中論)〉이나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의 논서는 공에 대한 이런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즉 이제설은 출세간적 진리를 가리키는 진제(眞諦)와 세간적 진리를 일컫는 속제(俗諦)로, 피상적인 공의 교설은 진제적 교설에 속하고 윤리는 속제적 규범에 속한다. 김씨는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부정하는 듯한 공의 교리이지만 세속적 윤리는 이제설을 통해 철저하게 긍정된다"며 "진정한 윤리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관념 없는 무애심(無碍心)에 입각한 육바라밀의 윤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문화는 공성(空性)에 대한 반역인가?-문화철학으로서의 공철학의 의미와 한계-'에서 박병기 교수(전주교대 윤리교육과)는 "공철학은 그 자체로 문화철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 가능성을 지녔다"며 "공철학 자체가 현대 문명비판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철학은 20세기 초 정착된 개념으로, '문화'의 개념 정의와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에 의해 역설된 새로운 철학분야.

이어 박교수는 공철학이 새로운 문화철학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기능을 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방적 논의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구성 될 것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자체논리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낙태반대는 현실적 보살행"

동국대서 박사학위 받은 테데스코 교수



"불교와 낙태에 관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낙태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교사상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낙태문제 연구'로 오는 8월 동국대에서 98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프랭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 영문과).

테데스코 교수는 "낙태분야의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료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 불교가 보살행의 실천으로써 낙태반대운동과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 제도적인 참여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싶다"고 밝혔다.

논문을 쓰기위해 낙태아 천도재를 봉행해 온 스님들과 동참자들과의 면담도 시도했다는 테데스코 교수는 "한국불교는 뛰어난 생명윤리를 갖고 있지만 천도의식 외에는 낙태문제에 관한 관심은 없다"며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뒤로한 채 전통적 수행법과 경전공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시아 성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테데스코 교수의 낙태문제에 관한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 연구가 불교의 생명관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의 생명윤리 분야 연구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또 유구한 한국불교의 집적된 지혜가 21세기의 도덕적, 사회적 양심을 일깨워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泰 경제위기 극복기금 스님도 180만 달러 모금

태국의 한 스님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1백80여만 달러를 태국의 중앙은행에 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방콕에서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프라 마하 부아 야나삼파노스님이 4월12일부터 '태국 경제위기 극복 기금' 모금을 전개해 지금까지 모은 금 182.2kg과 1천2백여바트(태국 통화) 등 미화(美貨) 1백8십여만 달러의 기금을 모은 것.

태국의 경제위기타계위원회 코로넬 설드삭 차이야시트씨는 "이렇게 많은 모금액이 중앙은행에 기부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앙은행은 이 기금을 마련한 수천여명의 불자들의 보시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태국의 현역 군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지만 금 150kg만을 모으는데 그쳤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7월2일 태국의 통화인 바트가 평가절하되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외채가 이미 172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거주 동남아 불자들 매년 7월4일 '불교축제'

태국·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등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계 불교신자 2천여명이 미국 독립 기념일인 4일 美 워싱톤 케틀렛가(街)에 있는 라오부다뽕사원에 모여 불교축제를 개최했다고 워싱톤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라오부다뽕 사원의 신도 앨리사 니그엔은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법회도 보고, 수행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에 보트를 타고 라오스를 탈출했다.

이 축제는 아찬 찬다폰스님(라오부다뽕사원 주지)의 법어로 시작해 각국의 전통무용, 불교 공예품 전시, 각국 불교의 수행법과 교리 강좌 등으로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여성협회

1959년 4월12일 중국이 티벳을 강점한데 항거하기 위해 라사에 모인 수천명의 티벳 여성들 중에서 인도 등 해외 각지로 망명한 티벳의 여성들이 모여 결성한 티벳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회원 대부분은 당시 라사의 포탈라궁 인근 지역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하다가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그뒤 그들은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과 함께 인도 달람살라의 맥레오드 간쥐 지역에서 1984년 협회를 조직했다.

티벳여성협회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티벳과 망명중에 있는 티벳 여성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한 획득 △교육·문학·출판을 통한 티벳의 문화·언어 전통의 보존 △빈곤한 티벳 가족·결손가정 어린이·비구니스님·장애인·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가족계획을 위해 티벳 여성들에게 산모와 육아 정보 제공 △티벳의 정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으로부터 박해받는 티벳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티벳 교육 현황-대안 교육 중심으로' '생태학과 인간의 교육' '1997년 중국 인권 보고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윤리적 접근'도 읽을 수 있다.

티벳망명정부 산하 기구로도 잘 알려진 티벳여성협회는 1990년 달람살라에서 첫 국제총회를 개최하고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탈바꿈해 나아갔다. 현재 네팔 등 36개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 망명지에서 자생한 7개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강점 39년째를 맞아 달라이 라마는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담성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티벳의 독립을 바라는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찬양했다.

여권회복 운동 '적극' 티벳 상황 해외 홍보 망명자 구호도 앞장

그동안 티벳여성협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 망명지에서의 티벳인들의 독립의 꿈을 실현하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를 제공해 왔다. 또 티벳 비구니 스님들에게 일시로 거처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해, 망명지에서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1987년 티벳여성협회에서는 티벳 종교와 문화 사업과 관련해 '티벳비구니 프로젝트(The Tibetan Nuns Project)'라는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 사업은 티벳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 종교와 문화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 수행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현재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는 해외 망명지에서 티벳 비구니스님 5백여명에게 수행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www.tibet.com/women/twa.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원·에·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짜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엷고 먼 길을 흐르며 엮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무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아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호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립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93-5681

한형조 무문관 탐방 58

세존의 채찍 ③

"오온 통괄하는 주체는 없다"

모든 현상은 세계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

"내 발에 무좀이 있다"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다.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도 근본적 사실, 즉 다르마(法)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르마에는 '발'도 없고, '무좀'도 없고, '있다'도 없고, 더구나 '나'는 없다. 그럼 무엇이 있는가.

오온(五蘊)만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가리킨다. 오온은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사실로서의 다르마를 대표한다. 아비다르마는 이들을 통해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을 창안했다. 이에 따르면 앞의 사실-경험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물질(色): 여기 있는 이것은 형체, 즉 '물질'로서의 발이다.

2) 느낌(受): 가렵고 스멀거리는 '느낌'이 있다.

3) 지각(想): 무좀 있는 발을 보고 만지는, 또 괴로움을 아는 '지각'이 있다.

4) 의지(行): 무좀은 '의지적 반응'을 수반한다. 고통에 대한 불만과 조바심, 그리고 치유에 대한 바람 등.

5) 의식(識): 이 모든 과정을 자각하는 '의식'이 있다.



그림 · 문병성

아비다르마는 모든 사실과 경험을 이 틀에 의해 해체하고 정돈했다. 궁극적 사실로서의 다르마들을 정립하고, 그 다르마들 사이의 관계를 분류 결합하여 목록을 작성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아비다르마논서들에는 별다른 문학적 향취나 수사를 찾을 수 없다. 흡사 회계보고서나 물리학의 공식을 보는 듯이 지극히 건조하고 딱딱하다.

대체 어째서 이런 재미없는(?) 작업을 그토록 힘들여 하고 있는가. 그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세계를 자아화하는 인간의 뿌리깊은 습성을 치유하고 뿌리뽑자는 것! 아비다르마는 '무아(無我)'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적 훈련이다. 앞의 분석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어느새 '나'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무좀'과 그로 인한 '고통'의 느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열망'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오온(五蘊)은 말 그대로 '다섯 무더기'를 가리킨다. 그것은 흡사 장작 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 이들을 통괄하는 주체, 혹은 중심은 없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은 다르마들일 뿐, 이를 통괄하는 자아 혹은 인격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나가세나가 그래서 말했다. "왕이시여, 수레의 자성(自性)은 어디 있습니까. 굴대입니까. 바퀴입니까. 수레란 흩어진 재료들이 모인 것(聲)일 뿐, 그 통합적 실체는 없습니다."

아비다르마는 말한다. 모든 현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무시이래의 무명(無明)의 오랜 습성때문에 이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이 동일시(identification)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무지(無明)을 타파하기 위해 아비다르마는 지리하고 힘든 고육(苦肉)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비다르마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심리학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도 마음먹고 이 체계에 따라 명상해 나간다면 자아의 점착성을 떨치고 고요와 평화에 이르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불교사적으로 보아도 이 '해체적' 분석의 의미는 심대하다. 다르마 분석은 초기불교의 주춧돌이었다. 상좌부(上座部)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이 '다르마의 체계적 분석과 그 조직적 명상'을 의미했다!

대승은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성립을 기약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한다. 사찰에서 늘 독송되는 대승경전의 심장인 '반야심경'을 기억할 것이다.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 깊은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를 행하실제,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셨다. 사리자(舍利子)여, 색(色)은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空)은 색(色)과 다르지 않다. 색(色)은 공(空)이고 공(空) 또한 색(色)이다."

우선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주인공부터 소승의 '아라한'에서 대승의 이상형인 '보살'로 바뀌었다. 그 보살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승이 오온을 궁극적 실재(다르마)로 규정하는 아비다르마에 대한 교리적 혁신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사리불이 교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리불(Sariputra 舍利佛)이 누군가. 바로 그 다르마의 조직적 분석과 명상을 지혜로 삼고 초기불교를 체계화한 사람이 아니던가. 대승은 사리불을 앞에 끊어앉힘으로써 소승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중적 효과를 노렸다.

이런 구성의 의미와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반야심경'의 소식을 그 충분한 깊이와 넓이에서 읽을 수 없게 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수행은 겉치레 아닌 노력"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8



정정진은 정명, 정어 등 앞서 설명한 불교의 실천 수행종목들보다 내적인 명상수행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의 유명한 수행자였던 라마나 마하리시(Ramana Maharshi)는 "깨달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다. 오직 합당한 노력만이 성공적인 수행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파이의 재료를 구입하러 슈퍼마켓에 갔다. 그는 한 손에는 파이요리의 재료 목록을 쓴 메모장을 쥐었고 다른 손으로는 구입한 재료를 안았다. 그가 슈퍼마켓을 나섰을 때 그는 파이 재료들을 한아름 안고서 뒤뚱거리며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때 세차게 부는 바람에 그는 메모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 파이재료들이 땅으로 쏟아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간의 평범한 생각을 뒤집어 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선사의 어록이 적힌 책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라사에서 수행했던 달라이 라마, 수 마일을 걸어서 히말라야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수행과 히말라야를 걸었던 구도자들의 노력과 우리가 매일 법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는 노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수행은 보이는 겉치레가 아니며 바로 노력 그 자체이다.

정정진①

"주변 현실을 바로보자
사소한 곳에서 불법을 보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수행 중심에는 당연히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노력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선 두가지는 '버림'과 '유지'이다. 이것들은 수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버림'이란 우리가 세간에서 알게되는 집착과 미움 · 분노 등의 감정들을 버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담배를 끊기 위해 수십 수백번을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두가지는 '계발'과 '기르기'이다. 이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을 사랑하고 유정물로서의 습관과 집착을 없애고 세간의 쓰레기에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선사에게 "가르침의 본질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좋아, 모든 가르침을 너에게 주겠다"며 선사는 땅위에 '주목'이라고 썼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선사는 '주목, 주목'이라고 썼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선사는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며 "주목하는 것만이 우리의 주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너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진은 세상을 벌천지로 만드는 노력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몸 · 마음 · 삶에서 본성을 찾고 보는 것이다. 바로 사소한 곳에서 불법을 보는 것이다.

왓빠뽕 사원의 초창기에는 전기가 없었고 큰 법당이나 식당도 없었다. 이때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절집에서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맡게 된다. 막사와 목욕실을 치우는 일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법당을 청결하게 거두고 나이 많은 비구의 발우를 씻어주고 막사와 목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간단한 일도 중요하다. 우리 몸을 비롯해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보되 역시 깨끗하게 간수해야 한다. 이것들은 하잘것 없거나 천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성들여 해야할 일로 알아야 한다. 하나하나의 일들을 전심전력 마음챙겨 이행하는 것은 모두가 수행의 표현이고 법의 표현이다."

바른노력 즉 정정진은 우리 주변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하고 세간에 주어진 법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7

불교와 수학 62 집단

김 용 운

들소나 새떼 질서있는 행동은 진화된 종족 보존의 지혜 복잡한 인간사회 '불심' 계발해야

필자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가장 좋아한다. 미국의 대평원을 질주하는 들소, 또는 아프리카 대륙의 초원을 전속력으로 이동하는 막대한 들짐승의 무리. 이들에게는 인간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질서있는 행동이 보인다. 이런 집단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만물의 영장이라 뽐내는 인간이 오히려 서툴 때가 많다. 가끔 운동경기장이나 명절때 기차역에서 표를 구하려는 군중이 일시에 모일 때가 있다. 그런 경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서로 짓밟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집단으로 밀집이동하는 들짐승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서로 부딪치고 짓밟는 일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짐승떼의 이와같은 신기한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 동물종사회의 원형에 내재되어 있다. 생물학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진화로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종(種)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이 과정, 다시 말해서 학습 · 적응 · 진화를 못하는 종은 전멸한다. 신비스럽기조차 한 그들의 사회적 행동 속에 불심을 엿본다. 집단은 단순한 개(個)의 모임이 아니라 항상 그들 종을 유지보존하는 지혜가 자기조직화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무리는 이미 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복잡성의 과학은 집단적 행동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어느 과학자는 까마귀떼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들 무리가 나는 모양은 수시로 방향을 바꾸면서 모였다가 갑자기 흩어지는 등의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이 행동함으로써 종의 유지보존이 가능하다. 새들의 저마다의 행동은 간단하며 다음 세가지로 분석되었다.

(1) 옆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새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 간다.

(2) 많은 무리가 있는 쪽으로 날아간다.

(3) 가까운 곳에 다른 새나 또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들과 떨어져서 날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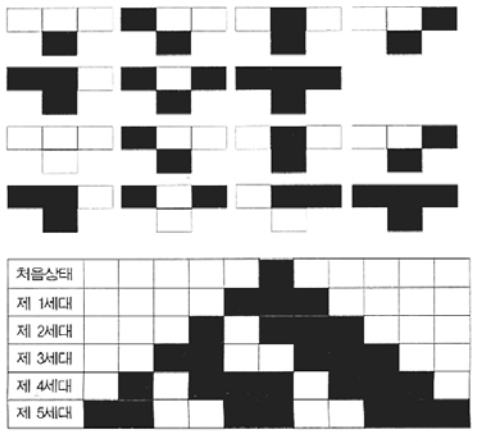
이것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라이프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카오스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사실은 곧 질주하는 물소떼 날갯짓의 행동도 거의 이 정도로 간단히 분석되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1〉세포 하나의 상태는 흑, 백이며 현속되는 3개의 세포의 상태가 다음 세포의 상태를 결정한다. 3개의 세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흑, 백 2개이므로 2의 3제곱(2^3)인 8개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흑, 백 2개임으로 가능성은 2^8= 256가지이다.

지금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그림2〉

이 규칙은 곧 세포사회의 원형이다. 만일 어떤 경우에도 '흑' 또는 '백'으로 정하면 몇 세대가 되어도 전부 흑, 또는 백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경직, 또는 무질서한 사회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사회가 재미있게 변해가기 위해서는 변화 규칙(원형)이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사회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 발하는 것은 중생의 불심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처음상태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제 4세대
제 5세대

〈그림1〉 처음 상태가 가운데에 하나만 검을 때는 제 1세대에서는 가운데의 3개만 검게 된다.

〈그림2〉 3세대, 4세대로 전개되면서 고유 모양이 나타난다. 위의 표는 (1) 초기상태의 미묘한 차이가 그 후의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초기 조건의 민감한 반응) (2)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되풀이) (3)일단 전세대가 결정된 후에는 그것이 다음 세대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피드백)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병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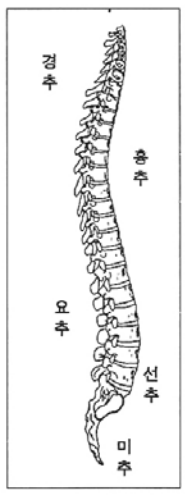
※ 현 금 가 : ₩ 130,000

보급처: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의료선교사 · 물리치료사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02)859-4156, 011)522-1122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상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시방세계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영탑공원 전경. '일체 만법이 한마음에 들고 난다'는 뜻에 따라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한마음에 귀일(歸一)케 하여 조상과 자손 모두 한마음 안에서 평안케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불교계 영탑·납골당 현황

시설자	시설종류	운영현황	연락처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446)877-500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59)746-8163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영탑공원	분양중	(064)21-4662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영탑공원	추진중	(0551)42-6638
예산 수덕사	탑림공원	추진중	(0458)37-6565
장성 백양사	영탑공원·납골당	납골당 준공	(0685)92-7502
서울 삼보사	영탑공원	분양중	(02)352-6406
시흥 영각사	납골 영묘전	11월 준공	(0345)496-7700
태고종공제회 월성사	영탑·납골묘	분양중	(02)739-4641
동국대	영탑공원	99년 착공	(02)260-3114
순천 선암사	납골당	추진중	(0661)54-5247
영천 만불사	부도탑묘	분양중	(0563)35-0101
석왕사 왕생극락전	장례예식장·납골당	운영중	(032)6673-404
보현원 양평공원	납골묘원	99년 6월 준공	(02)738-4555
음성 고심사	영탑공원	분양중	(02)701-6456
고양 장안사	납골당	공사중	(0344)965-4222
상락원 영묘전	납골당	분양중	(0348)941-3416
조동종 천지종사	영탑공원	공사중	(032)933-8820
연천 오봉정사	납골당	11월 준공	(0356)34-2140
가평 도솔천사	납골당	추진중	(0356)82-6189
포천 다보정사	영탑공원	분양 예정	(02)540-7601
태고종 보륜정사	납골당	추진중	(02)909-2550
밀양 부은사	납골당	분양중	(0527)356-0770
밀양 천불사	납골당	분양중	(0525)33-0408



◇11월 완공 예정인 시흥 영각사 지하 '납골당' 모델.

불교장묘제 계승－매장문화 개선－환경보호

"묘지대신 납골시설에 조상모시자"

우리는 매년 명절이면 수 백리 길을 달려가 하루종일 몇 군데 성묘를 다닌다. 조상을 생각하고 공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젠 이러한 미풍양속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때다. 오랜 매장 풍습으로 인구밀도가 세계 수위인 좁은 땅에서 매년 여의도 넓이 만한 땅(약 2백50만평)이 묘지화되고 있다. 묘지값이 폭등하고 멍달아 장례비용 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계층의 호화분묘, 무연고 분묘의 증가 등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여년전부터 본격화 된 불교계의 영탑(납골탑)과 납골당, 납골묘 등 납골시설은 이런 점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영탑공원이 꼽힌다. 1986년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 한마음선원 경내에 처음으로 조성한 국내 최초의 가족 탑공원이다. 부도탑(浮屠塔)을 현대화한 이 영탑공원은 불교계 내외에서 장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혐오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가족의 소풍장소로 애용하고 있을 정도. 한 탑에 3대까지의 영가를 모실 수 있으나, 그 아랫 대(代)의 사망시 제일 윗대는 꺼내어 소(燒)하고 그 다음 대부터 다시 3대까지 모시는 방법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4만여평의 대지에 8백여기의 영탑이 조성된 금왕지원을 비롯 한마음선원 진주·제주 지원에도 각각 1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서고 있으며 마산지원도 영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성공사례는 불교계에 영탑공원 조성 붐을 일으키고 있다. 1만여평의 공원부지에 1천기의 부도탑을 조성중인 영천 만불사의 부도탑묘, 1백여기의 영탑이 들어선 음성 고심사 영탑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영탑공원을 조성해 온 서울 삼보사와 포천 다보정사를 비롯 조계종 교구본사인 백양사·수덕사와 태고종공제회 월성사, 동국대, 조동종 천지종사 등이 영탑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덕사의 탑림공원. 최근 수덕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탑림공원 계획은 덕산도립공원내 사찰 입구에 나무들과 조화를 이룬 50여종의 크고 작은 다양한 부도탑과 지장보살상(약 20m 높이)을 건설(청약자가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선택), 탑공원을 겸한 자연공원을 신설한다는 것. 수덕사의 문화유적 관람과 성지참배, 온천관광, 성묘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 일대 3만9천여평에 들어서는 이 탑림공원이 성공적으로 회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찰이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납골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탑림을 조성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법인 부도탑의 현대적인 계승"이라면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현원 양평공원의 '납골묘' 모델.

동국대와 백양사의 영탑공원은 규모면에서 관심을 끈다. 동국대는 경기도 양평에 부지 50만평을 확보하고 국내 최대의 가족 영탑공원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영탑 20여만기를 수용, 도지 4백여만 기의 대체효과를 장담하고 있다.

한편 납골당 및 납골묘원도 여러 곳에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에 있다.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는 사찰 지하터 4만2천평에 최대 2만5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11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주지 현법스님은 수년간 일본 등 선진국의 납골당을 분석, 지하에 항온 항습 냉·난방 시설을 갖춘 현대적 개념의 묘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86년 문을 연 최초의 납골당인 상락원 영묘전을 비롯 10여곳의 납골시설이 조성중이다. 1백여기 이하의 납골을 안치한 소규모 납골당도 말양 부은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매장묘가 점유중인 땅은 남한 총면적의 1%에 달하는 9백82평방㎞(95년말 현재). 분묘 한기당 평균 면적은 94년 기준으로 약 13평(42.5평방m)에 달해 국민 한 사람당 주택 면적(4.3평)의 3배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존의 묘지를 영탑공원으로 재개발할 경우 기존 묘지 면적의 10분의 1 정도면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화장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숭고하고 엄숙한 탑묘의 형태가 전통과 조형미를 갖추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교리적 의미가 가미된 전통적 부도형 조형방식이 선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매장관습 탈피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장방형분묘의 형태에 유골을 상당수 안치하는 납골묘 조성방법도 있다. 각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영탑과 납골당이 설치된다면 신행의 대물림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므로 사찰주변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전국 4곳에 영탑공원 조성
수덕사, 지자체와 연계 탑림공원 추진
시흥 영각사 지하납골당 11월경 완공



◇수덕사가 충남도와 함께 덕산도립공원내에 추진중인 '탑림공원' 조감도.

개선돼야할 장묘제 법규 — 경내지 납골시설 규제완화 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8일 종교기관의 납골시설 설치의 '신고제' 등을 담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법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 등이 장묘제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납골시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사회·공익단체가 묘지 설치의 주체(사설묘지관련 시설의 설치주체를 재단법인,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으로 한정)가 될 수 없도록 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종교시설의 경내지나 지하에 묘지나 납골당 등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매장과 화장에 대한 법적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현행 법규에 따르면 법적인 납골시설로는 납골당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납골시설(납골탑, 납골묘)은 묘지시설로 해석, 납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묘지시설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탑을 납골시설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방법도 가능).

■ 경내지의 납골당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집단 납골시설의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납골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분의 적극 도입 △납골공원의 설치·입지 기준과 일반 묘지와의 구분 △집단납골시설에 대한 사용료 최고 한도액 고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석충산업이 좁은 면적을 활용해 조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64실 규모의 단층골각영탑. 경주 원원사에 세워졌다.

특허받은 영탑

석충산업, 모델 43종 개발
좁은 공간 활용…시설비 저렴

석충산업(대표 박만석)이 좁은 면적을 활용, 다수의 분골을 안치할 수 있는 영탑을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다. 석충산업이 보급중인 영탑은 대리석을 소재로 한 전통 탑형태로 탑신에 도자기나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분골함을 끼워 넣고 밀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나의 탑에 적게는 2실에서 많게는 1백8실이나 2백12실까지 분골을 모실 수 있어 좁은 면적에 많은 납골시설을 갖추는 것이 특징. 탑의 크기에 따라 분골함의 수는 늘어날 수도 있으며 분골함의 입구를 밀봉한뒤 전면에 망자의 사진과 간단한 이력사항을 새겨 넣을 수도 있다.

95년 특허청이 실시한 우수발명품 대전에서 은상을 획득한 이 영탑시설은 좁은 면적에 많은 분골을 모실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전통탑의 형태로 제작되어 사찰을 장엄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50기이하의 영탑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탑조성을 통한 사찰의 신도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석충산업은 소규모 영탑 외에도 대규모 영탑공원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43종의 모델을 개발해 두었다. (02)652-1919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니원품(泥洹品) ①

忍爲最自守 인위최자수
泥洹佛稱上 이원불칭상
捨家不犯戒 사가불범계
息心無所害 식심무소해

인욕이 제 몸 지키는데 으뜸이고
열반은 최상이라 부처님 말씀했네
집 버리고 계율 받들어 범하지 않으면
마음 쉬어 수행에 해되는 것 없으리라

無病最利 무병최리
知足最富 지족최부
厚爲最友 후위최우
泥洹最快 니원최쾌

병 없는게 수행에 가장 이롭고
족함을 아는게 가장 넉넉하며
후덕을 가장 좋은 벗으로 삼으면
열반이 가장 쾌적한 일이다

飢爲大病 기위대병
行爲最苦 행위최고
已諦知此 이체지차
泥洹最樂 니원최락

眞人歸滅 진인귀멸

사슴들은 들을 의지하고
새들은 허공을 의지한다
모든 법은 그 보응으로 돌아가고
진인은 적멸에 귀의한다

始無如不 시무여불
始不如無 시불여무
是爲無得 시위무득
亦無有思 역무유사

시작은 시작 아니함만 못하고
시작은 시작 없음만 같지 못하다
이것이 얻을 것 없음이 되나니
또한 어떤 사량분별도 없다

心難見習可覩 심난견습가도
覺欲者乃見 각욕자내구견
無所樂爲苦際 무소락위고제
在愛欲爲增痛 재애욕위증통

마음은 보기 어려우나 익히면 볼 수 있다.
욕심을 깨달은 이는 바른 견해 갖추어
즐거워함 없음에 괴로움은 사라진다

애욕에 머물면 고통만 늘어나고 모든것 버리면 모든것을 얻는다

굶주림은 큰 병이 되고
지어함은 가장 괴로운 것이 되니
이미 이것을 분명히 알면
열반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少往善道 소왕선도
趣惡道多 취악도다
如諦知此 여체지차
泥洹最安 니원최안

바른 길 가는 이는 적고
나쁜 길 가는 이는 많다
이것을 그대로 분명히 알면
열반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從因生善 종인생선
從因墮惡 종인타악
由因泥洹 유인이원
所緣亦然 소연역연

인따라 좋은 곳에 나고
인따라 나쁜 곳에 떨어지며
인으로 말미암아 열반에도 이른다
연에 따르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麋鹿依野 미록의야
鳥依虛空 조의허공
法歸其報 법귀기보

애욕에 머물면 고통만 늘어난다

明不淸淨能御 명불청정능어
無所近爲苦際 무소근위고제
見有見聞有聞 견유견문유문
念有念識有識 염유염식유식

마음이 혼탁한 것 밝게 알면 제어할 수 있고
가까이 할 경계 없으면 괴로움 벗어난다
보니 보이는 게 있고 들으니 들리는 게 있다
생각하니 생각이 있고 의식하니 의식있다

覩無着亦無識 도무착역무식
一切捨爲得際 일체사위득제
除身想滅通行 제신상멸통행
識已盡爲苦竟 식이진위고경

보되 집착하는게 없으면 의식도 없다
모든 것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
몸·생각 잊으며 오가는 경계 여의고
식이 다하면 괴로움도 끝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편히 살고 싶으면

보성스님 〈태고종 종정〉



약력
- 1906년 함남 이원 生
- 17년 강원도 건봉사서 김보련 스님 은사로 득도
- 28년 건봉사 보안강원 대교과 졸
- 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
- 31년 박한영스님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 40년 동경 일본대학 종교과 졸
- 43년 일본대 사학과 졸
- 59년 숙명여대 문리대학장
- 61년 동국대총장
- 62년 광동학원 이사장
- 79년 태고종 제12세 종정 역임
- 94년~현재 태고종 제 15세 종정
- 現 원주 보림사에 주석

"불교가 흥하면 나라 절로 밝아지니 먼저 가정에서 가르침 실천하고 이웃에게 부처님법 전해야해요"

며칠 전에 소신(燒身)열반하신 충담스님 다비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소신공양 올린 그 자리를 보고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그렇지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生)에 욕심없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담스님은 능히 해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관뚜껑을 닫아봐야 안다고도 하고, 살아가면서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잘해야 합니다. 사실 충담스님은 일반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보람있게 보낸 것입니다. 3년여전 충담스님이 〈정토삼부경〉을 엮어 〈염불〉이라는 책을 낸다고 권두언을 부탁해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는 시(詩)로 썼는데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서세로 법공양했으니 내생에는 극락세계에 갈 것이라고 했지요. 확실히 수행하신 분이 다릅니다. 실력이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충담스님은 말없는 가운데 후세에 좋은 교훈을 몸소 남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5세면 입신(立身)한다고 합니다. 철들려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나는 80년 세상사를 입신 이후 봐 왔습니다. 내 생애만을 반추해 봐도 우리 역사는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일제때 숫한 격동의 세월을 보냈고 해방후 6.25 전쟁을 겪는 등 구비구비 굴곡이 생겼고 지금도 경제난이라는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 평탄치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 파도치는 것과 같은 것이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즐거움이든 또 수난과 고충이든 가장 많이 겪어야 했던 것이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탄만 하고 좌절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과도리를 믿고 따르는 불자들로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서 비롯됐다고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또 이때 잘해야 미래가 평안하게 돌아온다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권을 빼앗겼던 암울한 일제때도 이겨내고 극복했거든요. 다시 살려하는 민족주의 애국자들의 용기로 역사를 살게했습니다. 정치인 학생 부녀자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노력이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힘이 되어야 할 것도 바로 국민 모두의 용솟음치는 기운찬 용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비교적 긴 생을 사는동안 나는 8.15해방을 맞았던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만큼 주권없던 그 시절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1945년 당시 나는 경기상고 교사였는데 한창 전쟁중이라 학생들은 수도 없이 근로봉사에 동원됐었지요. 광복절 그날도 여느때처럼 학생들 2개반을 인솔해 문산에 있는 철도공사장에서 근로봉사를 하고있는데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즉시 연장들을 집어던지고 학생들과 함께 즉석에서 창호지에 태극기를 그려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치며 흔들어 댔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이한 해방이요 광복인데 다시 분단되고 말았으니.....

요즘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다고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향민이든 아니든 국민 모두가 갈 수 없는 상황보다는 좋은 일입니다. 또 나로서는 금강산으로 출가해 수차례 금강산 전역을 돌아보고 수행했던 이력도 있어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단순히 들떠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만 북한의 금강산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참 의미가 덜하다고 봅니다. 심하게 말하면 관광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도 설악산이 됐던 지리산이 됐던 우리와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진정한 참 교류가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북한의 우리땅을 밟아본다는 의미를 담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세태가 워낙 들뜨고 실하지 않아 그런현실의 확대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은 좀더 많이 차분해야 합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진한 삶들을 귀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계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종과가 50여종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모아지면 살고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교계는 모두 제각각 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만,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라 살펴본다면 일본은 13종 58파입니다. 종단은 종지와 종풍이 달라 어쩔 수 없이 13개로 갈라진 것이고, 58개나 되는 파(派)는 진리를 심화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세분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종단마다 종지 종풍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갈라진 종단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마치 정치가 '1인 1당'으로 우후죽순 난립하듯 한국불교 종단이 '1인 1종단' 격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고 욕심의 확장일 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약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1인자 자리를 양보 안하고 죽었고 후계자 김정일 역시 우두머리 되려고 자리를 쥐고 갖은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6호 (통권26호)



지상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③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칼라화보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⑥
복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진단 ⑤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제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평 / 음악(교성곡 용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관화전)

인터넷 불교 / 달마가 인터넷으로 간 까닭은?

불교문화의 현장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아봐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山寺古談 ② / 부처님의 손길처럼 따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
수맥 붐!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④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장 - 유회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④ / 한국의 종이 (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탐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능가산 개암사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박한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글(추사의 證白坡書)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정토경, 논, 집 / 약사여래, 지장보살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신행 : 포교(사암연합회,신행단체)
- 청년 : 학생(전국단위 청년단체 및 학생연합회)
- 교육 : 연수(학교,유치원,재가교육기관,승가교육기관,연수기관)
- 언론 : 출판(방송,신문,잡지,출판사,학술지)
- 학술 : 문화(학술, 연구,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 사회 :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보급문의 : 02-719-2607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TEL 02-719-2606 FAX 02-719-5052

큰스님 수행한담

욕심부터 덜어내세요”

권

“종지 종풍 같은 한국불교 종단들 사람만 갈라진 분열 욕심의 산물 결국 불교 약화되는 길이죠”



◇ 1962년 4월 동국대 총장 재직시 김법린 황유돈 권상노 스님 등 세 스님의 박사 학위 수여식.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대륜 당시 태고종 2세 종정, 임석진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양주동박사 · 김법린 · 황유돈 · 권상노스님, 보성스님, 前 숙대총장 김두헌박사, 김동화박사.

“내일위한 행복의 씨앗 지금 뿌리세요”

불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포교

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나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선으로 지켜야할 불교가 ‘나’를 서로 내세우다보니 나타나는 것이지요. 분명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의 사람이 든든하고 가족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계도 교세나 인물 그리고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다양화되고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불자들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접어두고 이웃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흥하면 나라가 저절로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불교 위한다는 마음과 함께 나라를 위하는 자세로 신행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의 미래는 재가불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눈을 돌려 중국불교를 보면 확연해집니다. 중국불교는 과거 총림중심의 사원불교였습니다. 공산치하가 되면서 종교가 억압받고 자연히 승단의 출가 불교는 없어졌잖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고 불교의 맥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운동으로 재가불교가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불교계에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세불교와 현대불교 상황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여성 중심이였던 것이 청년 남성층이 현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대를 걸게 하고 실제 불교계에서 역할할 계층은 이들이라고 봅니다. 각급 초 중 고교와 대학에 있는 불교동아리가 불교계 앞날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이 높고 불교 진리를 좋아해서 믿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양식을 한 톨도 먹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탄탄하게 키워지는 인물들인 것이지요. 이들 재가불교가 큰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스님들이 사회를 지도할 눈 뜬 이들이라면 결국 현실 속에서 불교를 통해 이끌어가는 것은 재가불자들입니다. 생활불교라는 것이지요.

모든 불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기 가정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이것이 이웃으로까지 퍼져나갈 때 비로소 불교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불자라면 자신의 배우자 자식 등을 포함한 가정을 교화하고 그 힘으로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는 전법의 바람직한 단계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안에서 밝아져서 밖으로 비쳐나와야 합니다.

나는 11세에 건봉사에서 동진출가했습니다. 삼보정재로 불교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국내 대학을 마치고 일본유학까지 해 불교학과 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43년도부터 62년 동국대 총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교육계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처님 덕분이지요. 그래서 나는 동대 총장을 그만 두면서 늘 마음속에 지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지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처님 은혜다. 따라서 내 재주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후진에게 그저 열심히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태고종에서 처음으로 파주 법륜사에 비구니 강원을 열고 무료로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까지 약 4년 기간을 단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여년 지내다가 서울 정릉 천중사에서 다시 비구니 강원을 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는 젊은 보살들도 강의를 듣고 싶어했지요. 당시만 해도 불교학이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이야 절마다 교양대학도 열고 특별법회도 마련하니 좀 좋습니까.

돌이켜 보면, 불교학문은 견실한 신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마치 종교가 믿음의 토대위에 형성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깊이와 넓이가 든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국대학이 대표적인 불교대학이라면, 조계종에서 하는 정규대학으로 중앙승가대학이나 우리 종단이 정규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방불교대학 등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신앙과 학문이 겸한 인재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불교학 발전은 기성 불교학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내느냐는 의지와 노력과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제자들이나 인터뷰를 할 때 내가 학자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아흔세월이 넘다보니 건강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요.

나는 늘 강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선 나 스스로도 애써 실천하려고 노력하지요. 나는 부처님 가피를 지중하게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그래서 가르칠 줄아는 재주 또 스님으로서 법을 전파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절 보림사에 온 것이 꼭 7년 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치악산 수도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전 일이지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원주로 내려오면서 책을 보지 않으려고 그동안 소장했던 9백여권의 장서를 동방불교대학에 모두 주고 왔어요.

나름대로 홀가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와서도 출가자로서 사명을 해야겠기에 인연닿는대로 일정을 잡아 정기적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또 종단에서 맡은 위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야할 회향도 있더군요. 그러다보니 또다시 결국은 이렇게 책이 50여권 책장에 쌓이게 되더군요. 요즘은 그 덕분인지 정신건강은 많이 좋아지는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장수하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가장 지독한 해악이 탐 진 치 3독심이라고 하셨듯이 3독심 가운데 욕심만 해결되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겨운 고행이 될터이니 욕심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많이 가지면 우선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건강하고자 한다면 또 오래 살고 싶으면 소욕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비추어 적어도 욕심을 내려고 허둥지둥 하지는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차분한 생활을 즐겨 소심 할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겨워합니다. 국토의 분단에다 경제적 난국이 닥쳐왔습니다. 그럴수록 욕심을 덜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용심으로 뭉쳐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정신을 계도해야 할 승단은 불화의 모습이 세상에 덜 비쳐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처리하는 덕성(德性)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나와 경전 〈61〉

대방광여래장경



강 명 희
동국대 강사

〈대방광여래장경〉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래장(如來藏 · tatahagata-garbha)을 설한 경전이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도 그 아름다움은 결코 진흙물에 물들지 않듯이 여래장은 본래 맑은 여래법신이어서 번뇌중에 있어도 번뇌에 더러워짐이 없고 본래부터 청정한 깨달음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방광여래장경〉인데 특히 이 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다 여래장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대방광여래장경〉이 담고 있는 모든 중생의 성불론은 나에게는 거의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대학시절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막은 가족들에 의해 변화하는 스스로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허망한 내 존재를 느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나의 신념이 서

“누구나 여래종자 간직하고 있다”
나와 너 서로 존중하라는 가르침

서히 무너지자 그때 ‘자신의 의지와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를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 시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원에서 불교를 전공하다가 나는 우연히 여래장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여래장 사상은 한마디로 놀라운 것이었다. 사회운동에서 내가 접했던 이데올로기나 휴머니즘을 모두 포함하는 여래장 사상의 폭넓음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중요하며,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니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래장과 관련된 경전을 본격적으로 탐독하게 되었다.

〈대방광여래장경〉은 〈부증불감경〉 〈승만경〉과 함께 ‘여래장삼부경’이라고 일컬어지며 이중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경이다. 1권으로 되어 있으며, 8세기 중엽 인도출신의 학승 불공이 번역했다. 작은 경전인 만큼 매우 간결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도 소박하다. 중심 내용은 누구나 여래의 품성과 여래종자를 모두 간직하고 있으나 그것을 계발하지 못하고 번뇌망상과 무지에 싸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뇌 속에 윤회해도 번뇌가 없어지는 순간 중생에게도 여래의 지혜와 법신이 나타난다고 설하고 있다. 특히 여래장에 대한 9가지 비유는 구경일승보성론과 불성론에 계승되어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대방광여래장경〉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①시든 꽃 가운데 있는 부처님 ②많은 벌꿀 속의 달콤한 꿀 ③겨겁데기 속의 알맹이 ④더러운 속에 있는 진금(眞金) ⑤땅 속에 있는 금은보화 ⑥종자 속에 있는 싹 ⑦더럽고 낡은 옷에 싸인 진금상 ⑧천한 여인이 화인하고 있는 전륜왕 ⑨장막 속에 있는 금상 등의 9가지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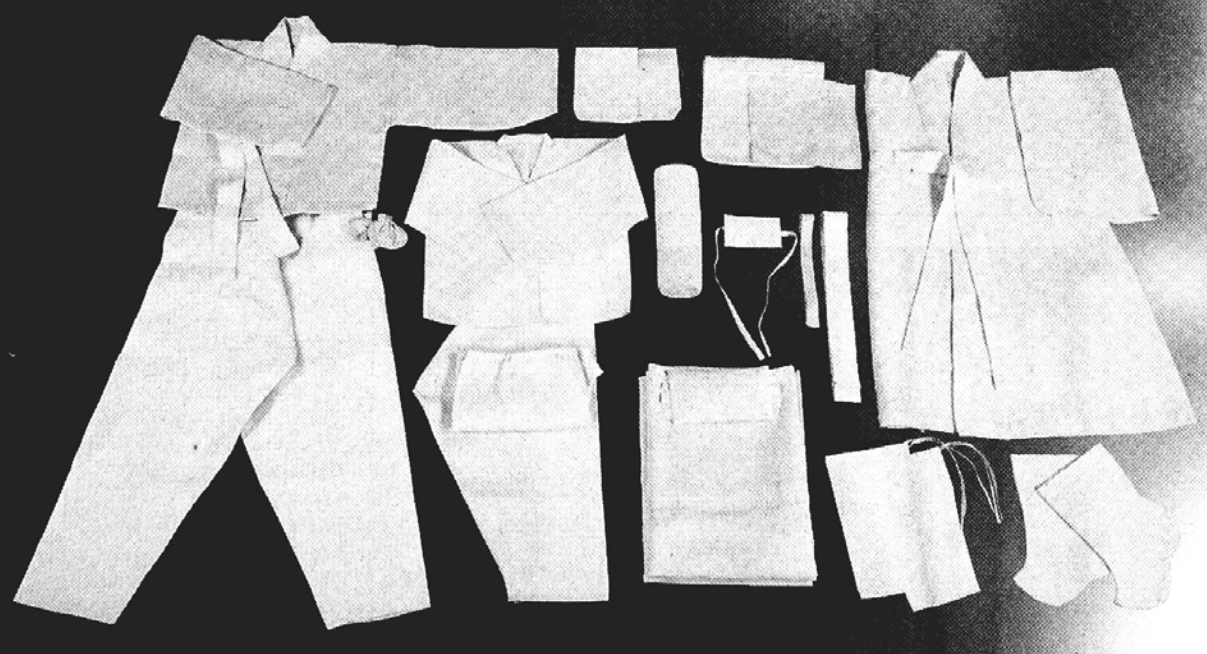
여기에서 시든 꽃과 많은 벌, 겨껍데기, 더러운 속, 땅 속, 종자 속, 더럽고 낡은 옷, 천한 여인, 장막 등은 중생이 번뇌에 덮여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으며, 부처님, 달콤한 꿀, 알맹이, 진금, 금은보화, 싹, 진금상, 전륜왕, 금상은 여래의 성품을 간직한 여래장을 의미한다. 즉 모든 중생은 다 여래의 지혜 안에서 거두어지고 여래의 법신은 인위(因位)와 과위(果位)를 통해 변하지 않지만, 중생의 경우에는 여래의 법신을 간직하고 있어도 번뇌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래의 과덕(果德)은 다 범부의 마음 속에도 포장되어 있으므로 능히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 스스로 자신에게 여래장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모든 중생은 번뇌에 싸여 있을 뿐 그 자체는 성불인 것이며 원래부터 성불인 상태다. 또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베껴써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며, 그 보람은 무수한 탑과 누각을 세워 부처와 보살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설하고 있다.

여래장 사상을 알고나면 하찮게 보이던 내 이웃과 친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인다. 그리고 수지독송하여 그 뜻을 헤아리면 자신 속에 있는 부처를 찾고 나아가 주위의 모든 존재들의 불성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경의 가르침은 무량하기만 하다.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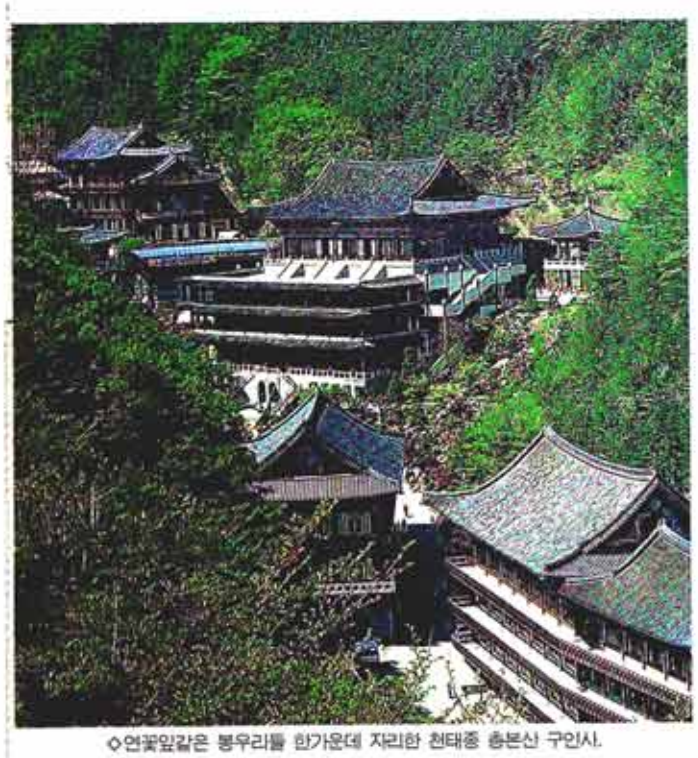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골마다 절마다 의상대사 체취



◇한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장쾌한 희방폭포.



◇연꽃잎같은 봉우리들 한가운데 자리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98 사진영상의 해

소백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5←

백두산에서 힘차게 뻗어나온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끼고 거침없이 내려오다가 내륙으로 방향을 튼 첫머리에 소백산이 있다. 소백산은 가장 높은 비로봉(1439m)을 중심으로 연화봉, 국망봉, 도솔봉 등 1천m가 넘는 걸출한 봉우리들이 어우러진 넓은 품을 자랑한다. 능선 너머 북쪽으로는 남한강 원류를 이루며 단양팔경을 품에 안았고, 남쪽으로는 내성천 죽계천 등으로 물을 흘려내려 영주 땅을 적시며, 낙동강의 몸집을 불려주고 있다. 문경의 계립령(하늘재)에 이어 닦인 죽령은 충북과 경북을 잇는 길목으로서의 구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수용, 소화시켜 문화접변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극락으로 가는 돌계단

소백산 자락 곳곳에서는 의상대사(625~702)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도량이 많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봉황산 아래에 자리한 화엄종찰 부석사를 비롯 문수산 중턱의 축서사, 비로봉 아래의 비로사, 국망봉 남쪽 계곡의 초암사, 중턱의 성혈사 등, 부석사를 빼고는 모두 규모도 작고 그리 유명하지 않아 조용하다. 그럼에도 절에서 바라보는 전망만큼은 부석사 뺨치지 않게 빼어나다. 특히 봉화의 축서사는 가파른 축대위에 세워진 잠이나 눈아래 산자락들이 가없이 펼쳐지는 풍광이 가히 작은 부석사라 불릴만하다.

의상대사의 사상은 화엄사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석사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이다. 의상대사는 아미타불을 화엄사상과 같은 일승(一乘)으로 이해한 동시에 열반에 들지 않고 생멸상이 없는 현재불로 파악했다. 온 우주를 포섭하는 화엄이라는 사상적 배경 위에서 극락정토의 현실화, 신라의 정토화를 꿈꿨던 것이다. 소백산 자락의 사찰들이 아미타불을 비로자나불과 함께 봉안하고 있는 것은 의상대사의 화엄 원융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주 부석사는 사시사철 언제 가봐도 그 맛이 다르며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감회를 준다.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람배치와 직선 부재를 사용했으면서도 절제된 곡선미를 보여주는 무량수전(국보 18호), 그리고 그 앞에서 화려한 조각솜씨를 자랑하는 석등(국보 17호) 등, 어느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부석사를 찾아가는 길은 온통 초여름 물 흐르는 소리와 산새 울음소리 가득한 푸르름의 연속이다. 철질 초입부터 온통 맑은 산내음이 풍긴다. 부석사의 참모습을 보려면 걸어 올라가야만 한다. 일주문에서 무량수전에 오르는 길은 산중턱을 깎아 수많은 계단과 돌축대로 이뤄져 있다. 축대는 철철한 앞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고 있어 다른데처럼 사방팔방 눈돌리며 절구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다. 천왕문을 지나 무량수전까지 아홉 단의 석축 돌계단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과정(9품만다리)을 형상화하고 있어 계단 하나하나 오를때마다 극락세계로 향하는 희열감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계단위에 놓인 안양루에 올라 내려다보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솟아오른 연봉들이 무한대로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천하의 방랑시인 김삿갓도 '인간 백세에 몇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하고 감탄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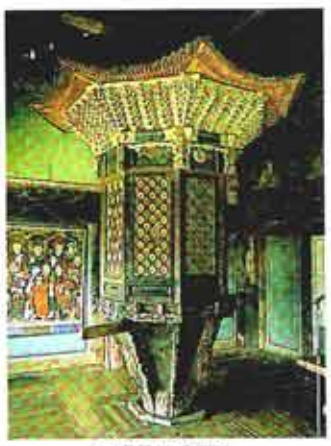
부석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문무왕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1,300년을 넘게 한점 흐트러짐없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경내에는 무량수전과 석등을 비롯 국보 5점(조사당 19호, 소조불좌상 45호, 조사당벽화 46호)과 보물 4점(자인당 석조비로자나불좌상2기 보물 220호, 3층석탑 249호, 당간지주 255호, 고려각판 735호)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부석사 주축 화엄세계 열어

희방사 28m 물길 희방폭포 장관

구인사 연꽃지형 50동 당우 즐비

소백산 자락 제1봉인 비로봉과 불과 3.5km에 위치한 비로사. 683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사찰은 정감록의 십승지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히는 풍기 금계동에서도 약 10km를 들어가는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다. 의상의 화엄사상을 이어받아 석조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보물 996호)을 함께 봉안하고 있으며, 나말여초의 고승 진공대사의 부도비와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그러나 워낙 외지라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 없어 당우는 퇴락할대로 퇴락했고 석불상의 광배와 석탑 등은 깨져 절마당 한켠에 모아 놓은 상태다. 그러나 명찰은 반드시 다시 서는 법. 최근 대웅보전을 새로 짓고 석불상을 개금해 안치했으며, 그 옆에 요사채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 지금 비로사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용문사 윤장대.

초암사는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던 도중 사라졌던 서까래를 찾아 세운 사찰이다. 날아온 서까래를 확인한 의상대사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서까래가 놓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수도한 후에 부석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현재의 초암사는 한국전쟁때 불타 없어진 것을 재건한 것이며, 경내에는 지방유형문화재인 3층석탑(126호)과 동·서부도(128·129호) 등이 있다. 초암사 입구에는 축계계곡이 숨바꼭질하듯 펼쳐져 있다. 퇴계 이황선생이 이곳에 9개의 명소가 있다고 해 이름붙인 축계계곡은 폭이 좁은 대신 아기자기한 멋이 가히 절경이다.

밀교신앙 엿볼 윤장대

성혈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 작은 토굴처로 시작된 사찰. 지금도 좁은 산간지형을 따라 자리한 나한전(보물 832호)만이 격식을 갖췄을 뿐 곳곳에 작은 암자와도 같은 건물이 많다. 수도처로서 매우 알맞은 이곳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할 뿐 크게 알려진 내력이 없다. 다만 나한전을 보수할 때 발견된 상량문이 '1553년에 처음 세웠고 80년뒤인 1634년에 중창했다'는 내용을 전해 사세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나한전은 다포계 단층 맞배지붕의 아담한 집이면서도 꽃창살의 조각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 특히 여름날 한가로운 연못의 정경을 보여주는 듯한 문살조각은 독특해 이곳을 찾는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게 하는 희방폭포로 유명한 희방사는 죽령에서 풍기로 내려오는 중간에 있다. 죽령을 넘는 초입에 위치한 검문소를 시작으로 청아한 물소리를 들으며 산을 오르다보면 소백산 영봉에서 발원해 맑천 구비를 돌아 흐르다가 천지를 진동하며 한바탕 장관을 이루는 희방폭포(높이 28m)가 나타난다. 마치 소백산의 영기를 내뿜어내는 듯 시원스레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꽂히는 광경은 가히 소백산의 으뜸이라 할만하다. 선덕여왕 12년(643) 두운스님이 창건한 희방사는 조선 선조 원년(1568)에 만든 〈월인석보〉 판목 2백장을 보관해왔던 사찰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 판목들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작전상의 이유로 절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소실됐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판목이 소실되기 전에 찍어둔 〈훈민정음 언해본〉 판본 한권이 불탄 절터에서 발견돼 훈민정음의 창제내력을 밝혀주고 있다.

소백산이 예천땅으로 흘러내려 이른 용문산에는 경전을 넣고 돌리면서 예불하는 윤장대(보물 684호)로 유명한 용문사가 있다. 조선시대의 학자 서거정이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라고 할 정도로 아늑하고 조근한 사찰이었으나 1984년 불탄 이후 새로 전각을 세우면서 주변의 나무를 쳐내고 절마당을 넓게 닦아 산사의 기품을 많이 잃어 버렸다. 현재 용문사는 보광명전이 본전이지만 연륜은 그 동쪽에 있는 대장전(보물 145호)이 높다. 옛 맛을 느끼고 싶다면 회전문에서 해우루를 거쳐 절마당으로 들어설 것이 아니라 강향을 좁돌아 자운루 밑으로 해서 대장전을 바라보며 오르는 것이 낫다. 품을 추스리고 대장전에 들어서면 목조삼존불상과 목각후불탱(보물 989호)이 환히 반긴다. 그 양쪽으로는 기둥같기도 하고 작은 건물 같기도 한 윤장대가 벌려 서 있다. 서쪽의 윤장대가 화려한 꽃창살인데 반해 동쪽의 윤장대는 단아한 빗살문로 이뤄져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경전을 넣고 바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연자방아 돌리듯이 돌릴 수 있게 한 윤장대는 밀교적인 전경신앙의 예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신라 불교문화 고스란히

죽령을 경계로 그 이남에는 고찰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이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지만 천태종의 총본산 구인사가 자리하고 있어 일년내내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인사가 자리한 소백산 연화지는 마치 연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곳. 가파른 계곡을 깎아 만든 경내에는 50여동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그 가운데 1만여명의 신도가 동시에 법회를 가질 수 있는 5층짜리 대법당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흔히 죽령남쪽에 위치한 영주문화의 근간을 유교문화라 한다. 그러나 유교문화 훨씬 이전부터 불교문화의 뿌리가 이곳에 내려졌었다. 부석사를 비롯한 소백산 자락의 10여개 사찰들은 이곳이 불국토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주로 수용되던 고대 불교문화는 죽령을 너머 이곳에서 일거집을 마련, 나름대로 소화된 후에 다시 경주로 전해져 찬란한 신라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의 양상도 변한다지만 소백산자락에 싹튼 불교문화는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글=임연태 · 윤기석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소백산자락 마애불

고구려불교 신라 전래 과정서 조성
가흥동 삼존불, 온화한 얼굴 친근감

영주·봉화지방에는 7세기 초반의 우수한 마애불들이 많이 남아있다. 북지리 마애불(국보 201호)을 비롯 가흥동 마애삼존불(보물 221호), 신암리 사방불(보물 680호) 등은 절을 잃어버린 채 길가에 내버려져 있지만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성돼 서로 공통점을 지닌다.

하나는 고구려와 신라의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지리 마애불은 부석사와 연관되는 교통의 주요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흥동 마애삼존불은 영주를 가로지르는 서천을 굽어보는 자리에, 신암리 사방불은 영주와 봉화를 연결하는 길가에 서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마애석굴과 같이 목조전실의 흔적이 있으며, 상호(얼굴)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북위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조각수법이 짙게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영주일대에는 영주동 석불입상, 석교리 석불입상, 휴천동 마애불좌상 등이 남아 있어 신라불교사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북지리마애불=두터운 암벽에 감실형 석실을 파고 원각에 가깝을 정도로 고부조로 새겼으나 감실의 윗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불상자체도 다소 파괴됐으며 풍화까지 진행된 상태다. 기록에는 이 일대에 지림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불상 옆으로 남향한 바위에 불상과 탑들이 새겨져 있고 경북대박물관에는 이곳에서 출토된 거대한 반가사유상이 있어 대찰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 가흥동 마애삼존불=강가의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이 삼존불은 머리가 크고 인상이 매우 온화하다. 체구는 어린아이와 같은 4등신 비례를 나타내 친근감을 준다. 그러나 바위 앞으로 바로 찻길이 나 있어 맘놓고 바라볼만한 자리가 없고 삼존불의 두 눈이 심하게 패여 나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 신암리 사방불=바위 네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방불로 마멸이 다소 있지만 남쪽면의 삼존불만은 뚜렷하다. 통통한 볼에 귀엽성 있는 친근한 얼굴이나 큼직한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등이 고식(古式)을 나타낸다. 그러나 보호각이 변변한 안내문 없이 길가 논둑 아래에 파묻혀 있어 늘 보호각 안에 물이 차 훼손이 우려된다.



◇소백산 남쪽 지역에는 7세기 초반의 우수한 마애불이 산재해 있다. 사진은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

용성스님 어록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도를 생각하리라.
나는 무엇을 말할까?
도를 말하리라.
나는 무엇을 행할까?
도를 행하리라.
하여,
도 생각하는 마음
잠깐이라도 놓지 말지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존숭할지어다.

협찬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무의 세계 신발 한짝 마저 찾아야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됐다고 해도 됩니다.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도록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똑같이 알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이 차원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하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도 좋아질테고, 자손들도 대대손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묵은 빚을 갚는다면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너부터 깨달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어서 너를 깨달으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리도 다 알 수 있으며,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마저도 공해서 없는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것을 알면 그대로 여여한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이 전부 공부 아님이 없는데 '나는 중생이 돼서 모자란다. 무슨 업이 많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럴까' 하는 생각까지도 있어서는 아니되죠. 물이 흘러갈 때 나는 바람이 불어서 못 흘러간다, 파도가 쳐서 못 흘러간다, 구정물이 들어와서 못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어떤게 들어와도 흡수해서 가라앉히면서 여여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체가 없어서 가깝고 멀고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전체를 알 수가 있고, 전체가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습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지만, 비록 오신통이 열렸다 해도 내 몸에서부터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자유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물이 흘러갈때 바람 불어 못간다 구정물 들어와 못 간다는 것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하게 흐르듯 마음도…"

여러분이 요만한 그릇을 가져왔다 하면, 나도 요만한 그릇이 되고 여러분이 바다를 가져왔다면 나도 역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직선적으로 관하라는 것 밖에는 말을 할 수 없겠지요. 그게 제일 시급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시대의 용어로 쓴다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데 거기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릇은 항상 차지도 않고 비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모든 생명들과 의식들이 다 차원에 따라서 주둔해 있습니다.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이 모든 인과가 주둔해 있는데 차례차례로, 자기가 저질러 놓은대로 그때에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나오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하게 나옵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되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팔자운명이라든가, 차례차례로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공부죠.

"내안에 있는 보배 쥐고 공부 익혀야지요"
"아는게 너무 많아 따지느라 아리송 하죠"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한 치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적이 돼서, 즉 집착이 누적이 되고, 욕심이 누적이 되고, 모두 바깥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해오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한다리로 절름발이로 걷게 되고 애꾸눈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의 세계에 신발 한 짝을 두고 나머지 한 짝만 신고 나왔어요. 그 신발 한 짝을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스스로 용무를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평등공법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거수 일투족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내가 믿느냐 안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습니다.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그 뿌리로 안해서 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그 싹이 뿌리에서만이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심을 갖기보다도 진정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내 싹이 어디 있는지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고 있는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뭣고?'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봐도 깨서 먹어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말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몸이 아프면, 바로 마음 도리에서 스스로 약사가 돼 줍니다.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자리를,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순간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느냐 이 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 되어 줍니다. 가정에서도 찰나 찰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 사위가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그냥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는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다운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것, 밥 먹는 것, 자는 것, 똥누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이 여섯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좋은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 주인공 자리에다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정말이지 진짜로 믿고 입력할 때 바로 통신이 된단 얘기입니다. 통신이 되면 대뇌를 거쳐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이 안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을 할 때 이것을 다 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내가 안에서도 조복을 받았고, 바깥에서도 조복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거수 일투족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익혀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면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바깥으로 끄달립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조그만한 건 되는데 큰 것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큰 거나 조그만 거나 둘이 아니에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때에, 만약에 천리를 간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에 나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우주를 한 바퀴 돌았다 하더래도 요 문 바깥에 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름을 가진 분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권리를 가졌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다 같이 가졌단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깨우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지, 두개의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똑같고, 사탐도 똑같고, 마음의 뿌리도 똑같고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단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을 모든 걸 버려서 자기까지도 다 버려서, 다 얻었어요. 얻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떠한 것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 응신으로서 나투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삼천년 전의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일은 어떻게 체험을 하고 가겠는데 크게 벌어지는 일들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큰 것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믿어 보셨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리송한 거에요. 따지느라고요. "내가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나? 이거 뭐"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의 한 개체에 생명들이 주둔해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아는게 많다고 말로는 안하지만 그러나 밑바닥에 잘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르든지 알든지 무조건, 아는 것은 감사하게 거기 놓고, 모르는 것은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너만이 네 몸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니까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주와 직결되는 통신입니다. 지금 전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전부 기복으로 믿고 있어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전부 말이예요. 자기는 쑥 빼놓고 극장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나로부터 상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혹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6)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제 느낌을 지켜보면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지를 자세하고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울고 누가 웃는가?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인가를 지켜보라.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보라. 어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똑바로 지켜보라.

지켜볼 때에 망상이 든다해도 그것까지 지켜보라. 평등한 마음 텅 빈 마음으로 비춰보고 지켜봐라.

그러다 보면 습도 녹고 인과도 무너지며 나를 발견하게도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밤 낮을 가리지 않으며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따지고 보면 모두 즐거움을 얻자는 데 있다.

즐거움이 곧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좀 더 크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즐거움에 목말라하고 집착하며 즐거움을 의지, 욕구,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삶에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듯하다. 항상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세속적인 즐거움 대신에 출세간적인 즐거움을 역설하셨다. 세속적인 즐거움이란 무상(無常)한 것이며 조건지어진 것일 뿐이므로 그것은 결국 괴로움으로 통한다고 하셨다. 그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사라짐은 곧 괴로움을 낳기 때문이라 하셨다.

고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상한 것인 줄 알고, 다만 조건지어진 것임을 알아채린다면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이 따른다고 하셨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식으로 즐거움이나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 괴롭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기에 어떤 즐거움이라도 그것은 곧 괴로움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이 꺼지듯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갈증은 더욱 커진다. 즐거웠던 감정, 즐거웠던 기억들이 전보다 더 크고 강한 목마름을 낳고 그것이 커진만큼 채워지지 않는데서 오는 괴로움도 커진다. 하지만 즐거움 · 행복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며 괴로움이 사라지면 저절로 평온한 즐거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마음은 평화스러워 질 것이며 갈증도 해소될 것이다.

'나'가 빠지면 된다. 즐겁다는 생각, 즐겁다는 느낌이 내 것이다 혹은 내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것을 나와 같이 보지를 말고 다만 지켜보면 된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고 생각이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된다.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기만 하라.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싫다 좋다는 감정도 똑같이 지켜보라.

그러다보면 즐거움을 붙들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성향이 점차 스러져감을 알게 될 것이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결국은 무상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집착할 대상이 못된다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붙잡지 않고 더는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무상한 것을 쫓겠는가. 절로 놓아지게 될 것이다.

마음엔 평화가 깃들고 평화스런 마음엔 즐거움이 함께 한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진짜 즐거움이 따른다.

협찬 : 김영환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어떤 바람도 마음 못 무너뜨려 '금강'

☞ 15면에서 계속

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없고서 상대가 벌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몸뚱이를 아껴서 소중히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뚱이가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철 사는 동안에 몸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하겠기에, 또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것이 여러 생명들의 집합소거든요. 그리고 몸을 잘 간수해야지, 만약 내 몸뚱이로 인해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다면 그래서야 어디 사람이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너희들이 너희들 통 안을 벗어나서 주머니 안을 벗어나면 자유권을 얻느니라. 자유권을 얻는다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거든지 다 건질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모두가 더불어 같이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 몸체를 하나 본다 하더라도,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과 생명들이 이 몸 안에 잔뜩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라고 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녹아져 내릴 일이 없고, 더불어 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부담이 가 버려서 기울어지니 업보를 면할 길이 없죠.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밥먹고 싶을 때 밥먹고, 똥누고 싶을 때 똥누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권을 가지고 여여한 살림을 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폐단이 많고, 마음을 졸이고, 벌벌 떨고 아파하고, 가슴을 두들기고 땅을 치고 울어야만 합니까?

지금 겪는 일은 과거로부터 생긴 일이니 어제도 과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율 때는 나한테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걸망에다가 딱 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건 믿고 입력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게 입력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입력하게 되면 이 의식들을 다스리는 선장은 어떤 것이 닥쳐와도 꿈쩍 안합니다. 그러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만 배출해 주면 바퀴는 슬슬 그냥 걸림없이 돌아가게끔 돼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슬그머니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생기죠.

진리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마음뿌리도 똑같고
다 평등해서
모두 깨우쳐도
'一佛' 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화배우가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배역을 맡아가지고, 영화배우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막이 내리면 그뿐입니다. 어떻게 역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또 자기의 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들어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태산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만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림 · 최주현

배역 받아 영화배우처럼 사는 한철 인생

그래서 이름해 '금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이 마음만은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라도 생명이라면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니 어떤 미물이나 짐승을 보더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모습이 또 주어지겠죠.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모습은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요, 사람이 이 줄을 쥐지 않고 간다면, 이 선근의 뿌리를 쥐고 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간다면, 죽어도 보살이 인도를 해주지 않아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의식만 알고 짝짓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에서 습성이 생겨 다시는 사람으로 나오기가 극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훌렁 벗고 자유권을 얻는다면 이 우주를 할나에, 빛보다 더 빨리 한 찰나에 보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도'라고는 안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다 합쳐서 오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는 아닙니다. 그 오신통을 벗어나야 '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기출산으로 미숙아 태어나

문 큰스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집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아직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출산으로 인해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산소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뇌를 다쳤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런 차도가 없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답 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보배에서 이 태양이 바늘처럼 나가듯이, 어떠한 거든지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 그 자리에 모든 걸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고 관하면 아이 뿌리나 댁의 뿌리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아질 수 있지요. 그러니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댁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근본이예요. 아프면 의사가 돼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살의 응신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처님 마음입니다. 보살의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하는 그 도리를 똑똑하게 배우시고 당신 몸이 나무라고 한다면, 당신 뿌리를 진짜로 믿으세요. 타의에 아무리 '부처님 좀 낫게 해주세요'하고 기도를 해도 공덕이 안되는 겁니다. 자기 뿌리를 믿는 것만이 공덕이 되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문 저는 한때 사업을 하면서 크게 부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인공 찾을 생각도 못하고 이리저리 뛰다가 나중에서야 주인공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주인공의 힘이 었는지 큰 것은 그럭저럭 막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십니다. 저는 아직도 관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꿈을 꾸는 일들이 많죠. 어린애를 업고 다닌다든지 아버지가 보인다든지 어머니가 보인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러나 항상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 내 안에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나툼이거든요. 아버지로 보이는 건 웃분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직계 내 조상은 과거에 살던 나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주인공에서 그 환상을 내줘야 아버지인 줄 알고 믿게 되니까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생물에서 부모가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형성돼 왔는데,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고,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조그맣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바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에 보이는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이고, 이 꿈을 잘못 꿔서 큰일났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마시고 꿈이 언짢을 듯하면 '주인공, 잘 돌리는 것도 너야' 하고 맡기세요. 또 좋을 듯하면 감사하게 놓구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보배에 그 기구를 가지고 운전대만 쥐고 있는 겁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가기도 하고 걸려서 못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생시나 영화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도깨비 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철 나는데 뭐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이 한 철 나는 동안에 공부하기에 따라서 세세생생에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에서 나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은 내 입을 빌어서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으니 난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을 낳으셨다'하는 건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보살로 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내는대로 조건이야 어디로 갔든지 무조건 내가 마음내는 대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또 보살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팠다 하면 약사보살이 돼주고, 좋은 데로 못갔다고 원을 세우면 지장이 돼주고, 명이 짧다 하면 칠성이 돼주고, 물에 가서 염원을 하면 주해신이 되고 말입니다. 산에 가면 또 주산신이 있죠.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의 이름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촉도 아미타도 미륵도 동방에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서방에서 아직 돌아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미타라고 하고 돌아나오는 것은 미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가정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면 속을 썩이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속을 썩는 거지 모습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병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너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지,' 하고 거기다 관한다면 그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허허, 내가 이래서는 안되지,' 하고 스스로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어지럽지 않게 되겠죠.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두 기복으로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뿌려놓은 씨들도 마음은 그냥 바깥으로 놀지요. 정신세계는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물질적으로만 치닫는 거예요.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 열심히 자기 뿌리를 믿고 관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른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협찬 주인공

☞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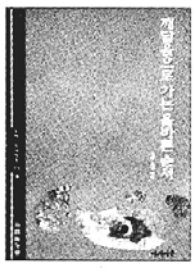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장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쟁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삼세 인과에 대한 절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설법',
'전상전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

여시아문은 불은 바 뜻 처와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한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산 삼!

(심마니 모임)

017)232-6005

밀교·기공·지압·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고혈압·간경화·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한달분(60첩)

1백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평생무료진료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원장 한의학박사 한택천(前경지한방병원장)-

• 강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사주·명리·주역 육효·작명·택일

※ 3개월 책임지도 ※
노력 여하에 따라서
3~5개월 개업가능
철학인 명인 고운처사
051)442-3108
012)1582-0437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물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심기선법육경신 천안통법 전수

음오월 11일, 12일(양 7월11일, 12일)요일 정오시에 마음의 터를 닦은 기운이 30초안에 천문이 열리며 9초안에 천안통이 열리어 본인이 직접 태양을 보아 기를 받아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들면 안과 밖의 고통이 찰나에 여의는 기도에 동참하시고 특히 음달드는 백중제는 구대 선당과 오대조상들을 본인의 선덕으로 생전의 악행을 참회하고 영가들이 구천을 헤메는 복잡한 집안을 심원청생경과 수생경으로 왕생극락세계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참금 : 일금 오만원영가 1위당 1만원(집안동참금 33만원)
02) 821-6622 /923-3110/016)239-3110
태 일 법 사

• 구인구직 •

경력 간부급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 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 령 : 40세이상
■ 대 상 : 남·여
※ 주부 재택근무자 모심.
전화 02)738-4224
(法淨) 나 찬 귀 합장

구 직

◇사찰종무원, 어린이 법회가능
◇ 자격증 ; 청소년지도자 2급
※ 지방도 가능 ※
012)1865-1865

역술에 능통한 스님 구하실 분

인연이 되는 사찰을 찾습니다.
필요한 분 연락바랍니다.
0571)53-4060

공양주 보살 구하실분

일자리 구합니다.
02)444-2146

산중턱 바위밑 암자에서 지내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019)
571-7430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
0523)82-5074
0523)388-0921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암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한 95-3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귀하

해암사 주지 김해암

• 학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타 •

토굴 시공합니다 (황토돌집)

0595)82-7945
0595)82-9214
011)859-0846
토굴전문 시공자
김종경

108염주 열매 열리는 목암주 나무

각 사찰에서 필수적인 목암주 나무 분양합니다.
062)234-0095(야간)
062)222-6003(주간)

• 사찰안내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 5백만원
0559)32-4807

◆ 사찰양도 안내

◇ 위 치 : 수원근교/ 부지 : 1300평
◇ 법 당 : 12평 /요사 : 30평
◇ 가 액 : 2억
◇ 위 치 : 진주근교/ 부지 : 3천평
◇ 법 당 : 18평 /요사 : 30평
◇ 가 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십시요.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주)광진불사

포교당 운영하실분 (대구광역시내)

◇ 평 수 : 59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53)654-7163

◆ 포교당 안내

◇ 주 소 : 대전 도마1동 33-4
◇ 건 평 : 40평
◇ 전세 2천 5백
시설비 따로 상의
016)564-8553
015)249-5953

◆ 대구광역시 강변

◇ 전세 또는 매매(은행융자가능)
◇ 최신건물 모텔및 전문식당
◇ 건평 : 750평
지하 : 비어있음, 단란주점 가능
◇ 1층 : 전문식당 현 성업중
2,3층:모텔강변에 위치(경관좋음)
◇ 분수넓은 주차장
◇ 식당 모텔 주차장과 분리
◇ 시설 : 최신시설, 컴퓨터 시설관리 일체무상기증 (식당집기 포함)
※ 불교한방병원으로 입지 좋음.
053)616-4040/257-0751

◆포교당 운영 하실 분

◇ 위 치 : 대구 광역시 시내
◇ 건 물 : 3층 건물에 3층
◇ 평 수 : 59평
◇ 법 당 : 38평
◇ 요사채 : 방 2개, 주방, 거실, 사무실, 샤워시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가
◆ 수련장 가능, 현재 성업중 당장 입주하여 법회할 수 있음.
053)654-7163
011)790-7162

◆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 치 : 대구광역시내
◇ 평수 : 59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깨끗하고 넓고 시원합니다.
◆ 운영이 잘되는 복터입니다.
053)654-7163

◆ 포교당 급매

◇ 11년 역사
◇ 시설 완벽 (법당, 공양실, 주지실)
◇ 주차시설완비
◇ 부산시내 최요지(신도다수)
◇ 공유포함 약 70평
◆ 전세 5천만원
※ 꼭 운영하실 분만 전화요
부산 (051)642-6242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채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사찰안내 사정상 급함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 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법당 33평 + 요사채 57평
◇ 양도가 : 1억 9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망봉 강씨봉산맥 천연계곡집
02)646-2365
011)228-8092

◆ 포교원 양도

◇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염창동(강서구)
◇ 26평 아파트 상가 3층건물의 3층
◇ 전세 : 4,000만원
◇ 권리비, 시설비, 월세 없음.
02)663-2671
02)664-8389
※ 오전 11시 이후 전화요망!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거실·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급 매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복리 고성산밑 대덕사
◇방2개, 욕실1개, 거실2개, 주방1개, 기름 보일러 준비
◇간편한 시설
◇급매가 : 2천 7백
0333)656-8951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 사찰안내(사정상 급함)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법당 33평, 요사채 57평
◇ 양도가 : 1억 9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망봉 강씨봉 산맥 천연계곡집
02)646-2365
011)228-8092

◆ 포교당 운영 하실 분

◇ 위치 : 대구 광역시 시내
◇ 건 물 : 3층 건물에 3층
◇ 평 수 : 59평
◇ 법 당 : 38평
◇ 요사채 : 방 2개, 주방, 거실, 사무실, 사워시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가
◆ 수련장 가능, 현재 성업중. 당장 입주하여 법회할 수 있음.
053)654-7163
011)790-7162

◆ 포교당 양도(급매)

◇시장통 중심가(입주즉시 법회능)
◇18년 역사 간직
◇건강상 내놓음
◇삼존불, 방3칸, 취사시설, 화장실
◇가격: 총 4,000만원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함.
02)482-4550

◆사찰, 연수원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1065번지
◇ 평수 : 2075평(실평수 약 3,000평)
◇ 가격 : 1억
※계곡 사이에 두고 있슴.
※고지대 경관수려 교통편리
0597)62-8565
019)533-7349

사찰부지 구하실분께 (최고의 명당)

◇ 위치 전북 진안 부귀면 (전주역에서 15분)
◇ 평수 약 500,000평(370,000/130,000)
◇ 용도 사찰, 실버타운, 연수원, 골프장(18홀), 전원주택, 기타
◇ 교통 서울에서 2시간 30분 거리 전주역에서 15분/광주에서 1시간
◇ 진입로 양호
◇ 주변시세 평당 10,000~15,000 정도
◇ 급매가 평당 5,000원(분할지불가능)
02-449-0507~9
017-206-6688(주인직)

경남지역 전통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지역 市 교통중심지 ◆부 지 : 500평이상 주차장 有
◆법 당 : 31평 내 11포 외7포 고급목재 및 고급 단청 필
◆요사채 : 100평 이상 ◆주지실 : 10평 / 명부전 : 15평 단청필
◆주지실 : 10평 ◆명부전 : 15평 단청필
◆시 설 : 9억 8천만원 ◆주차장 : 차량무한대 주차가능
◆특 징 : 경남지역에서 개인사찰로서 가장 규모가 큰도량으로 스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합니다. 기타 유료양로원이나 유치원 불교 사회복지 기관으로 경남지역 市 중심지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무속인이나 일반인께는 절대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상담 : 080)512-4447 / 012)1648-6334 담당 : 조법사 합장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외 일반인, 보살, 무속인 및대리상담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암자터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위치 : 206평
◇ 요사채 1동, 구옥 1동, 법당 1동 - 입실부엌, 기름보일러
◇ 가격 : 3천 7백만(매매가)
◆ 임대가능
0412)53-7134
016)407-7134

◇ 예천 용궁면 산택리
◇ 전세 4천
◇ 기도도량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 대지 : 140평, 건물 : 50평
◇ 기와증축
0582)536-2194
무안법사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 2개, 주방(주차유)
◇ 가 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시설완벽, 법회 및 의식 즉시가능
◆ 특징: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사찰터, 토굴터, 불교연수원,, 복지시설터 공부할만한 외딴 가옥
◇ 임야 35,000평, 평당 1,200원 암자터로 적합
◇ 99칸 한옥 양식 고가 대지 2,000평, 뒷산 4000평, 건평 350평
02)514-8785
015)8335-0553
강처사 합장

◆ 토굴 및 별장

◇ 위치 : 경북 고령
◇ 대지 : 152평, 기와집 15평
◇ 가액 : 4,500만원
◇ 신축건물, 약수 좋습니다.
0543-955-7768

◆ 토굴전세(양도도 가능)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250평
◇ 건평 : 20평
◇ 가액 : 2천만원
◆ 주차가능, 보일러시설, 임법당, 욕실완비
0595)83-8362

◆토굴 사정상 급히 팝니다.

◇ 위치 : 경기 용인
◇ 대지 : 416평
◇ 건평 : 15평
◇ 가액 : 5,300만원
스님께서 유학을 급히 가게되어 양도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357)31-8736
011)284-5101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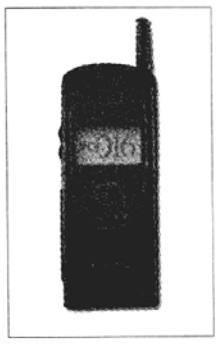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 016 특별할인 한정판매

SPH 2000 30대 ₩150,000 (가입비 포함)



- 크 기 : 129×51×24.3mm
- 무 게 : 154g(소형배터리 사용시)/플립형
- 통화시간 : 밧데리 M200분/L300분
- 대기시간 : 밧데리 M55~70시간 /L85~115시간
- 특 징 : 다양한 색상 음성인식 다이얼링
- 색 상 : 검정색

※ 우송료 별도(₩5,000)

SPH 3100 20대 ₩230,000 (가입비 포함)



- 크기 : 114×50×22mm
- 무 게 : 109g(중형배터리 사용시)
- 연속통화시간 : 밧데리 M130분 /L240분
- 연속대기시간 : 밧데리 M35~45시간 /L65~75시간
- 색 상 : 검정색

※ 5만원상당의 매직프리이어폰 교환무론 제공
※ 우송료 별도(₩5,000)

PCS폰 분실보험 무상가입
★ 분실, 회재, 도난시 삼성화재 보험보상!!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 선택사항 : 수공에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A8-1



●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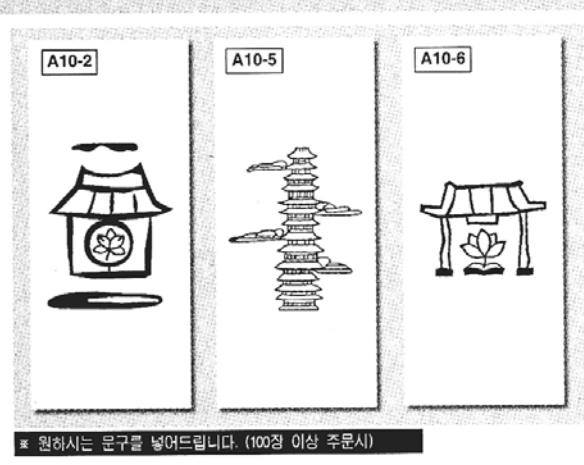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열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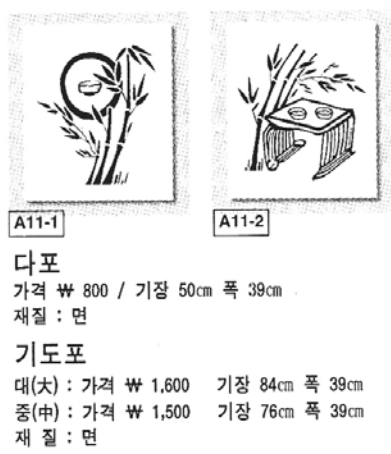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A10-2 A10-5 A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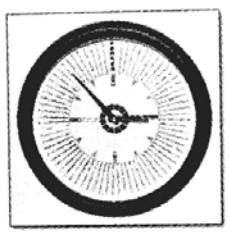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A3-3

사각링 벽걸이 시계
화엄경 약찬게 , 보왕삼매론 경전 문구 디자인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가격 : ₩ 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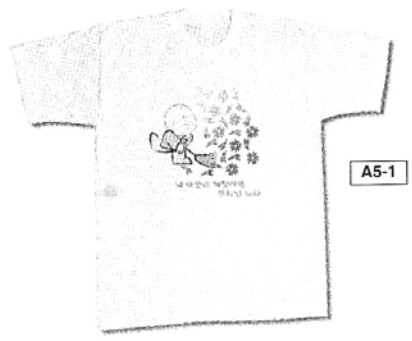
A3-1

사각 그림 벽시계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성 : 하단부분 화엄일승법계도 및 법성게 경전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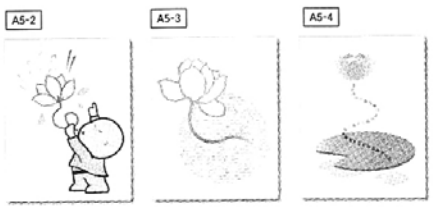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60(가로) 160(세로) 45(두께)㎜
특성 : 심플한 모양의 다양한 칼라와 탑 모양의 반야심경 한글 및 한자 내부디자인
가격 : ₩ 10,000



A5-1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쓸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법성계 걸망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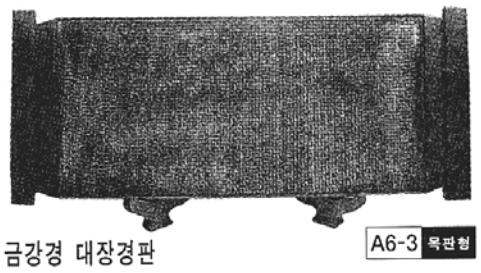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A4-1 A4-2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 580,000 (개금)



A6-3 목판형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받침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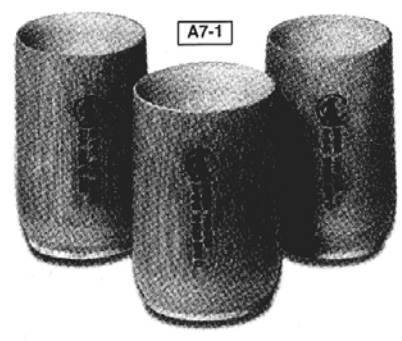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내부그림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9-1

단주 열쇠고리
A9-2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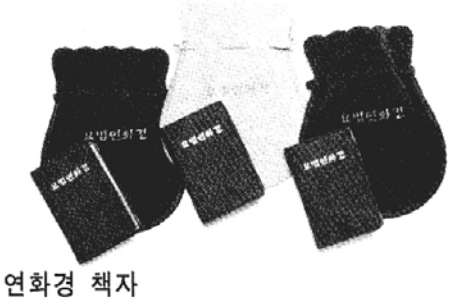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A10-2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정보화시대 이끌 불교문화 '보고'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19개 사찰 · 1천5백여 가족 동참
1억5천만원 약정…음반 재제작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9개 사찰에서 캠페인 동참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1천5백여 가족 및 개인이 후원에 동참했다. 약정액은 1억5천2백만원으로, 올해 팔만대장경연구소가 계획한 3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동참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며 후원동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참자들의 원력을 모아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수철씨 작곡의 '팔만대장경' 음반도 CD 1만장과 테잎 3만개가 발매 1주일만에 모두 판매돼 재제작에 들어가기로 했다. 삼성뮤즈 장인호대리는 "종교음악으로서 이례적인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참여 권유의 말

21세기 불국토 여는 겨레희망

영조스님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시대의 법보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해인사 높은 곳 장경각에서 홀로 자리를 지켰던 팔만대장경이 세계의 부름 속에 새로이 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민족의 희망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정보의 바다에 세우는 불국정토이며 이상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대불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사찰 사부대중은 전산화불사의 원만성취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증심사 주지〉

대장경엔 국난극복 지혜 담겨

보문스님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고려 고종 38년 1251년은 IMF라는 경제적 수혈, 구조조정, 실업의 속출 등 오늘날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몽고군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 속에 남기려 했던 고려인의 의지를 우리는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된 민심으로 어려움을 이기려 했던 선조의 지혜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그 불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심는 이 시대의 인연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약수선원 주지〉

법회후원인 명단

사자암 ▶유병입 권건호 권원규 권원철(서울 관악구) ▶김지순 김형용 김대철 김옥난 김성철(서울 관악구) ▶심재수 최정임 이동현 이연주 이지예(서울 관악구)

석림사 ▶박선미 김말용 이성임 김기포 김은진 김현육(경기도 부천시)

선원사 ▶홍원순 진기팔 김순남 진종일 진태환 진승아(서울 강남구) ▶이예자 차덕호 차원영 차순우(서울 서초구) ▶서태선 류향열 류송이 류재연(인천 계양구) ▶업우섭 엄기찬 이봉애 염기성(인천 남구) ▶김정식 명상미 김동근 이순주 김영근 김성희 김자선 김종우 김자은 김종학(인천 남구) ▶윤영자 김옥희 김완수 김현의 김용춘(인천 동구)

성화사 ▶김근수 정순화 김태언 김은희 김민희(경남 마산시) ▶문재섭 일원행 문수진 문석(경남 마산시) ▶박철근 김수연 박인호 박성훈(경북 경산시) ▶이철화 이정기 이윤문 이응주(대구 남구) ▶이정헌 이재창 오진불심 이정호 박대원해 이유진(대구 남구) ▶강인석 이병철 강보야 강스연 이지원(대구 남구) ▶정분섭 이재훈 정홍연행 이간옥(대구 남구) ▶조옥연 윤창섭 계남경 윤성혜 윤희정 윤인섭 채미정 윤진아(대구 남구) ▶송준헌 정정법심 신말숙 송유진 송유영(대구 남구) ▶황차열 박성희 황민주 황신년(대구 달서구) ▶정성희 조정순 한상철 한지혜 한의섭(대구 달서구) ▶곽순희 김성웅 김부금 김세정 하옥임 장점생 곽철호(대구 달서구) ▶육명숙 박순용 노정수 박해식 박효주 박훈영 곽수영(대구 달서구) ▶김남수 김경조 김영준 박정희 김민지 김현우 김기언(대구 달서구) ▶강현주 정태곤 김순분 정유선 정혜인(대구 달서구) ▶이명옥 유혜원 유승하 유한창 유한직(대구 달서구) ▶오영화 이창석 이수영 김정미 이정은(대구 달서구) ▶안경룍 안점상 이경이 이분희 안창달 안은미(대구 달서구) ▶박윤자 홍점식 홍정희 홍준용(대구 달서구) ▶정정수 배애자 정승재 정승현(대구 달서구) ▶양용관 유경선 양정미 양세화 양정우 박숙자 문난이(대구 달서구) ▶박옥돌 김오영 김병극 김병석(대구 달서구) ▶성백규 이천진성 성운재 성익재 성인정 이명주 허도규(대구 달서구) ▶최병숙 박효분 최희진 최영진 최윤혁(대구 달서구) ▶구윤경 정완수 정하나 정세윤(대구 달서구) ▶박갑표 임진용 박주현 박용준 박준형(대구 달서구) ▶시랑 이용남 최복순 이입분 이혜민(대구 달서구) ▶김갑선 김문정 김종운 김종대 김진호 김명진 김근영 이경미 박명숙(대구 달서구) ▶김경재 박영복 김현창 김현직 김윤경 김현우 김도연 김효정(대구 달서구) ▶이호찬 오기원 이주희 오상돈 최연자(대구 달서구) ▶이안순 여홍상 여태남 여진희 여인영(대구 달서구) ▶정태순 양근석 양규석 권수경(대구 달서구) ▶김상암 성정순 김정훈(대구 달서구) ▶솔진동 이명희 손봉순 손혁영(대구 달서구) ▶김근수 이태옥 김진아 김준영(대구 달서구) ▶권상현 심명희 권오면 권소미 류노미(대구 달성군) ▶여상용 이경남 여칙동 박숙자 여환구 여유한(대구 달성군) ▶조명래 한경자 조은진 조은혜 박미화자 한문석(대구 달성군) ▶구윤모 김필선 구교민 구교현(대구 동구) ▶양문식 박숙희 양미란 양철우 임입수(대구 동구) ▶김현웅 김자비경 김한규 김주현 김만근 심명주(대구 북구) ▶이현기 김성분 이병용 이병직(대구 서구) ▶함정웅 배영자 심성훈 오인규 함주영 함지영 함정영 함현수 함현정 함채영(대구 서구) ▶정홍기 도경호 정혜영 정지황 정종익 전수연(대구 서구) ▶김두만 김수복 김함화 김근희 김나영(대구 서구) ▶윤재천 심보경 윤주현 윤정현 윤철환 금연규 심춘택 하갑임(대구 서구) ▶정유복 고승자 정윤재 정용재 정윤숙 이정자(대구 서구) ▶남주달 김희순 남명선 남채성 남미선(대구 서구) ▶서삼수 서상호 서상욱(대구 서구) ▶이해석 강주연 이진우 이진학(대구 서구) ▶류우권 김은령 류광민 류현재(대구 수성구) ▶최덕용 윤숙자 김지아 최정철 최윤철 최문철 설재경 윤은주 최미나(대구 수성구) ▶이해석 심은화 이철수 이상수 이경옥(대구 수성구) ▶김원상 김귀옥 김봉한 김지은(대구 수성구) ▶임영탁 이경숙 임혜민 임현수(대구 수성구) ▶조정희 양예분 조재욱 최윤애 조소현 조소희 조주연(대구 수성구) ▶김순난 김용덕 김용욱 전순조 노지조 김성훈 김정은 김현지 김성민(대구 수성구) ▶정종수 황광욱 정현철 정영미 정윤미(대구 수성구) ▶정민남 김정숙 정성훈 정원희(대구 수성구) ▶이인하 장경애 이태영 이규만(대구 수성구) ▶김우한 김태연 김찬동 박송희 김건동 백지원 김소희 김기홍 김낙현 김수민(대구 수성구) ▶채분수 채영택 채영완 채영길 채원훈 이을열 채주현 이은복 채윤연(대구 중구) ▶채용희 정재환 채대법심 정연규 하선옥 정진욱 정재욱 정현정(대구 중구) ▶김방남 김세훈 김정훈 황정욱 손미숙(대구 중구) ▶장경애 정창원 정현중 정병훈 정효찬 권복숙 조연희 노정희 정유정 정윤정(서울 용산구)

약수선원 ▶채규백 허옥님 채성석 송명희 채원준 채희경 채용석 채형준 채광석 채효민(경기도 의정부시) ▶윤상현 유정순 윤현황 강선경 윤가혜 윤용선 윤경황 윤덕황 윤길황(경기도 의정부시) ▶김진박 유목여 김기봉 이순자 김재진 김유경 김기룡 서윤희 김현준 김미애(경기도 의정부시) ▶장종만 이임재 장동준 오영주 장채훈 장상준 이계숙 장채은 장유경 장채경(경기도 의정부시) ▶보문스님(경기도 의정부시) ▶김현섭 강정희 김재신 김재돈(서울 강남구) ▶박선녀 이종규 이교현 이순실 하주야 이교선 이교영 ㅇ교은(서울 강남구) ▶신중근 김영자 신병룡 윤지숙 신병익 유명희 신준수 신준성 신유경(서울 강북구) ▶홍석희 문정희 홍정용 이금주 홍용석 홍영권(서울 광진구) ▶곽종원 신경인 김숙 최원근 최호근(서울 광진구) ▶손진우 한옥자 손용환 손호정(서울 도봉구) ▶최광섭 맹연순 최은수 최강수 최희정(서울 도봉구) ▶이해석 심은화 이철수 이상수 이경옥(대구 수성구) ▶김원상 김귀옥 김봉한 김지은(대구 수성구) ▶임영탁 이경숙 임혜민 임현수(대구 수성구) ▶조정희 양예분 조재욱 최윤애 조소현 조소희 조주연(대구 수성구) ▶김순난 김용덕 김용욱 전순조 노지조 김성훈 김정은 김현지 김성민(대구 수성구) ▶정종수 황광욱 정현철 정영미 정윤미(대구 수성구) ▶정민남 김정숙 정성훈 정원희(대구 수성구) ▶이인하 장경애 이태영 이규만(대구 수성구) ▶김우한 김태연 김찬동 박송희 김건동 백지원 김소희 김기홍 김낙현 김수민(대구 수성구) ▶채분수 채영택 채영완 채영길 채원훈 이을열 채주현 이은복 채윤연(대구 중구) ▶채용희 정재환 채대법심 정연규 하선옥 정진욱 정재욱 정현정(대구 중구) ▶김방남 김세훈 김정훈 황정욱 손미숙(대구 중구) ▶장경애 정창원 정현중 정병훈 정효찬 권복숙 조연희 노정희 정유정 정윤정(서울 용산구)

청중선원 ▶강귀영 홍기영 홍종숙 홍종석(서울 강남구) ▶유광일 강인실 유지연 유정아(서울 강남구) ▶차보금(서울 강남구) ▶강응서 이순연 강석 한상옥 강서윤 강윤석 조건숙 강서희 강정희(서울 강남구) ▶명진스님(서울 강남구) ▶정중상현 유정순 윤현황 강선경 윤가혜 윤용선 윤경황 윤덕황 윤길황(경기도 의정부시) ▶김진박 유목여 김기봉 이순자 김재진 김유경 김기룡 서윤희 김현준 김미애(경기도 의정부시) ▶장종만 이임재 장동준 오영주 장채훈 장상준 이계숙 장채은 장유경 장채경(경기도 의정부시) ▶보문스님(경기도 의정부시) ▶김현섭 강정희 김재신 김재돈(서울 강남구) ▶박선녀 강록 최강준(서울 송파구)

증심사 ▶한진수 김순덕 한상욱 한송화 한홍선(강원도 속초시) ▶전병국 주영이 전인규 전효경(경기도 고양시) ▶김영송 이정이 김성식 김성육(광주 광산구) ▶장보월화 이현구 최수진 이지영(광주 광산구) ▶조정환 박성덕월 조주홍 이성란 조기석 조혜선(광주 광산구) ▶김명석 조영덕 김흥한 김윤상 김경미 김은희(광주 남구) ▶김금녀 김경운 김상운 김필운 김연정 김정한 김은지 김미현 김상현 김주한(광주 남구) ▶설정복 김순례 박귀미 설준권 설준호 김영식 설현숙 김세은(광주 남구) ▶서상률 한효순 서득호 서수정 서상목 김영실 서호장 서은주(광주 남구) ▶박종골 김애월 박진철 박진희 박세미(광주 남구) ▶임지택 나정자 임우경 김은영 임홍석 임영순 임희경 임소연 양근호 양지원(광주 남구) ▶송기옥 한정자 송정석 송부령 송미령(광주 남구) ▶한석근 이윤희 한지영 한세열 김양임 한명근 김유리 한송희(광주 남구) ▶강진성 김영순 강태오 강윤완(광주 남구) ▶정승복 강민정 정해육(광주 남구) ▶정찬명 이금자 정명제 신혜원 정양수 정석종(광주 남구) ▶이종재 손준립 이영배 정은광 이향배 이성도 이사라(광주 남구) ▶이능인행(광주 남구) ▶김영구 이순례 김윤수 김길수(광주 남구) ▶정복연 유임경 정현준 정재형(광주 남구) ▶양서진 윤천수향 양묘단 양기강(광주 남구) ▶김덕문 이은주 김아정(광주 남구) ▶전경채 장양례 전영아 전정아 전민호 유영례(광주 남구) ▶김세현 김지영 김주형 김계행(광주 남구) ▶정병순 윤종승 정미타행 윤영귀 윤영호 윤선애 윤희정 임창진 임화정(광주 남구) ▶소정석 정영자 소영심(광주 남구) ▶이호남 김경석 정안순 김남헌 김태헌(광주 남구) ▶정성장 이진여성 정수옥 정석용(광주 남구) ▶윤권상 박순자 윤병윤 윤병희(광주 남구) ▶정봉균 황영옥 정용봉(광주 남구) ▶유재호 정영례 유신 유지현 유현유인선 정종택 정보람 정태경(광주 남구) ▶김하곤 김순임 김봉정 이옥련 김동찬 김정균 김하인 김병해 김소희(광주 남구) ▶송성운 안금순 송태진 송규진 송법진 송구진(광주 남구) ▶이정기 감정자 이이수 최인화 이삼수 이성수(광주 남구) ▶이석남 정영애 이상태 이승준 이지민(광주 남구) ▶오봉열 전매자 오상진 오현진(광주 남구) ▶박현진 윤귀례 박철희 박혜수 박선영(광주 남구) ▶박종천 김혜정 박수만 박승한 박준희(광주 남구) ▶김재국 임대원경 김남육 김은정 김인육 김대육(광주 남구) ▶박충남 조영남 박수진(광주 남구) ▶정록조 손복덕 정병희 정양숙 정인숙(광주 남구) ▶이남순 이법도행 안홍철 배경자 안상민 안현주 홍원근 홍준성 허용선 허정운 허용준(광주 동구) ▶김규봉 위재웅 위지은 정해주 위숙자 장영진 위금숙 이학재 위금옥(광주 북구) ▶배정문 이미자 배희순 배인순 배나은 배소라(광주 북구) ▶장갑수 김정애 장태호 장태영 박영신 손임선 김영도 김준희 김미애 김영백(광주 북구) ▶민두홍 박종실 강순화 민시원(광주 북구) ▶한용옥 조명숙 한송이 한상필 김복례 조현생 김월순 조재진 김은영 조윤경(광주 북구) ▶장사례 김명신 김인옥 김도연(광주 북구) ▶오상선 황민홍 박선희 황민선 황성은(광주 북구) ▶최명식 양현숙 최정문 최수영(광주 북구) ▶송왕근 김선자 송지빈 송지수 송지원(광주 북구) ▶김경림 성석훈 안현숙 성동영 성동원 성동숙 성석환 성미성(광주 북구) ▶박홍석 김정옥 박창영 박재영(광주 북구) ▶김재석 김정심 김종필 최정숙 김은희 김광춘 김광산 김길자(광주 북구) ▶고상연 김수자 고대호 고혜경 고대종 고대영 최은영(광주 북구) ▶장두영 윤기남 장종식 장은숙 장은정(광주 북구) ▶이시건 강정선 이준환 이지은(광주 북구) ▶황경연 황재욱 황호아 이미순 손완덕(광주 북구) ▶박재근 최화자 김영초 서동배 서덕현 김선 심상균 심민섭 김은아(광주 동구) ▶남대영 정옥순 남기동 남미경(광주 동구) ▶선이규 선종욱 선종현 선종덕 선현(광주 동구) ▶문공순 김한석 이정례 김정수 김영수(광주 동구) ▶은종스님(광주 동구) ▶김범식 이정옥 김정현 다나데이치로 김완선 김수진 김준완(광주 동구) ▶박근만 전향순 박화영 정정자 박경암 박남미 박지용 박양영 이미경(광주 동구) ▶형재성 정애님 형승용 형금영(광주 동구) ▶백남윤 최희자 백경협 김선미 백경무 박경네 백경희(광주 동구) ▶일철스님(광주 동구) ▶위재량 이용님 위유환 김해진 위보훈 박은순 위진욱 위성민 위지순 위성경 위한근(광주 동구) ▶윤종구 박옥진 윤성현 윤은정 윤은진 윤은주 장왕천(광주 동구) ▶김용경 박승국 김재은 김재윤 김재호 김효진 김원경 안성자 한수영 김현진(광주 동구) ▶백양남 이행원 고영숙 이선흠 이규흠(광주 동구) ▶정찬권 백길님 정기문 정선기 정혜영(광주 동구) ▶심성채 김정순 심형국 심민경 심형석(광주 동구) ▶한문택 최만덕월 한곤 한진우 한미라(광주 북구) ▶나종일 이명자 나재용 나경숙 나유미 나유진(광주 북구) ▶송영완 선상남 송명훈 송승훈(광주 북구) ▶이은배 양신자 이민태 이진영(광주 북구) ▶홍건희 이덕례 홍종보 홍주영 홍동균 모수자(광주 북구) ▶김태선 강정애 김명세 김진아 김소라 김은향 오현호 노영수 이창훈 오승연(광주 북구) ▶양용춘 김애자 양효성 양희성 양현성 박종례 김광옥 김행옥 김광숙 김진용(광주 북구) ▶최범오 김석례 최승원 최문정 최윤정 이재엽(광주 북구) ▶최승만 장귀례 최동우 최동명 최정아 임동하 최선희 임명섭 임지애 임현석(광주 북구) ▶마복심 위여환 박영미 위재웅 위지은 정해주 위숙자 장영진 위금숙 이학재 위금옥(광주 북구) ▶배정문 이미자 배희순 배인순 배나은 배소라(광주 북구) ▶한희수 장옥련 한준규 한아름 한인수 한연수 한익수 한상옥 한상혁 한삼석(광주 서구) ▶이원송 오찬주 이주석 신은희 이우승 이주찬 박지연 이유정 이형래 임필순(광주 서구) ▶최안남 강홍구 김효심 강혜민 강수민 강경모 강현이(광주 서구) ▶안형수 조기만 안주환 김해정 안건 안기곤 안정화 안영아 안정희(광주 서구) ▶추창성 전금순 추상우 추수연(광주 서구) ▶신육현 김종순 신경숙 신경란 신경희(광주 서구) ▶이종만 최경희 이창한 이진한(광주 서구) ▶변태유 조금님 변재환 김경희 김경순 정정모 정영진 양소아(광주 서구) ▶신백만 김상희 신정훈(광주 서구) ▶김이환 박승자 김석현 김규은 김도희 김유정 김상아(광주 서구) ▶박래완 이일순 박성진 박성희 박우열(서울 노원구) ▶김종채 전금자 김은경 김덕철 김현우(전남 담양군) ▶이주석 신은희 이우승(전남 순천시) ▶천재린 이남례 전병우 김현숙 천명옥 천명석 천성현(전남 화순군)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독자마당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제언 포교전담 '책임포교제' 실시하자

1천6백년의 장중한 불교역사를 드날리고 거룩한 부처님법을 자손만대에 이어줄 책임포교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오직 포교에 전념하는 전법주(傳法主) 스님제를 상설하자.

책임포교제(전법주스님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사바세계에는 8만4천가지 중생고가 있다.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같은 때는 불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선지식이 있어야 한다.

전법주스님은 4년 임기제인 주지스님과는 달리 포교를 실천하고 포교를 장려하고 포교를 점검하도록 상주해야 한다. 포교원력이 강하고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포교책무를 외면하는 군소사암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을 올바른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도 전법주가 해야 한다. 절집의 구심점이 똑바로 서면 불자주변의 불자가족은 물론이고 비불자까지 불법으로 이끄는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한 사람을 포교하여 부처님 전에 데리고 오는 공덕은 법당하나 짓는 공덕과 같다고 했다. 108배를 하고 3천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포교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기도방법도 향상되어야 한다.

전법주스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국난극복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제 2천만 불제자는 전법의지와 포교공덕을 구현하자.

이정란〈강남구 대치동〉

주택가 사찰 심야고성 주민들 수면방해 호소

저희는 장위1동 주민들로써 재단법인 선학원의 상운선원 주지인 임현택스님의 무분별한 새벽기도 때문에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임현택스님은 이십여년 전부터 이곳 주택가에 살면서 불교의식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세벽부터 밤 늦게까지 목탁과 종 등으로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달리다 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목탁을 치고, 즉결심판을 받는 날에는 더 일찍, 더 크게 목탁과 징을 치곤 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주민이 자기를 때렸다고 생트집을 잡아 고소 · 고발을 십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는 이웃도 필요없고 자비도 모르고 이웃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고 목탁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보면 숙달이 되어 잠이 올 것이니 참고 지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희 장위동 주민들은 지엄한 불법으로 이 스님을 엄히 다스려 이 곳에 진정한 부처님의 불교가 싹틀 수 있도록 불교인들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장위1동 주민일동〉

불자인구 감소에 '충격' 어린이 · 청소년포교 시급

기독교와 달리 불교인구는 노령화 경향이 강하다. 얼마전 갤럽조사에 의하면 불교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불교인구의 노령화에도 기인하는 문제인 것같다. 종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중장년층에 많다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중장년층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불교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한다.

불자들의 노령화 뿐만 아니라 포교사들의 노령화도 심각하다. 젊은 불자, 젊은 포교사 양성이 시급하다. 박영도〈충남 예산군 삽교읍〉

주지직 선거잡음 추태 화합승가 모습 보여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봉은사 주지 문제를 둘러싼 스님들간의 불협화음을 바라보면서 스님들에게 과연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출가의 목적이 큰 절의 주지직에 나 집착하면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인가. 각종 선거로 인해서 불편을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주지직을 둘러싼 승가의 모습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온갖 잡음 속에 불협화음을 내며 출발한 주지스님이 절의 신도들에게 화합을 외치고, 정진을 외치고,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법문하는 것은 또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서 재가불자들에게 수행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본래 출가자의 모습을 되찾길 감히 바라는 바이다.

이기태〈강북구 수유3동〉

여성주간에 교계 무관심 여성포교 기회 삼았으면

7월1일부터 7일은 정부가 주관하는 여성주간이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여성주간에 대해 불교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여성주간을 맞아 세미나, 알뜰시장, 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여성불자들을 이끌어 줘야 한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여성주간에는 모든 여성들에게 불교의 평등정신을 알려 포교의 초석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김현지〈인천시 남구 주안2동〉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불교계도 도입했으면

집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있다.

불교계에도 그런 사회봉사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웃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중생이 병드니 부처가 병든다 하지 않았던가. 당장에 이러한 봉사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종교를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어떨까.

최우성〈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E-mail 통신

본지는 178호(6월 17일자)부터 기사실명 및 E-메일 ID 표기 실시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문의와 의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지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기사로 독자와 함께 호흡한다는 취지로 독자의 의견 또는 제안, 질문에 대해 담당기자들이 바로 답변을 하며, 더 많은 독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면에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송장이 손을 들었다는게 사실인지

문 현대불교신문 애독자입니다. 얼마 전 '른스님 수행한담'에서 어느 노인이 "부처님은 일처전심만 해도 될 것을 왜 삼처전심(三處傳心, 영산회상의 염화미소, 다자탑전에서의 반분좌, 열반시의 곽시쌍부, 즉 부처님이 법을 전할 때 세 곳에 걸쳐 세 번 전했다는 것)을 했는가?"고 스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180호) '수행한담'에서도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엄스님이 던데, 전에 법문하셨던 스님과 같은 분인지요? 그리고 화엄스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 된 시신이 손을 드셨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kiminok@www.nungkul.co.kr〉

"생과 사가 둘 아닌 세계의 일"

답 취재하면서 가졌던 의문과 같은 질문이군요. 전에 보셨던 수행한담은 벽파스님(165호)이었고, 이번은 화엄스님입니다. 화엄스님께서 그 노인 얘기를 하시길래 "벽파스님께서도 그런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같이 가셨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아마도 다른 시기에 각자 그 노인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처전심이 아니고 왜 삼처전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무어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처전심은 부처님께서 언어를 떠나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는 의미겠지요.

죽은 시신이 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화엄스님의 답변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세계"라고 하시더군요. 그 시신은 물질이고 시신의 주인이었던 그 노인의 정신세계는 상당히 높았다고 짐작됩니다.

그 노인의 행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집은 없어지고 너무 다르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노인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자 세상보기

환경호르몬은 '과학의 저주'

정자수 격감-암 발생 등 種소멸 위기
日, 화학물질 규제…정부 대책세워야

최근 젖병, 장난감 등과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 아니다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컵라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10분 이내에 먹으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식약청의 발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1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컵라면 제품은 판매가 절반 가량이나 줄었다.

'21세기 최대의 환경재앙', '과학의 저주' 등으로 불리우는 환경호르몬은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온 인간이 받을 '인과응보'는 아닐까.

환경호르몬 이란 '환경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란 말은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돼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AIDS나 암보다 더 심각한 독성물질. 작년 일본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했을 때 처음 등장한 용어다. 생물체의 성장발육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분비·운반·대사·결합 기능 등을 교란시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의 성기능이나 생식기능, 면역기능을 파괴해 결국 종을 소멸시킨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지적하기 시작한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은 자연에 노출된 환경호르몬의 종류를 67종(일본은 1백43종)으로 선정했다.

피해사례 환경호르몬의 폐해는 지난 70년대초 처음 알려진 뒤로 미국 오대호 지역과 플로리다에서 야생동물의 이상 생식기능, 영국에서 암수동체 잉어 발견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는 수컷과 암컷의 성기를 함께 지닌 북극곰 새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50년동안 남성의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생식과 관련한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5년 경남 양산의 한 전자회사 부품공장에서 세정용 화학물질을 다루던 여직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생리중단 등 불임현상을 일으켰다.

대책 정부는 지난 5월말 환경부 등 각 부처관계자와 민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위해성 평가와 정보망 구축, 과학적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장·단기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난해 적극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올해초 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 올해에만 1천억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미국도 지난 95년부터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종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의회는 식품관리법과 음용수법을 개정해 식품 및 수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의 분석을 의무화 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는 지혜를 모을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본 20대 남자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는 정자수를 가진 남자는 34명에 1명꼴로 밝혀졌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의 환경호르몬 실태조사 촉구 캠페인.

물교의 눈

"자연훼손의 인과응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법구경〉 인간에 대한 환경호르몬의 '대반격'. 꿀벌이 꽃가루 채집하듯 자연을 이용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자연의 자정력을 파괴한 인간의 인과응보임에 분명하다.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는 〈보리행경〉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서방 극락정토가 이 땅에 결쳐질텐데. 홍성식 녹색환경감시단장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다면 환경호르몬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명경시의 상혼을 자성하고 환경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도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버리기 등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들었다

6월26일 제주 원명선원에 한 기독교인이 난입해 대웅보전에 봉안된 불상 7백50여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서울 보덕사 훼불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 사찰에서 이같은 훼불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를 비방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또 온갖 삼보를 드러내 각기 설한다면 불·법·승의 다함 없는 바다가 더욱 광대해진다고도 설하셨다. 삼보귀의의 공덕과 삼보비방의 과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삼보비방 "이단이 되어 착한 이 해치니…"

▨세상의 범부가 삼보를 공경치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귀신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므로 서로 다투며 착한 이를 해치게 된다. 이런 악인은 능히 이단이 되어 시비를 그르쳐 집착하며, 음모를 꾸며 잘못된 행위를 막 행할 것이다. 〈대교왕경〉

▨삼보를 공양 예배하며 찬탄 수희(隨喜)하여 부처님들께 권청(勸請)하면, 삼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서 능히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게 된다. 또 불·법·승의 가호를 받는 탓으로 업장을 없애고 선근이 퇴전(退轉)치 않는다. 〈기신론〉

▨선남자야, 마음을 돌려 무엇을 위함으로써 복을 닦고자 할진대 세 가지 길이 있으니, 불보·법보·승보가 그것이다. 승을 공양하면 그 복이 백 배로 늘어날 것이요, 법을 공양하면 그 복이 천 배, 불을 공양하면 그 복이 만 배가 될 것이다. 이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무한의 복이니라. 〈대교왕경〉

▨보살은 응당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해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런가? 이 귀명(歸命)의 공덕의 힘으로 무량한 선근을 성취하게 되며, 또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모두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건 이것을 염할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일 뿐, 내가 어느 유정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도로 끌어들이고, 어느 유정에게는 박하게 대해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겠는가. 불·법·승 삼보를 염치 않는다면, 늘 노여움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보살장정법경〉

▨삼계 속에서 으뜸인 것은 삼보다. 그러므로 에써 이를 일으키고 드러내면, 그 공덕으로 장차 천주(天主)가 되리라. 〈제법집요경〉

▨만약 청정한 신심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여래 계신 곳이나 성문(聲聞) 있는 곳에서 이 가르침을 듣잡고 크게 착한 뜻을 일으켜, 불·법·승에 귀의해 여래의 청정한 계법을 받는다면, 이는 다함이 없는 공덕이므로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존나경〉

▨중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여러 악업을 짓는다면, 제취(諸趣)에 윤회하여 끝없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대반야경〉

TV도 영화도 귀신잔치

사회불안감 · 미신조장 우려

"마구니는 생사를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고, 팔만사천 마구니는 중생의 팔만사천 번뇌를 말함이다."〈선가귀감〉

귀신이야기가 극장가와 TV방송에서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 '여고괴담'을 비롯해 TV방송 3사가 모두 귀신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경쟁하듯 내보내고 있다. 현재 방송3사에서 귀신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는 KBS 2TV '미스테리 추적' '일요일은 즐거워' '김창완의 이야기 셋', MBC TV '오늘은 좋은날'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SBS TV '기쁜우리 토요일' '토요미스테리극장' '전설야사' 등이 있다. 이외에 KBS는 6일부터 '전설의 고향'을 방영하고 극장가에서는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을 필두로 귀신영화 '퇴마록'과 '자귀모' 등의 상영을 앞두고 있다.

여름철을 겨냥한 납량물로 쏠아져 나오는 이같은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남진 신경정신과의원장은 "공포영화류는 IMF관리체제로 야기된 억압된 공포심리가 귀신이야기를 통해 발산된 집단무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흘러 불안한 사회심리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공포물에 몰두하게 되면 심성 자체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좌선 염불 간경 사경 등 자신의 본성을 찾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미아찾기 인터넷 사이트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는 7일 '미아 찾기 인터넷 사이트(http://www.missingchild.or.kr)'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센터에 등록된 5만1천2백38명의 미아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미아 발생 신고도 인터넷으로 직접할 수 있다. 센터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미아 수배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6개 전화국에서 미아 부모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02)777-0182.

실직자 가족에 '사랑의 인술'

부산 범천동 현대안과(원장 김창근·41)가 실직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현대안과는 올 연말까지 실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반 진료와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각종 수술의 경우 비용을 50% 이상 각아주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일반환자 진료비와 수술비의 일부를 실업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051)888-3132.

통조림에 방부제 포르말린

통조림의 부패 방지를 위해 암을 유발하는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처음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8일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50)와 이 회사 공장장 서기복씨(43)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씨(43),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질오염사범 1091명 적발

대검 형사부는 5일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강 등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91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5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처리사범이 335명으로 가장 많이 입건됐고, △무허가 배출시설 230명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97명 △불법 건축물 27명 △행정조치 위반 21명 △기타 281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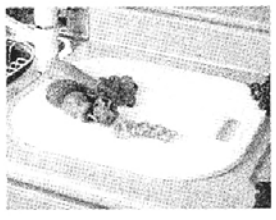
고액탈세자 14명 출국금지

사회 지도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7일 탈세 혐의로 고발된 고액탈세자 17명 가운데 이창재 고려통상 회장, 박영일 미도파 회장과 인기가수 김건모, 신승훈씨 등 14명을 출국금지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이들의 탈세액과 수법 등을 정밀 조사한 뒤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촌지-체벌교사 3개월 정직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강남구 D초등학교 S모교사(53) 등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J모교사(61·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했다.

생상품 항균도마 '박테킬러'



세균을 99.9% 박멸할 수 있는 항균도마 '박테킬러'. 일본 KANEBO의 박테킬러 항균제(미국 F.D.A.인증)를 투입하여 번식력이 강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을 박멸한다. 특히 O-157을 완전히 박멸할 뿐 아니라 탈색 및 탈취효과까지 있다. 일본 미생물시험검사소 인증. A형 2만5천원, B형 2만8천원, C형 1만1천원. 에버그린=(02)540-6645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포교당 양도
◇ 위 치 : 인덕원 사거리 부근
◇ 실평수 : 40평, 상가주택 4층
◇ 법당 25평, 방 3, 기름보일러,
◇ 최고시설 (1억이상 투자했음)
◇ 가격 : 전세 보증금 3,800만원/권리금 5천만원
0343)24-5850/017)281-1231

◆ 포교당
◇ 45평형, 방 4개, 법당 20평
◇ 세면장 있음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청 운 사
02)807-9381/011)230-7511

◆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입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제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유치원 건립 동참 취지문

어느 신심있는 불자 가정에 할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던 어린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집근처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불교 유치원은 없고 교회와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교회보다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 불자집에서는 손자를 성당의 유치원에 입학 시켰습니다.

입학식날, 간식시간이 되어 수녀님이 감사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함께 "기도합시다" 하자 손자는 벌떡 일어나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며 큰소리로 염송을 했습니다. 수녀님이 깜짝 놀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다시 성당의 기도방식을 가르쳤지만 이 손자는 아니라고 머리를 내저으며 할머니께로 뛰어가 집에 가자고 손을 끌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며 수녀님 말씀대로 하자고 타일렀지만 끝내 유치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손자가 배우고 익힌 기도는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릴때 배움의 습성이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 법륭사는 경기도 서해의 신흥도시로서 시화공단을 배후한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에 위치하여 시청사에 인접해 있으며 좌우 주위에 고층 아파트가 수십동씩 신축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 270여 개소 사찰 13개소의 빈약한 불교 불모지로서 포교의 시급함을 물론, 2000년 2월에 동시 입주되는 아파트 인구에 어린 새싹불자들의 포교의 거점이 전무합니다. 30여 개소의 유치원중 불교 유치원은 단 한깨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 기독교에서는 유치원을 벌써 여러곳 신축해서 2000년 입주민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륭사에서는 어린 불자들을 위한 교육 불사에 뜻을 같이 하고져 하시는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널리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일

■ 동참연락처 : (우 429-250)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76
☎(032)697-1155,1177 FAX 697-1178 (본인의 의견,성명,연락처등을 보내 주십시요.)
■ 동참온라인 : 국민은행 265-24-0008-891 이근회

대한불교조계종 천화원 법 륭 사
주지 이덕기 합장

시론

여름휴가 여법하게

금년 여름은 뜨거울 모양이다.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7월 하순에 중복과 대서가 겹쳤으니 7월은 이래저래 혹서(酷署)에 시달리게 될 모양이다.

태풍과 지진에 의한 지구촌 곳곳의 재앙에다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재해까지 겹쳐 생태계 전체가 무질서 속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플로리다의 장림(長林)까지 불타올라 대기(大氣)를 뜨겁게 가열시킨 모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의 도산과 은행의 퇴출, 대기업간의 빅딜 등이 일시에 몰아닥쳐 더욱 '카오스의 복잡성'을 실감시키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망할 수 없게 한다. 말하자면 IMF 한파로 경제전망이 흐린 데다가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의 급증으로 사회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서 몇 갑절 더 무더위를 가중시키고 있다.

천지인(天地人) 전체가 혼돈의 와중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나 할까.

우리가 일찌기 겪어본 적이 없는 혼돈의 복잡성에 직면하여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올 여름에 무더위까지 기승을 떨치고 있으니 여간한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삼복더위를 무탈하게 넘기기 어려우리라는 예감이 든다. 이런 때에는 휴가를 멀리 떠나기보다는 이웃의 산사(山寺)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 앉히고 혼돈의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자칫하면 혼돈의 복잡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더욱 혼돈의 와중으로 함몰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고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고 조출하고 진솔한 개인문화(個人文化)에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의식의 전환을 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작년 여름 휴가 때까지 되어먹지 않은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엉뚱한 곳에 가서 많은 것을 지불했다. 바로 몇 달 뒤에 올 환란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접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했다.

올 여름 휴가에는 명확한 판단력으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하면서 우리가 처한 난국으로부터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생각을 가다듬어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당한 사고의 규범을 세워 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

실체가 불확실한 '거품'을 뽑아내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선사들은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사고의 규범을 설정했다. 그리고 행위를 단순화시켰다. 자신의 시선을 자기의 옥리(屋裏)로 되돌리기 위해서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을 이곳 저곳에 걸어 두었다. 이 경구는 흔히 산사의 댓돌 위에 걸렸다. 자기가 벗어 놓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다. 조고각하라는 경구를 대하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경책으로 느껴져 즉시에 행동을 단정히 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발전주의에 휘말려 조고각하나 소욕지족(少慾知足)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외적인 삶의 조건개선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내적인 정신의 승화에도 마음을 쏟아야 한다.

올 여름휴가에는 헛된 생각과 행동을 억제하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눈길을 자기의 내면세계로 돌리면서 소욕지족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는 산사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냈던 자기자신과 얼굴을 마주하는 여름휴가를 보내면 어떨까.



향 적

〈스님 · 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

> "가까운 산사찾아 허망함 쫓던 분주함 털어내고 자기 내면을 보자"

열린마당

승복의 값과 디자인

승복 가격을 두고 말이 많다. 최근 승복에 패션개념이 도입되면서 양복 두세벌 값을 호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승복 가격도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승복 판매상들은 수공이 많이 들어가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한다. 색상과 디자인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승복의 가격, 색상과 디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조계사 부근 한 승복집에 진열된 승복.

"출가자 본분맞게 가격현실화 시급"

지현스님 〈조계종 총두원 총무국장〉



승복은 가사와 장삼을 비롯하여 수행자의 복장을 통칭한다. 조계종에서는 의제법을 두어 출가자의 분한과 용무에 따라 복식을 구분하고 있다. 출가자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수행과 교화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의제법의 질서를 문란케 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승복은 승가를 상징하는 수단이며 수행자의 의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을 살펴보면 원단의 가격 및 제작비 등의 이유로 비싼 값을 매기고 있다. 1백만원이 넘는 승복도 있고, 승복집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고가판매 전략을 쓰고 있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두가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승가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때때로 스님들이 호화스럽다는 오해를 받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 선사들은 의발을 전수함으로써 법을 이었고, 평생 누더기 한벌로 수행한 백련암 노스님의 모습은 승속을 막론하고 안빈낙도의 거울이 되지 않았던가. 양복을 2~3벌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승복의 가격이라니 어느 기준에서 정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제작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승복은 그 만듦새와 모양, 색상 등이 각양각색이다. 통일된 기준없이 영세업체에서 임의적을 생산되고 있으며 색상과 모양 그리고 복지가 천태만상으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조계종은 가사는 괴색(愧色)으로, 장삼 등은 수묵색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국적불명의 색상이나 형태가 남발하고 있다.

승복에 대한 스님네들의 의식 또한 문제이다. 평상복도 수묵색의 색깔은 입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흰색은 물론 다양한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통일된 의복이 아니라면 과감히 벗어 버릴 수 있는 의식과 사고가 의제를 개혁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평상복은 현대적 디자인 허용해야"

이민향 〈생활한복 디자이너〉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상과 기능성, 감각적 디자인을 추구한 승복이 선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승복의 전통성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전통성의 변질이 아니라 '개량'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간편함과 미적 감각,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집단이 통일적으로 입는 의복은 그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복 제정에 신중을 기한다. 시각적 효과는 첫 인상을 형성할만큼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입는 승복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일반인들의 불교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상세대로 불릴 정도로 색감과 디자인에 예민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느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조계종의 경우, 용무에 의한 복식을 법복과 예복,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복과 예복은 불교의 권위와 법의 상징으로서 격식을 차림이 당연하다. 승가의 중요한 복식을 승복 제작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식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무형문화재 소유자처럼 종단에서 양공장(良工匠)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봄만 하다.

그러나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은 거추장스럽지 않게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미적 감각을 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허리나 발목을 묶는 끈 대신 단추나 벨크로테입(일명 찍찍이)을 이용한 승복이 스님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먹물색이 아닌 은은한 파스텔톤의 승복도 인기품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청빈해야 할 스님들이 승복의 화려함과 고급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질타를 받고 시정돼야 할 것이다. 몇몇 고급 승복집에서처럼 속옷마저 고급화시키고 다양한 모양이 인쇄된 속옷을 내놓고 비싸게 판매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승복 판매상으로서, 또 승복 디자이너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로써 각성해야 될 것으로 본다.

승복에도 '거품'

모시승복 1백만원 호가

강원도 정선의 한 스님은 최근 승복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백만원을 호가하는 승복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대부분 승복이 예상외로 고가여서 구입할 수 없었다고 스님은 말했다.

승복이 일반의류와는 달리 법의(法衣)라는 종교적 특징과 주로 신도들의 보시로 이뤄지고 있어 이왕이면 고가의 승복이 선호된다. 게다가 각 승복점들도 이를 판매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승복의 가격은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승복이 고가인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애용하는 승복의 경우 1벌에 15만원에서 30만원선이다. 그러나 옷감이 고급화될수록 가격도 급상승한다.

이에 대해 승복점들은 다른 의류에 비해 수공이 많이 들고 기성복처럼 다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비싼 편은 아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재료비나 수공비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즉 재료·제작비 등 원가에 비해 3~4배 높게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모시나 삼베 실크 등의 승복은 1백만원을 호가할 정도. 한편 구매자들은 "승복 가격도 거품을 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승복집은 서울조계사 주변에 23개의 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전문 승복집은 17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불구용품, 서적 등과 같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18개 업체가 전문 승복점으로 있으며, 이밖에 불구용품과 같이 겸하는 곳까지 합하면 50여개의 매장이 있다. 김중근 · 강지연 기자〈gamja@buddhapia.com〉

전통승복의 범주

율장 법복과 평상 구분
회색류등 수수한 색 주류

승복은 때와 장소와 역할과 필요에 따라 법복, 예복,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으로 구별된다. 율장(律藏)에는 법복을 속복과 달리하고 있는데, 법의는 △옷감 △색깔 △마름질을 여법하게 해서 수도인의 안분(安分)에 어울리도록 하라고 적고 있다. 옷감은 명주 · 비단류를 피하고 색깔은 후르직하든지, 거무스름하든지, 붉으죽죽하든지 한 종류로 화사하지 않고 수수하고 고상한 빛깔을 택하라 했다.

세종 때 금령에 의하면 승려의 의복에 검정색의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시색(緦色: 회색과 비슷한 거무스레한 색)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색은 승복의 전통이 되어 현재에도 장삼과 평복 및 소지품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시색의 낡은 천을 기워 모아 만들었던 기준이 있음에도 최근에는 승복에도 '패션바람'이 불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수행복, 작업복, 외출복이 선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각종 癌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재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로버트 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 0547)437-4136 , 437-41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썩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 옥만을 찍찍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미)

윤달수의
어디서 구입할까?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상인
몇 년을 불교장의사로 일해온 연합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어떻게 구입할까?
직접 확인(만져보고, 태워보고) 하시고
비교하신 후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종단소식

조계종

행자교육 개선 공청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5일 오전 10시 불교회관에서 '기초(행자)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이 발제를 맡고, 법장(수덕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종광(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일(행자교육원 교수사) 우진(통도사승가대학 교수)스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고운사 삼성각 낙성식

외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10일 삼성각 낙성식과 대중 요사채인 연지암 중수회향식을 봉행했다. 삼성각은 건평 8평으로 착공 7개월여만에 완공됐다.

태고종

구치소에 도서 1천권 보시

총무원 사회부(부장 호명스님)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영등포구치소에 경전, 불교교양서적, 일반서적 등 1천권을 전달했다.

사회부는 이와관련 종단차원에서 '영등포구치소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종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몽암사 미륵불 점안식

제천 몽암사(주지 월산)는 5일 미륵불 점안 및 예수재를 봉행했다.

미륵불은 불상만 3.6m로 좌대까지 포함하면 10.9m에 이르는 대불이다. 예수재는 미륵불 점안에 이어 봉행됐다.

천태종

삼광사 청년회 창립 24돌

삼광사(주지 덕수)는 5일 지관전에서 청년회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교무 수산스님은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정진을 더욱 부지런히 할 것"을 당부했다.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대회

통리원(원장 총지화·사진)은 27~29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충북 괴산 총지종 수련원에서 '제8회 여름학생 수련대회'를 연다.



통리원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수련대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법회는 물론 달빛산행, 총지놀이마당, 여름밤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통한 진실한 마음가짐 및 공동체생활 정신을 배양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문종

흥천사 지장보살 점안

군산 흥천사(주지 지환)는 6일 1천 지장보살 봉안 회향·및 점안법회를 가졌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흥천사 사부대중의 발원을 모아 조성한 1천 지장보살상은 높이 25cm 크기의 옥돌 좌상으로 96년 3월 이래 2년4개월 여만에 회향됐다.

흥천사는 이날 점안법회에서 금동탱화 조성불사와 본존 개금불사도 함께 회향·점안했다.

총화종

수진사 3사 순례법회



수진사(주지 남정·사진)는 윤달을 맞아 7일 3사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3사 순례지는 김천 직지사, 영천 은해사·만불사로 1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기원했다.

원융종

동원불교대 2회 졸업식

종립 동원불교대학(학장 법장)은 16일 오전 11시 총무원 3층에서 제 2회 졸업식을 갖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불교학개론, 정토사상, 한국불교사, 〈금강경〉강좌 전과정을 이수한 20여명의 학생이 배출됐다.

한편, 동원불교대학은 9월 제3기 입학에 앞서 8월 한달동안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02)857-5094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찰-신도 지역환경 파수"

봉은사 지도자 환경교육 '현장'

7월6~28일
우선 간부 40명 교육
자연세제 사용하기등
불자 환경수칙 배워
수료생 환경모임 구성
지속적 활동 펴기로



◇봉은사 신도회 간부 40명은 7월6일부터 28일까지 환경교육을 받고 사찰환경지킴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한 환경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각성의 계기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찰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중심이 돼야 합니다. 신도들도 법회 위주의 신행을 벗어나 지역 환경·사회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문을 연 '봉은사 지도자 환경교육' 현장. 7월6~28일(매주 월·화요일) 사찰에서는 처음 열린 환경교육에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첫번째 강사로 나섰다. 그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환경운동은 의식의 전환과 실천이 담보되는 생명운동"임을 강조했다.

봉은사 각 신도회 간부들로 구성된 40여명의 교육생들은 그간 막연하게만 생각해 온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불자들이 지켜야 할 환경수칙을 되뇌였다. △사찰주변 환경오염 감시 △공양간에서 자연세제 사용하기 △재활용 상설매장 및 분리수거함 설치 △지역 환경감시 및 모니터 활동 △새둥지 만들기 등 환경방생 실천 △사찰 유휴지 유기농 재배하기 △생활협동조합운동 △'1인1목' 심기 운동 △사찰에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등 작지만 실천해야 할 일이 많음을 깨달았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를 위한 무역협회의 건물신축과 관련 2년여 동안 사찰환경 소송을 벌여 온 봉은사에서 실시되는 이번 환경교육은 사중스님과 신도회가 함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안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환경모임을 구성,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사찰환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사찰환경교육은 불자들이 사찰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환경운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찰에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답사와 실습교육도 틈틈이 병행할 계획이다.

강사진도 전문가들로 짜여졌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녹색교통운동본부 임삼진 사무총장, 김동민 前이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자연생태연구소 유창희소장, 이상국 '한살림' 상임이사,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등 9명의 저명한 환경운동가들이 맡아 불교환경운동의 전문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봉은사 종무실 전대식 과장은 "IMF 관리체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자연에 대한 인식부족, 과소비 등 물질위주의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생태학교를 개설했다"면서 "사찰 구역법회나 불교대학동문회 임원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통한 신도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 후 제2기 생태학교부터는 일반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교육원은 봉은사 환경교육이 사찰환경교육의 새 전형이 될 것으로 판단, 전통사찰 등에서 환경교육을 의뢰할 경우 생태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02)765-632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구체적 불교수행으로 닫힌 마음을 여는 동사섭 법회는 순간을 부처로 사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순간 순간 부처로 삽시다"

용타스님 우리는 선우서 동사섭법회 열어

'부처로서 이 순간을 산다'
'삶의 결론을 나눈다'

4일~5일 열린 우리는 선우의 동사섭법회 현장의 주제다. 이번 동사섭법회는 미국 삼보사에서 일시 귀국한 용타스님의 지도로 1박2일간 진행됐다.

80년 부터 용타스님에 의허시작된 동사섭법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 확산되었는데 이번 법회에도 우리는 선우 회원외에 소문을 듣고 온 비회원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천주교 신자와 수녀님도 참가했다. 이번 동사섭법회에는 IMF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참여한 이들을 비롯해 닫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불교수행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삶의 결론이란 느낌입니다. 느낌을 살피며 알고,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동사섭입니다.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느낌만큼 행복해지고, 그 만큼 해탈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 자신은 부처인 것입니다"

논산 삼동원 수련원에서는 23일~8월20일 3차에 걸쳐 5박6일 동사섭수련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광주 실업자대책위 발족

불자 2백명 활동…옴니선원은 '쉼터' 개설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업자들의 신심함양과 재취업을 위한 실업자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실업자대책위원회(위원장 무선·옴니선원)는 5일 광주우체국사거리에서 천운 향림사조실을 비롯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실업자대책위원회에는 각 사찰 스님을 비롯 광주지역 불자 2백여명이 가입, 활동하게 된다.

이날 무선스님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을때 앞장서 국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옴니선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실업자 쉼터'를 개원, 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 선체조, 단전호흡, 강의 등을 비롯 각종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업자쉼터는 하루 평균 20여명의 실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진각종 종학연구실 개원

교법·포교등 연구…실장에 혜정대정사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종학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교법정립을 위해 종학연구실을 개원한다.

진각종은 종학연구실을 교육원장 직속기구화 하고 교법 및 교육, 포교에 대한 기획과 연구업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진각종은 종학연구실장에 혜정대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를 위촉하고 효봉 진선여고 정교, 관증 교육부장, 회성 교법국장, 귀정 진각대 교수, 진경 위덕대 교수, 덕일 위덕대 정교, 지현 진각복지회 국장을 연구원에 선임하는 등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종학연구실은 20일 오후 3시30분 교육원에서 개원식을 가진 후 종학 및 교법 자료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학을 체계화·구체화하는데 전력할 계획이다. 또 종조법어록 및 종조일대기 발간, 밀교사전 심의, 밀교전서 계획수립 및 1차 발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도솔사 호국영령 천도재

강원 양구 21사단 군법당 도솔사(주지법사 정연태)는 17일 두타연 위령비앞에서 호국영령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대한법화종 팔봉사(주지 팔봉) 후원으로 민통선내 6.25 격전지 현장에서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1부 위령대재 2부 영산재 등이 진행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왕궁리유적 사적 예고
계룡산 남매탑 보물예고

국보 289호인 왕궁리 5층석탑이 있는 익산 왕궁리유적이 사적으로 지정예고됐다. 또 남매탑으로 잘 알려진 계룡산 청량사지 7층석탑과 5층석탑은 각각 보물로 지정된다.

윤기석 기자

범자문비 방치 공원에 10년째

남한에서는 유일한 범자문비(梵字文碑·일명 대불정주비)가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정원에 방치돼 훼손이 우려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범자문비는 가로 161cm 세로 31cm 두께 31cm로 제천시 한수면 월광사지와 관련이 있는 유물.

지난 87년 월광사지 입구 논가운데 방치된 것을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리사무소가 들어서면서 정원으로 옮겨 관리하고 있으나 정원의 습기와 이끼 등의 피해로 비문이 마멸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보살선원 후불탱화 봉안

대구 팔공산 보살선원(이사장 각현)은 6일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를 봉안했다. 삼존불 후불탱화는 가로 4.5m, 세로2.7m 크기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태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알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 나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고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잘난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얼나고 손, 발, 배 차가우며 배꼽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 눌러보아 맺힌게 있고, 통증느끼면 몸뚱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哲學博士 曹誠佑 지음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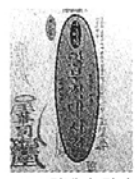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對를 알아야만 勝者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實踐으로 職場에서는 處世指針書로 젊은이 들에게는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書로 銘戰은 善用하여 愛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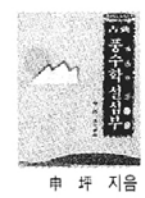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俊



승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남방불교에 '호기심'

위빠사나 법회·수행 늘어
서울·부산에 빨리불교대 개원

남방불교에 쏟는 관심이 학자들의 연구 중심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신앙 형태로 변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스리랑카 국립빨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이사장 허현오)가 개원되는 등 빨리어경전과 예불의식, 위빠사나 수행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남방불교 의식과 수행은 사찰과 대학가에 널리 퍼져있다. 태종사(주지 도성), 가야사(주지 마성), 보명사(주지 상원) 등 10여개 사찰과 거해스님의 위빠사나선우회 등에서는 빨리어예불의식이 봉행되고 위빠사나가 주요 수행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창원대, 서강대, 용인대 등 대학에서는 명상과가 개설돼 위빠사나 강좌가 열리고 있다. 대전생활불교회관, 용인 와우정사, 위빠사나 맑은 명상원 등에서도 명상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삼귀삼창-오계-경독송 순으로 진행되는 남방불교 예불의식은 '반야심경' '사홍서원'은 없을뿐만 아니라 '삼귀삼창'도 '삼귀의'와는 사뭇 다르다. '경독송'에 사용되는 〈자비경〉〈삼보경〉〈길상경〉 등서는 "와서 보라"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등과 같이 실제적인 어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표현되어 있다.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내려가는 것 등 대상을 관찰하며 깨달음을 추구해 한국불교의 조사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립빨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교수로 위촉된 마성스님은 "불자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괄정도, 위빠사나 등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다"며 남방계 예불의식과 수행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수행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종지·종풍이 표현되는 예불의식은 보전돼야 할 것"이라며 남방불교계 예불의식의 확산은 각 종단의 종지·종풍 차원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WFB 대회 10월19~11월2일 호주 시드니서

'21세기 향한 불교의 도전' 주제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제20차 및 WFBY 제11차 대회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다.

호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대만 불광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주제토론과 호주불교 탐방,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50개국 150개 지부 대표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장기수 후원회 창립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지원) 창립법회가 4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봉행됐다. 도온·법안스님, 박진우회장 등 3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각 사면 석방조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옹스님 조사禪워크숍 연다

16~18일 백양사

무차선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8월 개최 예정인 '국제 무차선회(無遮禪會)'에 앞서 '서옹스님 조사선 워크숍'을 16~18일 백양사에서 갖는다.

한국 조사선의 장·단점과 수행풍토, 현대사회에서의 조사선의 역할·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사전 배포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선에 관련한 질문을 제출,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이 답변하는 그룹 인터뷰 대담방식으로 진행된다.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김지견 박사(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심재룡 교수(서울대) 등 '국제 무차선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조직위는 이번 워크숍의 토론과 대담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묶을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실천승가회 9일 성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9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8·15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정부'가 과거 잘못된 역사를 과감히 청산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법무부,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에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3일에는 2백여 회원사찰에서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초하루법회를 동시에 봉행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중국종교인구 불자 가장 많다

3~4천만명 추산…기독교인은 1천만명

중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중국의 종교활동인구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불교와 도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 모두 5천여만명으로 집계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경우 불교와 도교가 혼재되어 같은 사찰·사원에서 신앙되고 있고 신도들 역시 두 종교를 구분없이 믿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인구는 3~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은 또 사찰·사원이나 교회 등 각종 종교활동 장소가 8만5천여개에 이르고, 교역자와 종교학교도 각 30여만명과 7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기독교 신자는 1천만명이며 교회가 1만2천여개, 예배장소가 2만천여개에 달한다.

'종교를 믿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전통으로 인해 포교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도 증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수십만명씩 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개방·개혁으로 인한 자유주의 물결이 '종교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기독교 등 서양종교와 한국불교 등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외국 종교인들의 포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변 등 조선족 자치주에 집중적으로 목사를 파견하고 있는 기독교는 자선활동이란 명목으로 선교활동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북문화재 미국전시 추진

미국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前주한미대사)는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드 캐리어리 코리아 소사이어티부회장은 2일 "대북 교류협력 확대를 원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남북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북한의 문화재가 외부세계에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북미관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기석 기자

'한솔 13·18봉사단' 교육

승가원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스님)은 청소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한솔 13·18 봉사단' 교육을 실시한다.

8월 4~7일 중학생, 8월 11~14일 고등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및 장애인에 대한 강의,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 실습, 수화 노래 배우기, 장애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0342)716-4215 김재경 기자

10일 보광사 문화축제

속초 보광사(주지 석문)는 10일 제2회 보광사 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문화축제는 생전예수재, 경로잔치 장승세우기 및 장승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보광사는 14일까지 도예가 서종훈 도판전 및 설치미술전(오염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물고기 형상)도 가졌다.

김중근 기자

대불청 집행부 3명 사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가 최근 법인 등록 등 대불청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정우식 국장 외 집행부 2명에게 사표를 요구, 수리했다.

오종욱 기자

부산서도 기념관건립기금마련 산중음악회

국악선율로 위안부 '위안'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김영동 산중음악회가 4일 부산 동명불원 대법당 앞에서 열렸다. 나눔의집(원장 혜진)이 주최하고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주관한 이날 음악회는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산사음악회여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혼힐머니를 비롯해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서 정산스님은 "오늘 음악회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불자들은 할머니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줄 아는 동체대비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일축전불교본부 결성

상임대표에 지선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진각종 대한밀교청년회 등 교계 10여개 단체는 8일 서울 견지동 육화관에서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개최를 위한 불교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15대축전 불교추진본부 구성을 결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의 원칙과 남북합의서 정신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상임대표에 지선스님, 공동대표에 청화 지원 진관 도법 지성스님과 회정정사, 본부장에 효림스님을 추대키로 하고, 향후 참여인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

문화재관리국-경주시 고도보존법 놓고 '상충'

세금감면등 주민편의 의견달라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가 문화재보호와 주민민원해소를 위해 각각 신청한 고도보존법이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 마찰이 우려된다. <본지 139호 1면, 141호 18면 참조>

문화재관리국이 지난해 7월 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의뢰한 '옛도시보존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가운데 경주시가 최근 별도의 '고도보존법'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한 것. 문화재관리국의 옛도시보존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비해 문화재 규제지역의 일부 세제혜택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하긴 했지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중요쟁점부분이 누락돼 있다.

반면 경주시가 신청한 고도보존법은 △발굴비용 전액 국가부담 △토지보상시 인근토지 실거래가격 적용 △규제된 토지의 각종 세제 감면 및 면제 △국가의 문화재관련 지역 정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요구를 1백% 반영하고 있다.

이같이 문화재관리국의 옛도시보존법은 주민의 요구를 크게 반영한 경주시의 고도보존법에 못미쳐 두 법안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시 서용봉문화과장은 "현재 2개 법안이 각각 따로 신청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주민요구를 외면한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목탁소리

위 영 란 〈취재1부 부장〉

지역 이기심에 멍든 실직자

"실직자 돕기가 무슨 소용있냐, 우린 싫다."
"소란스럽고 번잡한 대형행사 하지마라."
"왜 여기서 벌리느냐, 다른 곳에서 해라."

5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앞 도로에 차려진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 우리 농·축·수·임산물 직거래장이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 주민 일부의 극심한 반대로 철수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해 국민들의 관심속에 범불교적으로 진행해 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부대행사. 농·축·수·임업협동조합 중앙회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해 마련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도 참석했다.

더구나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은 농어촌도 살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펴 온 정책사업으로 여느 장과는 달리 '점잖게' 진행된다. 실제 이날 핸드마이크로 법당을 향해 소리까지 지르는 등 극심한 '소란'을 피운 아파트주민들 보다도 더 조용했다. 또 관문사 법당은 완벽한 방음시설로 외부로 일체 소음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장터개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주민들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실직 등 경제난으로 어려워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이건 국난극복이건 알바 없고 다만 우리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싫다는 식의 '지역 이기심'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했다.

목포에서 올라와 이날 법회에 참석한 한 불자는 "싱싱한 우리 농수산물을 싯가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고 게다가 판매수익금의 일부로 실직자를 돕겠다는데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또 현장에서는 "반대하는 이들이 타종교인들 이거나 아파트 단지내 상인들이 아니겠느냐"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이날 집값 4~5억원대 아파트 주민들의 지역 이기심은 실직자들의 가슴을 한번 더 멍들게 했다. 우리의 국난극복은 이같은 계층의 정신극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관계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

〈yryui@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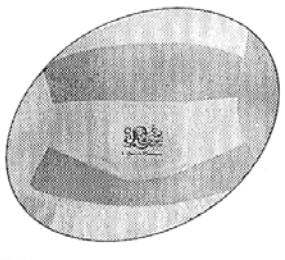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기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빗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찰벽화 단청 현대미 살려요"

'불교미술연구소' 나서

교수들 동참 창의력 돋보여
심우도엔 티셔츠 소년 등장



◇수인(手印)과 꽃이 소재인 홍은사 설법전 벽화. 김근중교수作.



◇홍은사 벽화의 '심우도'. 티셔츠와 운동화를 신은 소년이 이채롭다. 손연칠교수作.

새로 지은 사찰에 가보더라도 대부분 벽화나 단청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다. 소재나 문양, 기법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직 미술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불교미술연구소(소장 손연칠)가 '불교미술의 찬란했던 과거의 전통이 이 시대의 현대성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시대 불교미술계의 과제'라는 취지로 단청과 벽화의 현대화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미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신축건물인 안동 홍은사(창건주 손현수)의 벽화와 단청을 현대적 감각의 문양과 그림으로 장엄했다.

홍은사의 벽화는 기존 사찰벽화에서 많이 그려진 팔상도 대신에 수인(手印)과 꽃, 절 주위의 풍경을 그린 동양화로 장식됐다. 심우도도 옛 그림이 아니라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친근한 이웃집 소년의 모습으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또 대웅전, 설법전 등의 단청은 고풍스런 옛 문양이 아니라 만다라화를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양과 색으로써 창의력을 살리고 있다.

연구소는 홍은사 외에도 동국대 대각전, 순천 금둔사 등의 벽화와 단청에 변화를 시도했으며 현재 청도 대응사의 단청과 벽화를 작업중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손연칠(동국대 미술학, 문화재전문위원) 김근중(경원대 미술학), 김선두(중앙대 미술학) 김봉열(한국종합예술대 건축학, 문화재전문위원) 홍광표(동국대 조경학)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연칠 교수는 "창작과 실험정신이 없이 옛 것만을 답습하는 한 불교미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창작예술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미술연구소 (02)285-2369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혜철 · 재신스님의 재소자 포교담

불교TV 제헌절특집 '작은 깨달음…' 방영

불교TV는 10여년동안 재소자 포교에 힘써온 혜철스님(불교사회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과 비구니 재신스님(신촌 봉원사) 등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작은 깨달음, 그 자유를 찾아'(담당PD 강용호)를 17일 오전 11시10분부터 12시까지 50분간 방영한다.

제헌절을 맞아 법준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획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송 제2감호소 재소자 수계법회, 재소자들과의 신행상담, 영등포교도소 자매반 교리법회 등이 소개된다. 특히 한 재소자의 부탁으로 경남 고성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들과 노모를 두 스님이 찾아가 위로하는 것과 백내장을 앓고 있는 재소자를 수술시켜 광명을 찾게 해주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운교 건축원리 소개

EBS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20분간 우리나라 아치형 다리로서 대표적인 청운교·백운교 다리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발명Q! 원리를 찾아라, 청운교와 백운교' 편을 방송한다.

이번 프로에서는 압축과 분산을 통해 중심으로 향한 힘을 분산시키는 아치형의 원리, 무게를 제일 잘 버티게 하는 아치형의 장점 등이 모의 실험을 통해 소개된다.

여름특집 '노래가 있는…'

불교방송은 16일~19일까지 4일동안 여름특집 '노래가 있는 곳에'를 낮 12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00분간 방송한다. 개그맨 최영준씨가 진행할 이번 특집 방송은 가요, 트롯트, 팝송, 클래식 등 여름과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주부 신행담

인연



그림 · 문병성

부처님께 복을 빌지말고 내마음속 부처님 믿으세요

자업자득 이치 깨달은 뒤 선행의 씨뿌리며 살기로

"실례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의 이웃인 미국 아저씨가 나를 보자 말을 건넸다.

"우리집에 한국 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 부모가 방문했어요. 당신을 소개했더니 만나고 싶어합니다"라고 하기에 그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K여사를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7년 전에 암수술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일년 가까이 도서실에 드나들며 암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찾아 읽고 연구했다는 K여사의 집념은 존경스럽기조차 하였다. 그덕택에 수술 후 화학요법을 거부하고 스스로 암을 이긴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런 그녀에게는 안양 한마음 선원에 계시는 대행큰스님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계셨다.

나는 K여사의 가족을 초대해 저녁을 접대하고 노래솜씨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에는 그녀와 함께 L.A. 한마음 선원을 찾아가 법회에 참석했다. 그때 그녀는 절에서 대행큰스님의 책을 사서 나의 친절에 고맙다며 선물을 했다. 미술 교수인 K여사는 귀국한 후에도 대행 큰스님의 책을 두권 더 구해서 나에게 부쳐 주었다.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나는 이처럼 사람 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일까? 막다른 골목에 서서 갈 곳을 모를 때는 죽고싶었었는데…. 젊었을 때 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에게 묻곤 했었다. 살아가면서 더디게 얻어지는 해답들은 시원치가 않았는데 나는 큰스님의 책 속에서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대행스님께서는 부처님께 이기적인 복을 빌지 말고 내 마음 속 부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다. 온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니 이 우주의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법이니 마음도리를 알아서 깨우쳐 가는 길이 바로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일러 주신다.

언젠가 나도 여러 가지 일상의 잡다한 일들을 마음 속에 움켜쥐고 마침내 위장병으로까지 몰고 간 어리석은 경험이 있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신경성 위궤양이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당장 쓰레기통 속으로 약병을 던져 버렸다. 내 마음 하나 운전을 못하는 주제에 인생 수십년을 조절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체투지를 하며 나를 낮춰 평등의 도리를 익히는 훈련(?)에 들어갔다. 저 아주 작은 미물까지도 나의 처지와 같다는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머리가 띵하고 무거웠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처럼 몸도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쉬고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고 창 밖 햇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니 저절로 두 손은 내 가슴 위에 모아지며 이 우주 법계의 모든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밝은 웃음과 맑은 마음은 반사경에 다시 튀는 따스한 햇살이 되고 인연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어느 학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하하 웃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 나도 스스로 착한 마음의 씨를 뿌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 순간 후의 미래와 내생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얻을 때는 누군가 잃었기 때문에 주고 받는 이치가 결국 같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배우지 않았는가. 자업자득의 이치를 깨달으니 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리라.

나는 스승이 된 책들을 보내준 K여사와의 인연에 감사를 드린다.

최미자 〈미국 샌디에고〉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IMF로 실직을 당한 고통과 좌절을 신심으로 이겨낸 'IMF 극복 수행담' 원고를 모집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신문게재와 함께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매수: 30매 내외 · 전화: (02)722-4162 · 팩스:(02)737-0698

출 판

본 지면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 및 단가 가로 9cm×세로 7cm

이 용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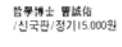
☎ (02)737-8881(代), (02)732-1522(直)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탁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법루博士 몽誠翁 /신국판/정기15,000원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마음씨의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공격. 그리고 운세상의 길흉을 일곱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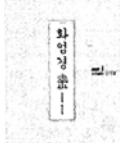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B/D T.02)921-8434 F.02)929-3470

無北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5천여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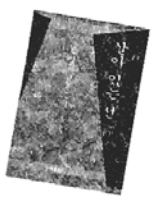
무비스님 완역 한글 회엄경의 특징

❶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❷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❸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❹ 화엄경의 어휘를 알기 쉽게 풀이한 부■錄小辭典 발간
❺ 상세한 단락 구분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❻ 전 12권 160,000원(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민족사 서울 종로구 경인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禪

선은 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상화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송대 임제종 원오스님 문하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시라 불리며 선사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사의 백미이다.

오스라즈니히 강해, 유원장옮김, 값 9,000원

살아있는 선

松江企劃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내면의 울림
진리의



법문
경전
불교음악
찬불가
명상명상
법문 · 경전강해

송강기획만
불교의 ㅅ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寺刹文化硏究院



전통사찰총서

1 · 2 강원도 I · II
3 경기도 I
4 서울의 전통사찰
5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II
6 전남의 전통사찰 I
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
8 · 9 전북의 전통사찰 I · II
10 · 11 충북의 전통사찰 I · II(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요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8728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거사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이동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집등해 수록하여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제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재신도를 위한 계(戒)를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훈 역음 신국판 양장/319쪽/값20,000원

한국사찰음식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신사의 술항 가득한 유명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래져 내리오는 법 · 송광사 · 봉인사 · 직지사 · 국사 · 대납대흥사 · 도사 신흥사 · 상원사 등의 맛도만 전해 듣던 유명사찰음식 23여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그 요리법과 생생한 컬러사진 수록

김연식 지음 4×6변형 반양장/156쪽/값 13,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5050 팩스 (02)393-9696

염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모태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저/신국판 양장/726쪽/값25,000원



염불의 전개와 展開史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 전화:02)720-9372~3 팩스:02)723-0646

불교출판 - 蓮池門

불교출판 "蓮池門"은 생사해탈의 묘법인 정토의 가르침을 펴내기 위해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토문고 1
잘 · 수 · 멸 · 죄 · 경
-태아영 천도공양법-



정토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제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비로소 바로 삶의 깊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책갈피마다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스스로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핵심되는 가르침

현집실 역음/값4,000원 천집실 역음/값4,000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0694)52-1755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최정인지음/신국판/454쪽 값 10,000원

이 책은 종교란 그 종교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종교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우리나라의 현 종교상황을 살펴볼 때 종교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이 책을 펴내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최정인 스님은 일본 애지학원대 불교과 석 · 박사를 마쳤고 현재 동국대의 강양승가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 외고는 그동안 교단과 법형에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강의한 것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도서출판 이레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201호 전화 02)730-8976 전송 02)723-6801

판매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은 하늘과 땅사이에 인간을 밝게해야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깨우쳤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유치한 수준도 안된다.

삼내걸 지음/각권15,000원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이야기전3권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이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도서출판 중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우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외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떠도는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된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직접기 지음

신국판 240쪽 /값6,000원

도서출판 법공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160면/35,000원
실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예화(例話)를 실어 알기 쉽게 엮었다

● 기 도 신국판/240면/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팩스:02)586-9078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해드릴 드립니다.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에 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면벽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바로 그 선불교의 창시자입니다.
화엄선사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제품명 화엄선사 달마도
재 질 순금 99.9% 크 기 5.2cm × 7cm 가 격 ₩15,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폽아 주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전 면)



(후 면)

부다피아 쇼핑몰 :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